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

#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

2020. 5. 7.(목) ~ 8.(금)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일정표

## Day 1

시간	구 분	주요내용	
10:00 ~ 10:30	개회식	<b>개회사</b> 조대업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b>환영사</b>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b>축사</b>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0:40 ~ 12:00	특별세션	<b>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b> 코로나19의 영향 및 각계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언 등 자유토론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4:00 ~ 15:30	분야별 세션	<b>세션 I: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b>	
		좌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발제	① <b>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b>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② <b>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b>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③ <b>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b>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토론	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16:00 ~ 17:50	분야별 세션	<b>세션 II: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b>	
		<b>현장의 목소리: 현장 사례발표</b>	
		좌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발제	① <b>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의 변화</b>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② <b>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b>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③ <b>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b>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토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윤성욱 충북대학교 교수

# 일정표

## Day 2

시간	구 분	주요내용
10:00 ~ 11:50	분야별 세션	세션 III: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현장의 목소리: 주한외국대사가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좌장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발제 ①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
		②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③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토론 김기정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구갑우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장 김익환 고려대학교 교수
13:30 ~ 15:20	분야별 세션	세션 IV: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현장의 목소리: 현장 사례발표
		좌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발제 ①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③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 이종구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한귀영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정백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
15:40 ~ 16:30	국무총리 특별강연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



# CONTENTS

<b>개회사</b> .....	7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b>환영사</b> .....	9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b>축사</b> .....	10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b>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b> .....	11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11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19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	25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39
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	45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51
<b>세션 I.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b>	
<b>발제 1.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b> .....	55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b>발제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b> .....	69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b>발제 3.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b> .....	89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b>토론</b> .....	109
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	109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115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121
<b>세션 II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b>	
<b>발제 1.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의 변화</b> .....	129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b>발제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b> .....	145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b>발제 3.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b> .....	159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CONTENTS

토론 .....	177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77
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 .....	183
윤성욱 충북대학교 교수 .....	191

## 세션 III :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발제 1.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 .....	197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	

발제 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	205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발제 3.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 .....	217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토론 .....	227
김기정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	227
구갑우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장 .....	231
김익환 고려대학교 교수 .....	237

## 세션 IV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발제 1.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 .....	243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발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 .....	263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발제 3.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 .....	295
이종구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	317
한귀영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317
정백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323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 .....	329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대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를 빛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과 각 국책연구기관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과 부처 관계자분들, 특히 오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의료계, 노조, 기업 관계자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10일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 문재인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5G통신 상용화, 유니콘기업의 증가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시민의 힘과 정부역량의 재발견이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정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위기, 한일 통상대란, 코로나 바이러스 대란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존감을 확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가 겪은 첫 번째 국난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위기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등 남북 관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난은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는 분명히 우리 경제와 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입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명 및 경제사회적 피해가 막심하고 혹독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 최근 한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 뿐 아니라 세계체제에도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의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중첩된 위기와 대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협력위기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위원회도 이러한 3중의 위기관리를 위해 협업적 ‘정책콘텐츠’ 관리, 협력적 ‘정책네트워크’ 관리, 확장적 ‘정책소통’ 관리의 3대 정책기획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개회사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전환의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방역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훌륭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우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 대 업

#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룡입니다.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중요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정부 부처, 정책기획위원회,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며칠 후, 2020년 5월 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루어온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실현해야 할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국사회와 세계는 코로나 19의 창궐로 인해 건강,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대미문의 복합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표면이 거대한 지진으로 흔들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듯 세계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대격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적 포용과 개방, 혁신과 국제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코로나 19의 대응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 어느 국민도 희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인명 중시 철학과 중앙-지방정부의 집중적 노력, 국내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헌신,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이겨내는 데는 검사 키트의 신속한 개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안전한 검사,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통한 경증 환자의 치료, 나아가 초중고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체제의 전면적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일련의 ‘혁신의 폭발’(innovation explosion)이 큰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혁신의 힘과 더불어 포용과 개방의 정신은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임기 4년, 5년차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나침반이 되고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산을 토대로,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 고용위기, 사회보장 위기, 나아가 국제교역의 위기 등 일련의 복합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낸 정부, 나아가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세계 공동체의 안전과 공동번영을 이루어낸 정부로서의 높은 위상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 지난 3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논의하는 국정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룡

#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4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직후,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마스크를 나누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전국의 의료진들이 대구로 모이는 등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우리 정부는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한 진단검사 등 정직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세계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덕분에 경제위기 극복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황금같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G7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비·유통·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고용유지를 최대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증유의 위기상황인 지금은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화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온라인 에듀테크, 핀테크, 인터넷 금융 등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변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국가경영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한 진단키트 업체, 치료약·백신개발 바이오 기업 등에게 국제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금융은 아직 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하여 선제 투자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유망기업에 대한 Online IR 을 실시하는 등의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투자자본 유치는 우리 정부의 K유니콘 30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국내 금융기관, 대기업, 개인 자본의 후속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창업·성장·회수” 벤처 생태계 선순환도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런 생태계 속에서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우수 인재들의 창업붐이 조성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경제위기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국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

특별세션.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코로나19 이후 경제·일자리 정책 방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1. 코로나19의 영향과 경험, 경제계의 당면 현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금융 복합위기로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유례 없는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IMF(2020.4.14.)는 글로벌 ‘대봉쇄(Great Lockdown)’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우려

※ IMF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2020.1월 → 2020.4월) : (World) 3.3% → -3.0%, (미국) 2.0% → -5.9%, (유로존) 1.3% → -7.5%, (일본) 0.7% → -5.2%

- 한국은행, OECD, ADB, 무디스 등 국내외 기관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연일 하향 조정, IMF는 -1.2%의 역성장을 예측

< 표 > 주요 기관의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한국은행	OECD	ADB	무디스	피치	S&P	IMF
경제 성장률 (발표시점)	2.3% (2019.11) ↓ 2.1% (2020.2)	2.3% (2019.11) ↓ 2.0% (2020.3)	2.3% (2019.12) ↓ 1.3% (2020.4)	1.4% (2020.3) ↓ 0.1% (2020.3)	0.8% (2020.3) ↓ △0.2% (2020.4)	1.1% (2020.3) ↓ △0.6% (2020.3)	2.2% (2020.2) ↓ △1.2% (2020.4)

- 코로나 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취업자 19만 5천명 감소, 3월 구직 급여 수급자 61만명 등 코로나發 실업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

※ (고용 둔화) 2020년 3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9만 5천명 감소 (통계청, 고용동향, 3월 사업체 종사자 22만 5천명 감소해 2009년 6월 이후 감소폭 최고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휴업휴직 급증) 올해 4월 10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수는 총 4만 7,893개

※ (실업급여 급증) 3월 실업급여 수급자 61만명, 실업급여 지급액 9,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 이에 경제계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 급감, 영업실적 악화에 대응해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적 충격이 동아시아에 집중됐고, 2008년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적으로 경제활동을 장기간 정지시켜 우리 실물경제 또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

※ IMF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은 0.8%였으며,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1.2%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가능성

- 이미 항공, 호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요 제조업도 해외 수요 절벽과 수출 감소, 유가 하락, 재고 적체 등 어려움이 지속, 2/4분기부터 피해가 본격화될 전망

※ 2020년 4월 수출은 369억 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美, EU 등 주요시장의 수입수요 급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산업부, 4월 수출입 동향, 2020.5.1.)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

#### < 표 > 최근 주요 업종의 경영상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항공) 코로나19, 해외입국제한 조치로 국제선 이용객이 작년보다 91.5%(3월) 급감, 관광업의 경우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 가중</li><li>○ (자동차) 해외 수출이 급감한 상태이며 해외공장도 아직 가동 중단 상태, 자동차 부품업체는 유동성 위기 상황</li><li>○ (철강) 자동차용 후판 수요 급감, 재고량 급증하여 어려움 가중</li><li>○ (섬유) 봄 상품 수출이 반등되어 있으며, 여름 상품은 아직 생산 준비조차 못하고 있음.</li><li>○ (정유) 유가의 급락과 제품가격 하락, 재고 누적으로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적자가 2조 5천억원을 넘을 전망</li><li>○ (조선) 기 수주물량으로 금년도 생산량은 큰 문제 없으나 선수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내년 물량 수주도 어려워 보임</li></ul> |
|---|

## 2. 향후 전망과 국가정책 과제 제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긴급지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고용,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현재 많은 기업들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인력 축소보다는 휴업·휴직, 경비 절감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일감이 사라지고 영업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
  - 앞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면 산업현장 전반에 사업재편, 인력축소, 폐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이를 둘러싼 노사관계 악화와 사회갈등도 우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대책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위축된 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국내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들도 마련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매출 부진과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확대
    -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4.29 산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시행 예정)을 비롯한 긴급지원자금의 조속한 투입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 및 흑자도산 방지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수준 상향 등
      - ※ 국가적 고용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도 적극 검토
    - 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 확대(ex 지정기준 완화, 準특별고용지원업종 신설), 고용유지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고용위기 대응체계'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특수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이들의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 일자리 예산 확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0.7.1. 시행 예정) : 2019.3월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6개월 지급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업훈련(Training) 예산은 GDP 대비 0.04%로 OECD 평균(0.13%)의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direct job creation) 예산은 0.21%로 OECD 평균(0.07%)의 3배에 육박

- 또한 ‘고용과 임금의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고용 유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분위기 조성도 필요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초대형 경제위기 때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 보유

-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실업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과 산업 평화,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

< 표 > 주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경제 위기	사회적 대화 의제 및 합의 사항
1997년 IMF 외환위기	<b>■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2.9) :</b> ▲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추진 ▲ 물가 안정 ·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 사회보장제도 확충 ▲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 ▲ 국민통합 건의 등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b>■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2009.2.23.) :</b> ▲ 노사민정의 일자리 나누기 협력 (노사 고충분담과 정부 지원) ▲ 민(民)의 적극적 역할 ▲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 합의 확산과 실천 노력 등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신산업(ex 미래차, 헬스케어) 규제 완화 등 미래 먹거리 기반 확충

※ (예시) 코로나19로 인해 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수요를 감안, 온라인 쇼핑 영업(매장물품 배송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0시~10시)과 의무휴업(월 2회) 규제 완화

- ※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의 경우 우리나라 기술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1년~1.8년 뒤쳐진 것으로 평가 (인공지능 기술격차 : 美 1.8년, 中 1.4년, 日 1.4년, EU 1년)<sup>1)</sup>
- ※ 대표적 고부가가치 업종인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시 ' 20년 생산유발효과 62.4조원, 취업유발효과 37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KERI, 2014)<sup>2)</sup>
-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2018년 기준 1.67점(OECD 34개국 중 5위)으로 OECD 평균(1.40)을 크게 상회하며, 특히 경영활동 개입(3위), 서비스네트워크 산업(2위), 무역투자(2위) 부문의 규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
-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위한 일터혁신 등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산업 환경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
- ※ 생산성과 괴리된 現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인상 속도 조절 등
- ※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에 대응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비한 추가적인 근로시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확대, 연구개발 분야 등 업종의 특수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 ※ 노·사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여 작업공정·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터혁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 플랫폼, 공유경제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통적 고용노동법제의 틀에서 벗어나 업종의 특성·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필요
- 이와 함께 제조업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고 OECD 상위권인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유턴 지원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도 시급
- ※ 이는 기업의 위축된 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국내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큼

/끝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역량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8.11.7

2)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한국경제연구원, 2014. 11. 11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코로나19 초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전이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금년 1~2월까지만 해도 80.0을 웃돌았던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5월에는 60.0으로 2014년 2월 전(全)산업에 대한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음

\*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최근5개월 변동추이

(‘20.1) 81.3 → (‘20.2) 81.2 → (‘20.3) 78.5 → (‘20.4) 60.6 → (‘20.5) 60.0

그리고 지난 4월22일에서 24일까지 3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관련 수출영향조사 결과에서도 4월 이후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8.7%로 나타났으며, 1/4분기 자금사정이 전년 동기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도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장에서 얘기하는 시급한 정책적 보완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첫째, 금융지원임. 지금 현장에서는 완제품 재고도 있고 원자재 재고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종업원 월급도 못주고 공과금 납부를 못하는 기업이 많음

특히 섬유업계는 주문 후 물량취소, 결제지연, 재고 증가에 따른 50% 납품가격 인하 요구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3차 협력사인 염색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기존 신용보증 한도와는 별도의 특례보증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두 번째는 수출지원임. 최근 수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메이저 바이어가 수입한 제품의 현지 판매부진으로 인해 제품의 반품 및 가격 50%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품에 불량이 발생했다는 트집도 잡고 있다고 함

또한 주문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 수출기업의 창고, 부산항, 현지 물류 창고 등에 재고로 쌓여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애로로 물류비가 급증하는 문제까지 겹쳐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출 및 대금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은행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함.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겠음

첫째,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국가와 공공부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감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생산과 공급, 실업대책과 기업의 줄도산 방지 등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지면서 큰 정부로의 회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생존이 가장 큰 화두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규모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가령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보편화 되면서 대기업은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을 것임. 이러한 경제주체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 대면서비스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되고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함

셋째, 국경이 닫히고 중장기적 수요부족에 따른 장기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협업체계의 위기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전세계인들에게 각인되면서 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 부문에 한국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미국, 일본, 유럽 등 타 국가보다 코로나 극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시장과 저임금 구조에 이끌려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코로나 이후 리쇼어링과 일시적인 소비폭증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혁신기술로 적극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52시간제 보완, 각종 규제완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리쇼어링이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함

넷째, 경제구조와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 온라인·비대면 경제활동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와 온라인 중심 소비형태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온라인 유통이 보편화 될 경우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상권들은 비즈니스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몰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매출구조가 열악해 비즈니스형태 변화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횡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코로나19가 당장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정영호 대한병원협회회장



## 1. 코로나19 대한병원협회 대응

### 가.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한 업무체계 정립

#### 1)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본부 구성·운영

- 병원협회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여 1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인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시작
- 또한 협회 내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는 업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상황실은 기획정책, 보험, 홍보, 신문 등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대응 업무를 진행

#### 2) 대외 업무체계 정립과 협조체계 구축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1.20)에 따라 모든 중요 정보와 진행 상황을 전국 모든 병원과 공유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게재하여 일선 병원의 환자진료와 내부 운영체계 수립에 참고토록 함
- 병원협회는 대응 초기단계에서 정부와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병원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상황과 전망에 따른 정부 정책을 즉각적으로 병원에 안내

#### 3)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계 의견 적극적 개진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추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적 대외 건의를 진행
  - 진단키트 신속보급, 대량 확보, 진단검사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요청

- (결과) 식약처 검사 시약 긴급사용 승인(2.4,2.12), 민간의료기관 검사 도입(2.7)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의료진 자율권 부여
- (결과) 코로나19 대응절차 개정(5판)을 통해 의사 판단에 의한 검사 확대(2.7)
- 중국인 간병인이 비자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국내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간병인 비자 만료기한 연장 요청
- (결과) 법무부에서 중국간병사 비자연장 관련 병원계 의견을 수용하여 별도 공지시까지 국내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함을 안내(2.3)
- 공공의료기관 등 단계적 치료병상 확보 필요
- (결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 → 민간의료기관 등 단계적 확대
- 의료기관의 각종 조사·평가·인증 등 한시적 유보
- (결과) 현지조사,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평가 인증 등 절차 잠정연기(2.4)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신고 유예 등
- (결과) 19년 4분기에 신고된 병원 인력·시설 현황을 20년 1분기에 그대로 적용 등 인력·시설 현황 신고 유예(2.1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기준 유예 및 확대
-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제공기관이 통합병동을 일시중단(일부·전체)하는 경우 신고서식 간소화, 병동 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 신고 유예,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이외 기관도 동일하게 30% 적용을 재건의
-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제공기관 지정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의 30%, 그 외 기관은 10% 범위 내 탄력적 인력운영 가능(2월~6월)
- 선별진료소 운영 민간 의료기관에 필요 물품 즉각 지원 요청



## 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및 대구·경북지역 치료병원 격려

### 1) 대구·경북지역 치료병원 현장 방문 및 격려

- 대구·경북 지역사회 감염으로 급격한 환자 증가에 따라 대구동산병원·대구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긴급자금 1억원(마스크 2만장 포함)의 기금을 전달, 대구시장과 면담 등을 진행

### 2) 대구·경북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건의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대구·경북지역 치료병원에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을 자발적으로 지원
- 대구·경북 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따라 중증확진환자 치료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전국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97개 기관에서 확진 환자 전원을 수용하여 환자 치료
-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효율적 병상 운용 진료체계 개편 검토를 제한하는 병원협회 입장문 발표  
- (결과)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지침'을 시행하여 확진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 4단계로 분류
-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체결(3.6)
-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병원협회 협력하에 국민안심병원을 공동 운영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감염방지용품 공급지원 및 가격 안정화 건의

- **(결과)** 전국 병원 대상 공적 마스크 신청 및 발송(주1회)(3.6~현재, 병원협회)

\* 전국 3,267개 병원에 수술용(덴탈)마스크 20,716,000장, 보건용마스크 26,171,090장 발송

### 3) 의료기관 피해 지원 건의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아픔과 고충을 함께하고 코로나19 사태 조속한 진정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환자진료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병원협회는 병원의 피해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용자사업 규모 확대)**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용자사업\*\* 규모 확대(목적 예비비, 3차 추경 반영 등) 필요, 용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 의료기관 손실보상 총7천억 규모, 개산금 우선집행(146개 기관, 1,020억원, 4.9)

\*\* 용자사업은 확보된 예산 4,000억원을 초과한 11,450억원(3,914개 병원) 신청,

의료기관별로 신청금액의 평균34.9%만 지급하여 개별 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안됨

- **(국민안심병원 별도 지원)** 현재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인건비(선별진료소 및 안심병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부재,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과 같이 별도 지원 필요

- **(선지급 대상에 메디칼론 이용병원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지급 특례 지원을 '20.3.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건보공단인 채권회수 문제로 메디칼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함

※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460개 중 1,330개 기관 메디칼론 이용(38.4%, 20.2월말)

- 코로나19 직접적 영향기관\*(353개) 중 메디칼론 이용병원(118개, 33.4%)

- \*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확진환자발생·치료기관 등(3.26 일기준)
- 지역거점 병원들이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해 대부분 메디칼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급 대상에 메디칼론 이용 병원 포함 필요**
- **건보공단의 채권회수 문제** 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메디칼론 사용 의료기관은 **별도담보 및 신용등급, 채권회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요양기관 급여 청구비용 조기지급(7일 이내)**
  - **(결과)** 건강보험 청구액의 90%에 대해 2월20일 청구분부터 적용중
  - \* 조기지급 현황: 3조721억원(89,402건), 지급완료(3.13 기준)
-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 유예)** 저금리 전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최장1년)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장기저리신용대출 및 특별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년 만기 연장, 신규보증은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

## 2. 코로나19 의료계 영향

### 가. 환자감소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

#### 1) 환자감소 및 손실 현황

-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이로 인해 외래 및 입원환자가 감소하여 전체 의료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았으며, 환자감소는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입원환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월(6.1%), 2월(1.8%), 3월(19.3%) 감소
- (외래환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월(6.2%), 2월(4.7%), 3월(19.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상급종합 15.6%, 종합병원 19.4%, 병원 30.5%(3월)
- ※ 전국 병원 146개 기관 대상, 입원 및 외래환자 변화 추세 파악(병협 자체 조사)

○ 환자감소로 인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달리 일반적인 국민의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타 업종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 (의료수입) 전년동기 대비 3월 평균(15.6%), 4월(18.6%) 감소  
\* (의료수입) 외래수입, 입원수입, 기타수입(검진, 수탁검사, 증명서발급 등)
- (의료비용) 전년 동기 대비 2월(6.1%), 3월(0.8%) 상승
- (인건비) 전년 동기 대비 2월(8.8%), 3월(7.0%), 4월(5.8%) 상승
- ※ 89개 병원(상급종합, 요양, 정신, 감염병전담병원 제외) 대상 경영 현황 조사(4.24~4.25)

○ 코로나19 환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방역 등으로의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병원의 대응 진료체계는 종식 혹은 일정시점까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이 필요

○ 금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기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계속되어 향후 예상할 수 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

### 3. 정책과제

- 아직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지속 및 국내 재유입 사례 증가, 국내 집단감염 위험성 배제의 어려움 등 불확실성 지속 가운데 국내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방향의 유지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체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함
-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병원의 의료제공 체계나 방식, 대응방안 등도 함께 조정·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1) 향후 감염병 총괄 대책 및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①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와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와 ‘일상적 환자 진료체계’가 가능한 듀얼 의료시스템 재정비 필요
- 신속한 감염병대응 인프라 구축·투입 등
  - 감염병주의경보 상향(조정) 등에 따른 신속한 정책판단과 그에 수반한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정확한 투입과 진료제공이 감염확산 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국 코로나19의 2차 확산은 물론,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및 진료의 수준 결정과 집행이 국가감염병대응수준을 가늠한다 할 것이므로, 90%의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전개방안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이전 단계까지는 민간기관(의료자원의 90%)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 있어, 평소 표준화된 선별진료에 대한 인력·장비 투입기준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은 우선 손해를 감수하며 인력(의사·간호사·행정)·장비(의료기기 등)·시설(컨테이너 박스·천막·소모품 등) 등을 자체 마련·구입 혹은 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별로 대응수준과 업무개시 시점 등이 달라져 국가전체적 측면에서의 방역·진료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감염병 비유행시기인 평소 의료기관의 종별·규모별 혹은 지역별로 감염병유행 시 인력·시설·장비 투입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부의 물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시 조달청을 통해 표준화된 대응물자를 즉시 지급\*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적 대응이 가능토록 검토될 필요가 있음
- \* 예컨대 의료기관 규모별로 컨테이너 박스○개, 보호복○개, 열화상카메라○대, 마스크·손소독제○개 등을 Package화하여 대응계획 수립, 상황발생 시 국가·지자체가 미리 조달청을 통한 구입 및 배부 등
- 이를 통하여 유행단계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는 물론, 추후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인력·장비 등) 기준마련과 적용상의 어려움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 다만, 기존에도 허용되었던 대리처방의 완화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인 전화상담·화상진료 형태 등으로의 전환 자체는 사회적·의료정

책적으로 불가피한 시류에 해당되겠으나, 그 대상·방법 및 수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적용이 이어질 필요

\* 예컨대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하되, 평소에도 감염취약계층 등 주치의 판단 또는 관련제도에서 규정한 환자군 등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군은 비대면진료 + 정기적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 아울러, 전화상담·처방은 환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의사 피로도 및 투입 시간은 반비례하여 매우 힘든 상황으로, 관련 수가의 책정과 적정 진료 시간 등 표준시스템 마련, 불필요한 녹음으로 인한 병원피해나 환자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 등 국외사례 등을 참고한 환자·의료기관 상호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임

\*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전화 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 : 환자 87% 만족, 의료진 85.8% 불만족

- (기간) 2.21~3.9, (대상) 환자 906명, 의료진 155명

## ○ 신종감염병 대비 자원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 필수 방역물품(전신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등) 의료기관 및 종사자 수 등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 비축량 계획 수립

\* 특히, 1회성 소모품이 많은 감염병 대응물품의 특성 및 Pandemic 상황에서 국외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필수물품의 국내 자체 생산라인 구축 및 필수원자재 확보방안 마련 필요(민간사업자 활용곤란 시 공적 비축분은 국가설비에서 생산 등)

## ○ 적극적인 환자추적과 격리를 위한 진단검사 필요

- 적극적인 환자추적과 격리로 병원 내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 입원·수술환자, 면역력이 약한 투석환자, 요양병원 등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 2)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감염병 대응은 음압병상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하여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한계 존재
  - 따라서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지역 공공의료 재정비 및 감염병전문 병원의 설립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역량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도 감염병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보건소 내 감염병전담팀 설치,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필요

## 3)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금번 코로나19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취약계층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사망자가 다수 발생,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요양·정신병원 등에 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 필요, 해당 기관에 맞는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권역 또는 지역별로 상급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감염관리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감염관리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정부의 감염관리 대책은 강화되고 있으나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 감염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 필요
- (감염내과 전문의 수) 2015년 204명에서 2019년 275명으로 4.8% 증가
  - \* '15년 15명, '16년 12명, '17년 21명, '18년 19명, '19년 19명 지원
- (감염전문간호사) 최근 10년 이내 해당 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으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과정 이수 후 전문간호사 시험 응시 가능, 현재 까지 총367명의 감염전문간호사 배출(2018년 기준)
  - \* 가톨릭대, 건양대, 울산대 대학원에서 35명 모집
- 의료기관 규모, 유형에 맞게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 차등적 인센티브 및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신종 감염병 발생시에만 한시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기보다 평시 감염관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지급 필요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나순자 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1. 코로나19의 영향 및 각계 경험과 당면 현안

- 오늘 정책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가였습니다. 빠른 검사와 철저한 추적, 투명한 공개로 대량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세계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정부의 역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빛나는 시민의식 이렇게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 저는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여 의료현장의 경험과 당면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많은 분들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영리병원이 없고, 전국민건강보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코로나19 대응 성공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가 잘 싸웠다는 인사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영리병원 저지투쟁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을 앞서서 해온 조직의 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확인되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를 최소해달라는 재판이나 각종 의료영리화법안과 조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등 당면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전담병원을 67개 확보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병원으로서 취약성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치료 전문의가 없었고, 격리병상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오던 공공병원들이 일반환자 전체를 소개하면서 공공의료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담병원 지정과 운영,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했는데,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과 매뉴얼부터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셋째,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방호복이 모자라 2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1명이 근무한다든지, 1명이 장시간 근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갖추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마스크 공급은 인원 기준을 제한하지 말고 환자수 전체는 물론이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간병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전체 인원수를 고려하여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넷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진행한 <덕분에 챌린지>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전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인력부족과 인력 수급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는 야간·교대근무제, 높은 이직률, 폭언·폭행과 갑질,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과 같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 손실 보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적자운영에 따른 임금체불 우려와 고용위기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감염병 방역체계와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도 없고, 의료기관의 동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이제는 감염병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손실보상은 국가와 의료기관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만큼 의료기관이 입은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간접손실, 확진환자 치료기간만이 아니라 정상화 기간까지 포함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2. 향후 전망과 국가정책과제 제안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대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토착화가 우려되며,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감염병 대응, 국가적 의료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1>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 감염병 사태를 국가적 의료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역량과 물자를 총동원할 수 있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1)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질병관리본부 신설
  - (2) 130명에 불과한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대
  - (3) 추경예산이나 긴급 자금 투입 대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4)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와 의료물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시스템 확보

## 〈2〉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 감염병 일상화·토착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감염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1)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최소 1천여명 이상의 중증도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상 확보를 목표로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6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감염병 치료, 연구개발, 교육훈련, 치료 매뉴얼 마련 등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 (2) 감염병 전담병원 확보

-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치료병상 확보
- 감염병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운영

### (3)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시스템 구축

-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과 지원체계 마련

## 〈3〉 공공의료 확충

○ 감염병 대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재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튼튼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필수요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1)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 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2018)과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이 발표되었지만 70개 중 15개 시범사업 진행하는 수준으로 속도도 더디고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 2~3년내에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설, 공공인수, 공공병원 전환 등 완료계획 수립 필요
- 이를 위해 2021년 예산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설·공공인수·기능보강 예산 대폭 확충

### (2) 공공병원 확충사업 속도감있게 추진

-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과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 대전시립병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 확충 우선 해결하고
-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공공인수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인수법 제정 등 후속조치

### (3) 공공의료 확충 재원 마련

-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한 <시민건강기금> 조성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 등의 조치

## 〈4〉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듯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전문역량 구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과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1)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 확충

- 감염내과 의사를 비롯한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 대폭 확충

※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의사수(3.4명)의 67.6%

※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간호인력(9.0명)의 76.6%

-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문제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PA(의사진료보조)간호사 문제 반드시 해결

(2)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 의사인력 확충, 양성, 교육, 훈련, 연구 지원, 수련환경과 근무환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3)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세부적인 인력기준 마련

- 보건교사, 산업체 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 임상경력 기준 마련

(4) 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 의료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극복하기 위해

-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수만큼 정원을 확보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제를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제로 개선, 의료기관 야간·교대 근무자 주32시간제 법제화

- 친인척·지인의 병문안 문화 개선 및 간병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5)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2019년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마련, 보건의료정책 수립, 보건의료인력 확충·교육 훈련·유지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5〉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대화

○ 위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1) 보건의료분야 노, 사, 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

(2) 감염병·의료재난 대응 노사정 합의와 공동선언 채택



**특별세션.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코로나19의 영향 및 각계 경험, 향후전망과 정책과제 제안**

**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 □ 코로나19의 영향

### ○ 코로나19와 국가적 측면

- ✓ 국가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병은 어느 시대나 인간에게 다가온다. 이를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과정에 있다.
-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모델은 전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정보공개와 글로벌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 위기에 대한 선례가 되고 있다.
- ✓ 국가의 방역체계와 공공적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바이러스 감염의 세계 경제 위기대처에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향후 의료공공성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 정부는 제1, 2차 추경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실업 위기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구호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코로나19와 민간영역 측면

- ✓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침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 ✓ 세계 경제의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일 수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2009년 국제금융위기 시 GDP -0.1% 감소와 비교하면 -3.0%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 ✓ 국내경제는 항공, 관광, 숙박, 도소매업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수출주도의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 ✓ 노동시장은 총고용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호 및 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 √ 사회문화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영향이 커져 온라인이나 가상의 공간에서의 커뮤니티와 회합방식이 증대되는 한편, 인문학적 요소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등 문화형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 코로나19의 의료현장

### ○ 국가적 대처와 국민

- √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는 전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와 철저하게 계획된 대처에 있고, 특히 국민의 위기대처에 대한 성숙한 자세가 주효했다.

- √ 대구, 경북의 지역적 확장은 가슴 아픈 현상이며,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의 부족은 코로나19나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위기 시에 국가적 대처의 철저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경각심을 보여주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의료종사자들의 지원과 헌신이 있었으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점이 오면 난망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 의료현장의 고충

- √ 코로나19의 감염의심자나 확진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치료하는 국민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현장의 의료종사자들이었다.
- √ 사드나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종사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번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불안에 떨면서도 방역과 환자치료에 전념한 의료노동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
- √ 이러한 국가 차원을 넘어 글로벌 확산이 되는 바이러스 재난사태에 대해 병원시설 자체의 공간적, 인력적 한계를 경험하였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나 방호 물품의 부족 등은 대규모 감염 확산의 우려로서 향후 커다란 과제로 제기되었다.
- √ 비대면 방식의 방역대처에 대해 원격의료 등 이윤추구적 의료정책이 제

기되는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보호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할 사안이며 찾아가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 □ 코로나19에 따른 정책과제

### ○ 정부 정책

- √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은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시에는 금융시장과 생산물시장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요하다(한국의 2019년 GDP 1,915조의 1%에도 못 미치는 추경. 미국 6.3% 등 대부분 국가는 2%를 넘고 있음)
- √ 코로나19 위기의 시기에 대규모 실업은 커다란 재앙이다. 노동시장의 고용유지정책과 보편적 사회안전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실업급여 일시적 확대, 전 노동자 실업 부조 임시조치 시행 등)

### ○ 의료정책

- √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확충, 이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확대, 전문병원과 민간병원의 유기적 대처 시스템의 정립, 감염 방호 물품과 마스크 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국가재난에 헌신한 의료종사자의 보상 기제에 대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후 전 국민적 차원의 생계가 막연한 환자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도 시행되어야 한다.



특별세션.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 발표문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코로나 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로,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극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100일을 넘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지난 4월까지 기준으로 평소보다 97%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4월 조사 결과,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 24%가 폐업 상태 일 것, 48.5%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을 것’ 이라고 응답하는 등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방역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모범 방역으로 자리잡으며 조금씩 경기가 회복 추세입니다만, 인건비, 임대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도 내기 힘들 정도로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정상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및 간접세 감면, 5인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 소상공인 재난수당 등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직접 지원이 여타 지자체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대폭적인 세제 감면 조치 또한 신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국가경제 회복도 요원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유통업에서 수십만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펀셋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다양한 지원과 활로를 제시해줄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션 I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

안 성 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2020년 5월 7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목차

- I . 코로나19의 전개
- II . 경제환경의 변화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코로나19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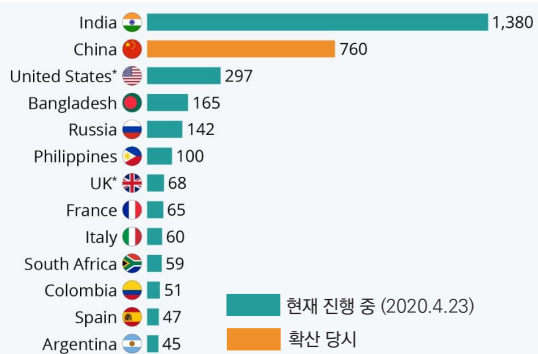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코로나19의 전개

## 공급충격: 노동공급제한

#### Lockdown: 이동제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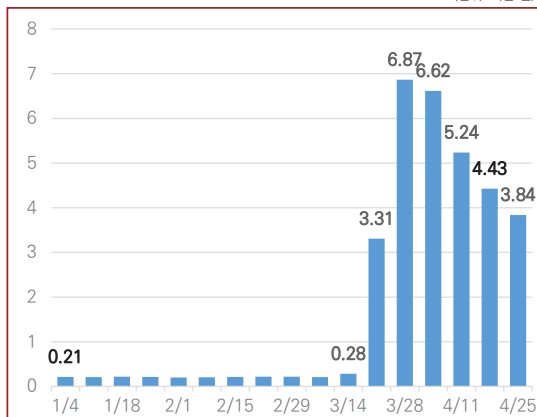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tatista.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단위: 백만 건)



자료: F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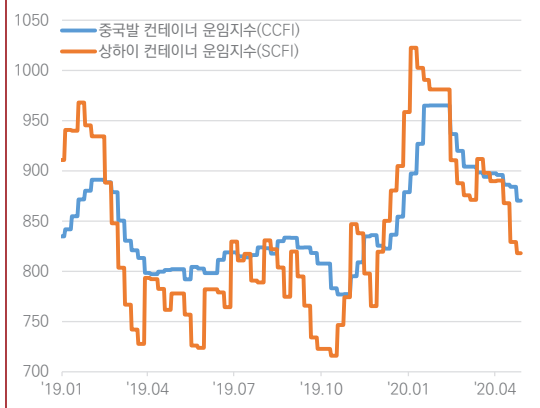
## 1. 코로나19의 전개

# 공급충격: 공급망 교란



### 컨테이너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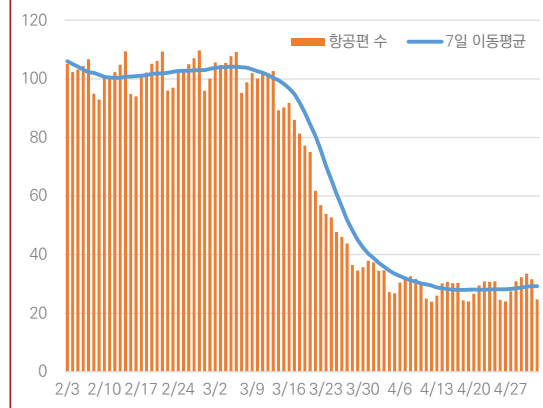
(단위: 인덱스)



주: CCI: 1998.1.1=1000; SCFI: 2009.10.16=1000.  
자료: Datastream.

### 전세계 상업용 항공편

(단위: 천 편/일)



자료: Flightradar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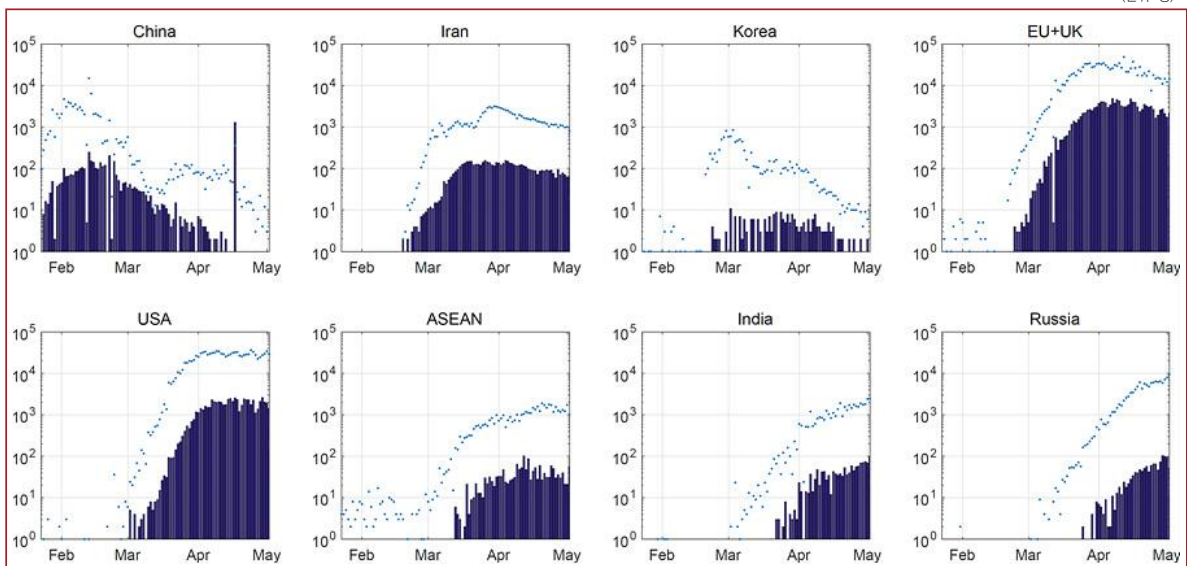
5

## 1. 코로나19의 전개

# 공급충격: 지역별 시차



(단위: 명)



주: 일일 확진자(점선)와 사망자(막대).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저자 계산.

6

## 수요충격: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금융부문 불안정

- 금융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는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80.86, '08.11.20)를 경신
- 미국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비롯한 금융안정조치 시행

V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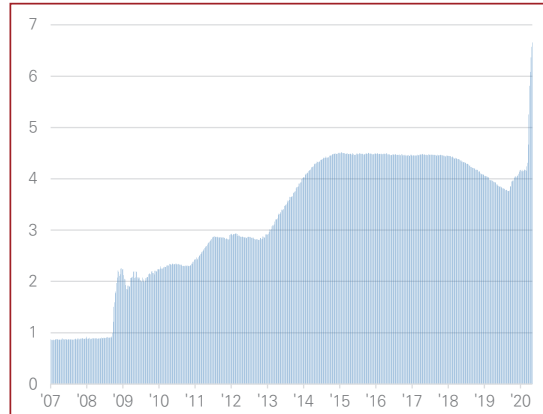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Datastream.

미국 연준의 총자산

(단위: 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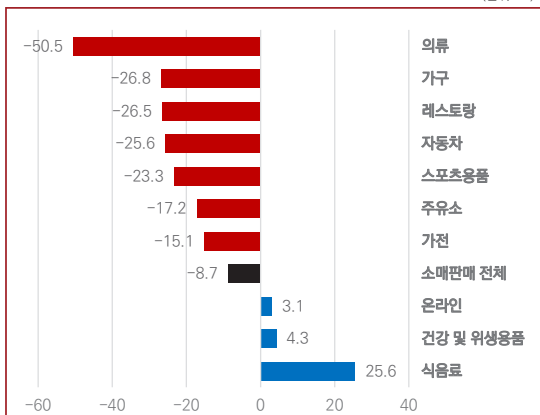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7

## 수요충격: 산업별 격차

미국 3월 부문별 소매판매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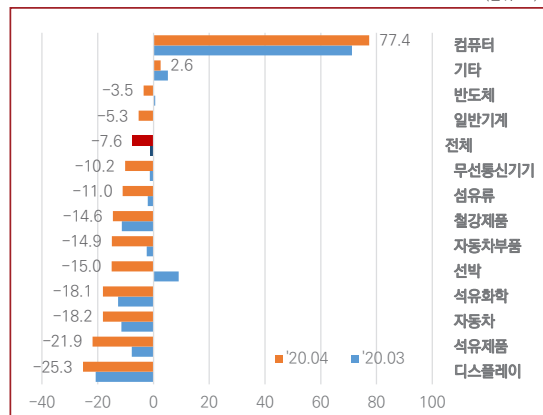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월 대비 변화율.  
자료: US Census Bureau.

한국 품목별 월 누적 수출 증감률

(단위: %)



주: 누적,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8



## 유가충격: 수요감소와 감산합의 이행

### WTI 선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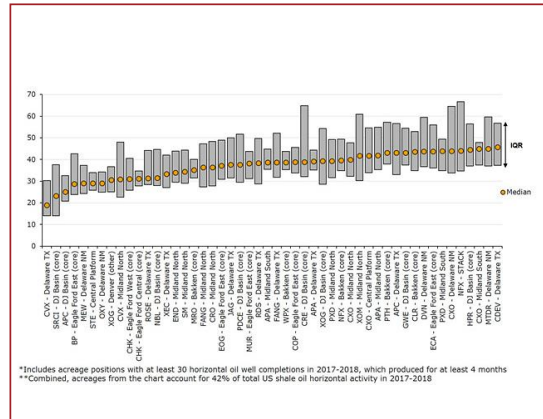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자료: Datastream.

### 미국 셰일기업 손익분기기 유가

(단위: 달러/배럴)



\*Includes acreage positions with at least 30 horizontal oil well completions in 2017-2018, which produced for at least 4 months  
\*\*Combined, acreages from the chart account for 42% of total US shale oil horizontal activity in 201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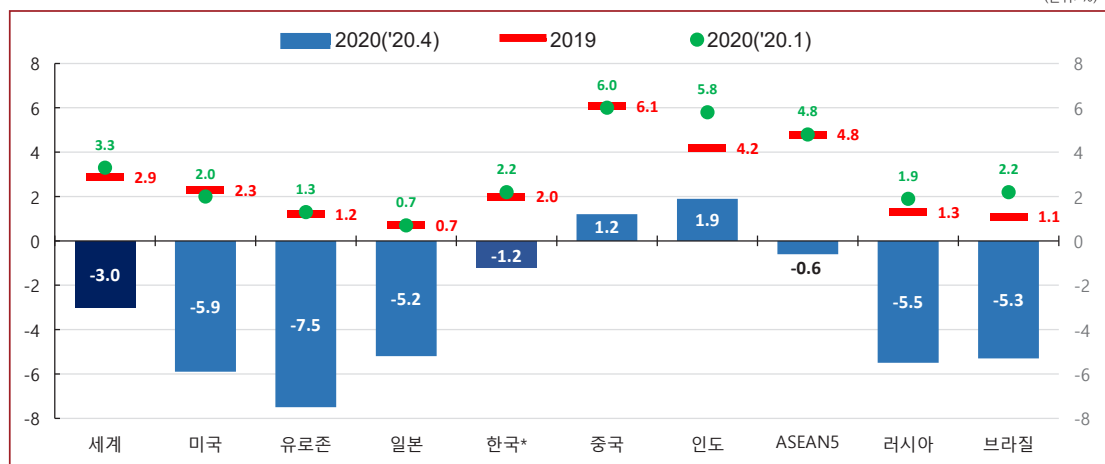
주: 2017~18년 WTI 기준.

자료: Rystad Energy.

## IMF 세계경제 전망

###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주: 1) PPP환율 기준.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3)한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19.10월 발표 수치('20.1월 미발표).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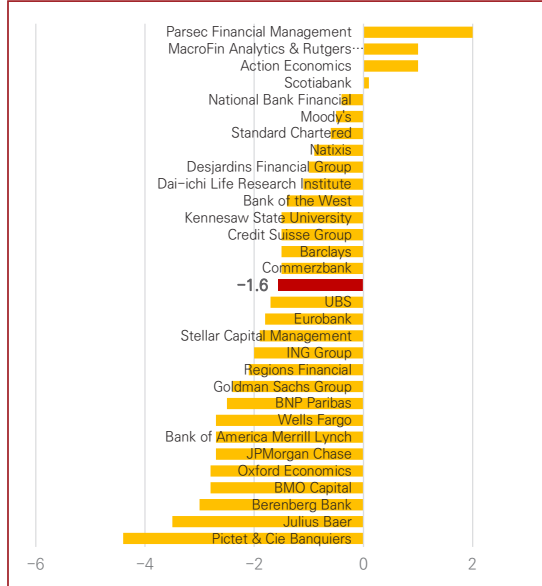
## 1. 코로나19의 전개

# 주요기관 전망치



### 세계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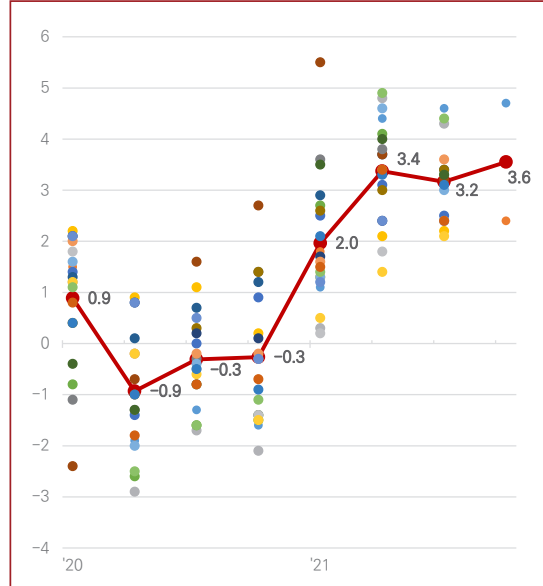
(단위: %)



주: 4월 보고 기관.  
자료: Bloomberg.

### 한국 분기 성장률

(단위: %)



주: 4월 보고 20개 기관. 전년동기대비.  
자료: Bloomberg.

11

## II . 경제환경의 변화



## 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

###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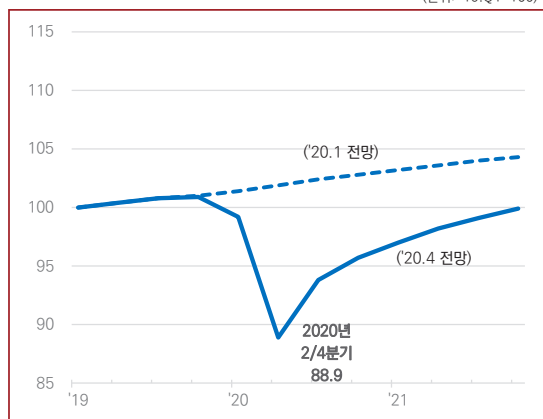
자료: IMF.

13

## 성장경로의 회복?

### 선진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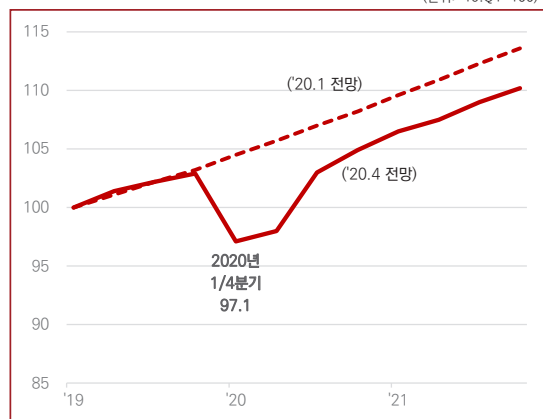
(단위: '19.Q1=10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신흥국 전망

(단위: '19.Q1=10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 스트롱맨 시대의 지속?



그림: James Ferguson



미국  
Trump



중국  
Xi



일본  
Abe



러시아  
Putin



인도  
Modi



필리핀  
Duterte



터키  
Erdoğ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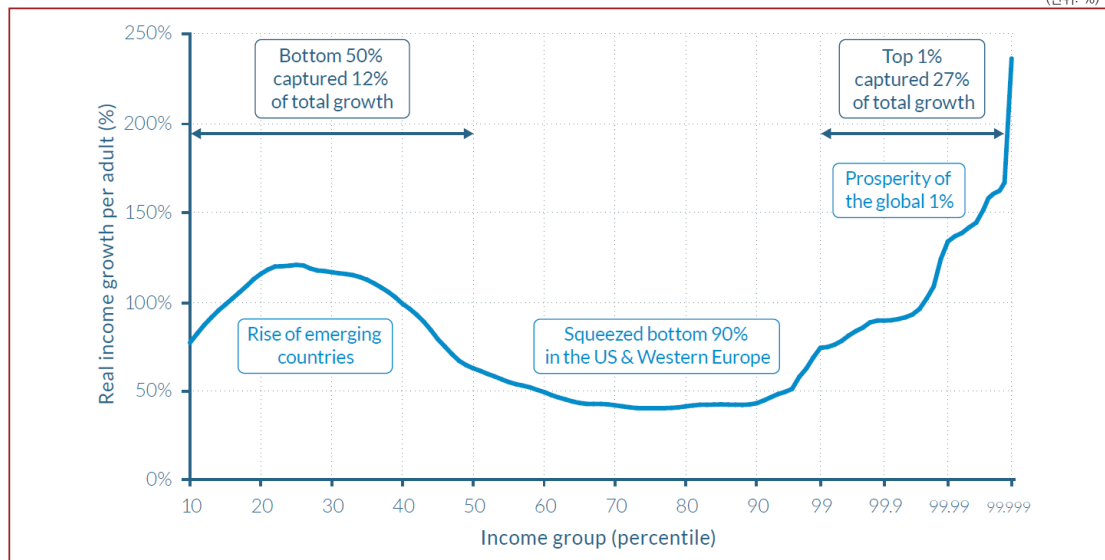
헝가리  
Orbán

15

## 보호무역주의와 불평등

### “코끼리 곡선”

(단위: %)



자료: World Income Inequality Report 2018.

16

## 2. 경제환경의 변화

# 미·중 통상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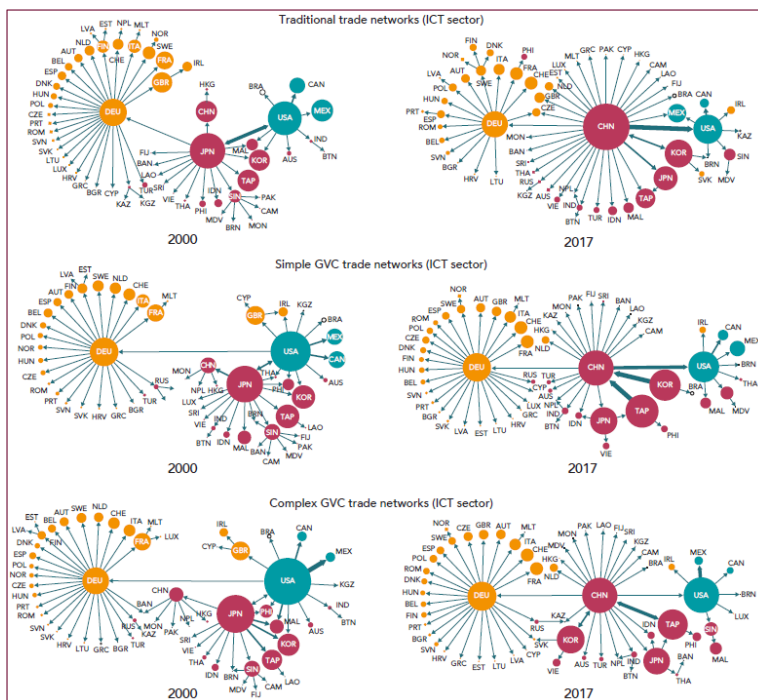


	무역마찰 (16년 하반기 가-)	무역분쟁 (18년 7월~18년 11월)			협상 및 휴전 (18년 12월 ~19년 4월)	협상 결렬 (19년 5월 ~6월)	휴전 (18년 7월)	확전 (18년 8월~)	1단계 합의
		1차 리스트	2차 리스트	3차 리스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예고 45% 관세 부과 예고 첨단산업 규제·제재	2018.7.6 중요제조기술 관련 제품 818개 품목 (340억 달러)  25% 관세	2018.8.23 중국 IT산업 279개 품목 (160억 달러)  25% 관세	2018.9.24 중국 중간재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10% 관세	2018.12.1.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양국의 90일 이내 협상 완료 노력 합의  2019.1.1 예정된 3차 리스트 관세를 인상 계획 연기	2019.5.10  3차 리스트 관세를 인상 10%→25%  추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19.5.15 화웨이 거래 제한	2019.6.29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협상 재개  추가관세 부과 유예  화웨이 판매 허용	2019.8.1 발표 소비재 포함 3,805개 품목 (3,000억 달러)  10% 관세 부과 2019.9.1/12.15  2019.8.5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2019.8.23 발표 4차 리스트 관세를 15%로 인상  1~3차 리스트 관세를 인상 25%→30% 2019.10.1	2019.10.11 발표  2019.10.15 예정된 1~3차 리스트 25%→30% 관세를 인상 계획 연기  2019.12.13 발표  2019.12.15 예정된 1,6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무기한 연기  2019.9.1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의 대환 관세를 인하 15%→7.5%  2020.1.14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해제
		보통무역주의 경고 중국의 정책수단 강조  보복관세 부과 예고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25% 관세	미국 에너지 산업 333개 품목 (160억 달러)  25% 관세	미국 수입제품 5,207개 품목 (600억 달러)  5~10% 관세	미국으로부터 콩, LNG, 원유 등의 수 입을 재개  IT 시장 개방 고려  펜타닐 규제 강화	2019.6.1  3차 리스트 관세를 인상 5~25%	콩 54.5만 톤 즉각 구매  2019.8.23 발표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5~10% 관세 2019.9.1/12.15	미 농산물 구입 약속 (400~500억 달러)  2019.12.15 발표 예정의 4차 추가관세 보류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추가관세 중단

17

## 2. 경제환경의 변화

# GVC 재편: 다핵화



자료: WTO(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 무역에서의 공급 중심지

- [전통적 무역] 자국 생산요소만으로 만든 최종소비재의 수출
- [단순 GVC] 대상국의 최종소비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
- [복합 GVC] 3국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출

### ICT부문의 예

- 각 대륙의 지역별 허브
-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 일본의 대규모 중국 FDI로 ICT산업 공동화 진행
- 2차 허브로서 한국과 대만의 역할 확대

18

#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19

# 일의 미래

△ 현재의 일 대안

△ 미래의 일 대안

**일꾼**

**2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인제 플랫폼과 근로 계약을 통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규직부터, 관리 서비스, 자유계약직, 기(gig) 노동자, 대중으로까지 이어지는 인력자원의 연속체를 활용 할 수 있는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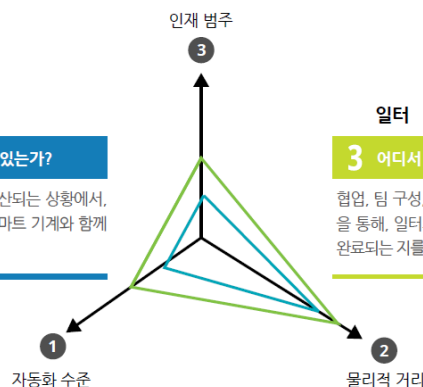
**1 어떤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

로봇, 인지 기술, AI 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계에 의해-그리고 스마트 기계와 함께 어떤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

**일터**

**3 어디서 일이 이뤄지는가?**

협업, 팀 구성, 디지털 현실 기술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일터와 업무 관행은 일이 언제 어디서 완료되는 지를 어떻게 재형성하고 있는가?



자료: Deloi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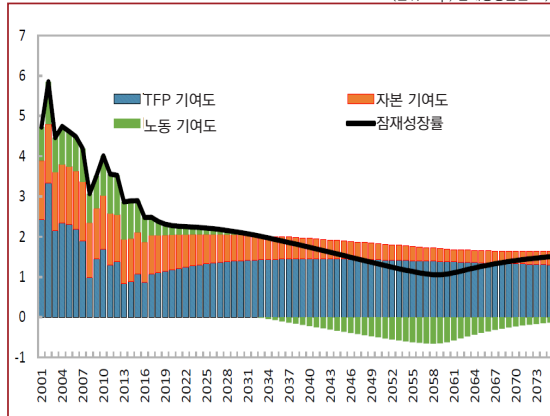
20

##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 인구구조의 변화로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가 하락
- 경제활동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으며, 총인구도 2028년 이후 감소할 전망
  - 노인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65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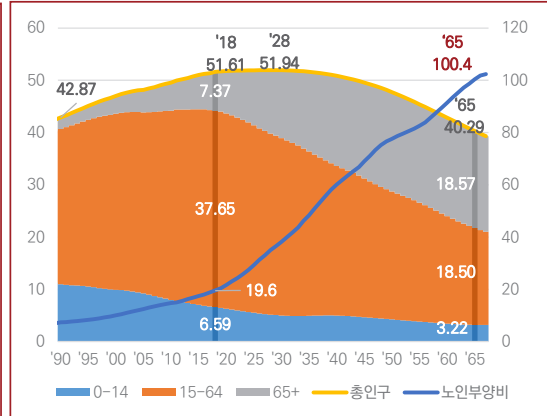
(단위: %p, 잠재성장률은 %)



자료: IMF(2018).

세대별 인구 및 노인부양비

(단위: 백만 명, %)



주: 노인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의 인구로 나눈 비율  
자료: 통계청.

21

기후변화 언택트서비스 재택근무  
환경 일의미래 고령화  
보호무역주의  
무역분쟁 에너지산업  
성장경로 GVC재편  
디지털경제 경제안전판 스트롱맨  
야생 바이오헬스  
재교 통화정책정상화

22

# 감사합니다



세션 I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May 7, 2020

구 자 현

Korea's Leading Think Tank



### C O N T E N T S

- A.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국경제
- B.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C.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과 성과
- D.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 과제

## Part-A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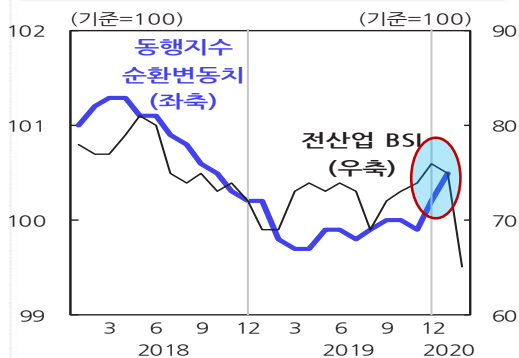
### 코로나 19 이전 경기회복 국면

KDI

#### > 코로나 19 이전 생산, 소비, 수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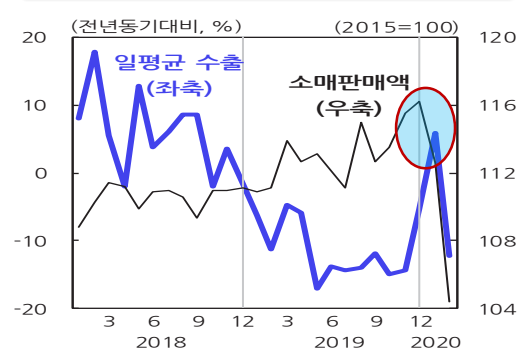
- 광공업 생산 부진 완화 및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상승하는 등 경기 부진 완화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전산업 BSI



주: 소매판매액은 계절조정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일평균 수출 증가율과 소매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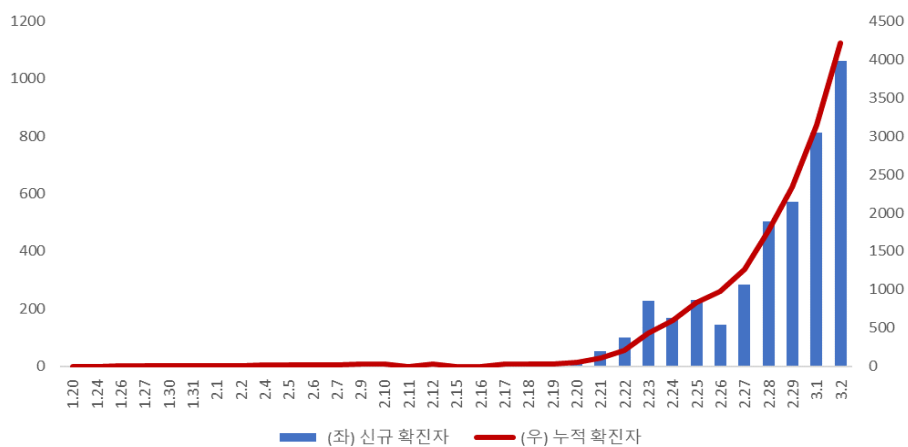
## Part-B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코로나 확산 급증

KDI

#### > 2월 21일 이후 코로나 확산 급증

##### 코로나 확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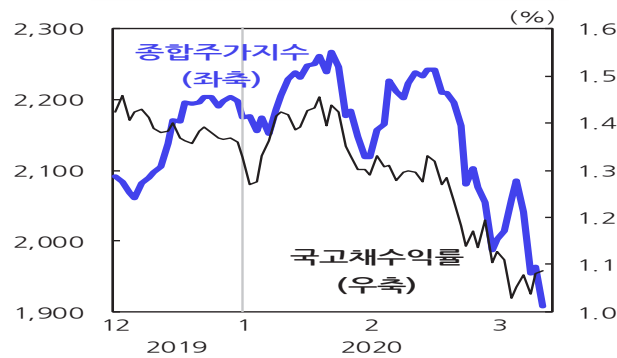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 데이터 조회 기준

## > 주가 및 금리 금락

- 3월 12일 기준 종합주가지수와 국고채(3년물) 금리 : 1월 22일 대비 각각 19.1%, 38bp 하락한 1,834.3 및 1.06% 기록
-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2월 24일~3월 12일) 외국인 투자자 국내주식 9.6조원 순매도

### 종합주가지수 및 국고채수익률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3

## > 외환 시장 불안 및 불확실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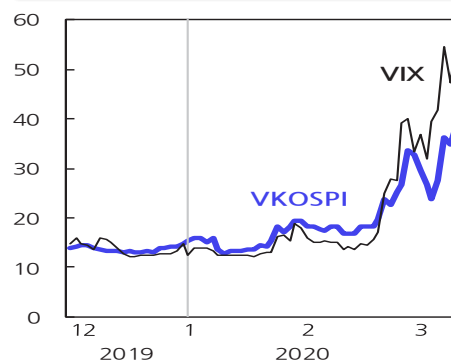
- 환율 : 2.24일 1,220.2원으로 1.2일 이후 최고치 기록
- 대내외 변동성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기 불확실성 증대

### 원/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 국내 및 대외 변동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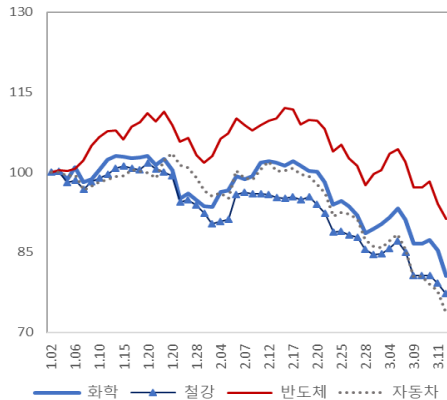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 옵션거래소

4

## > 주식시장 주력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 충격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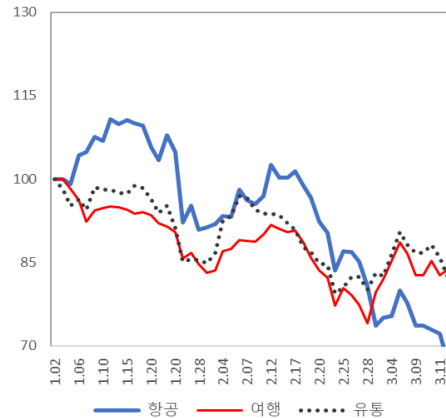
-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지수 하락(GVC 충격 등)
- 항공, 여행, 유통 등 주요 서비스업 지수 급락

주력 제조업 주가 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주요 대면형 서비스업 주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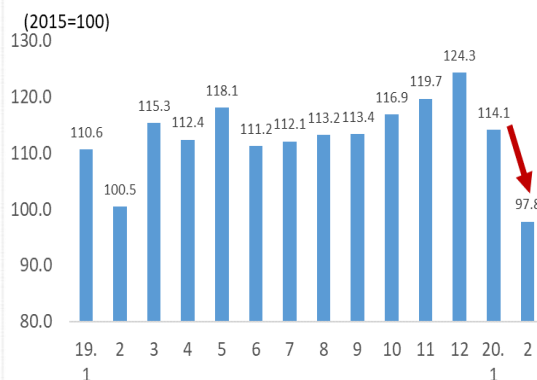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5

## >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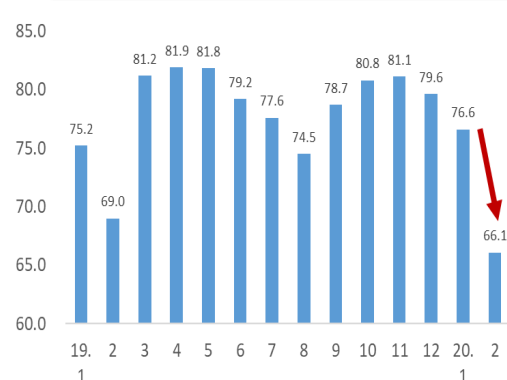
- 소매판매 큰 폭 하락
- 중소기업 경기 매우 부정적 전망

소매판매액 지수<sup>1)</sup>



주: 1) 음식점 포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sup>1)</sup>



주: 1) 실적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6

## Part-C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과 성과

###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 >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제활력 대책 중심 정책 대응

##### 경제활력대책 현황 및 주요 내용

일시	구분	주요 논의
2.5(수)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li> <li>■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li> <li>■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li> </ul>
2.7(금)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b>중소기업·소상공인</b> 금융지원 방안</li> <li>■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li> </ul>
2.12(수)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b>중소기업·소상공인</b> 지원방안(1)</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li> </ul>
2.19(수)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li> <li>■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방안 등</li> </ul>

자료: 정부 보도 자료 참고 저자 작성



##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 비대면 : 내수 위축,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 비상 경제 체제로 전환 : 국민경제 차원 전면적으로 대응

### 비상경제회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일시	구분	주요 논의
3.05(목)	관계부처 합동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3.19(목)	대통령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24(화)	대통령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3.30(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4.08(수)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안방안 ■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
4.22(수)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4.29(수)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 방안(1)」 ■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방향 등

자료: 정부 보도 자료 참고 저자 작성

8

##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 위기 업종 및 고용유지 대책 마련

### 위기관리대책 회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일시	구분	주요 논의
3.18(수)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3.25(수)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긴급금융지원)
4.1(수)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관광, 영화, 통신·방송)
4.9(수)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4.23(목)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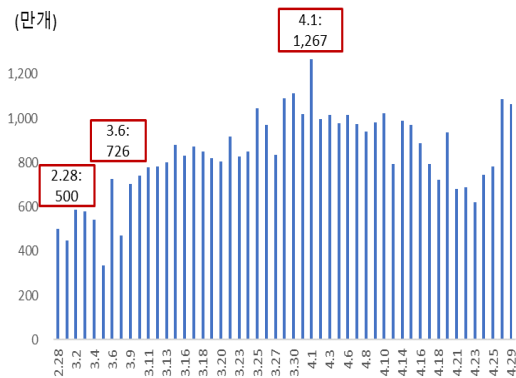
자료: 정부 보도 자료 참고 저자 작성

9

## > 국민의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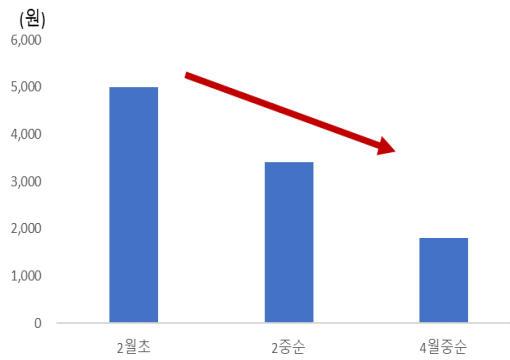
- 마이크 수급 및 가격 안정 :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통제와 함께 정부 신뢰도 제고

### 공적 마스크 공급 현황<sup>1)</sup>



주: 1) 일요일 및 휴일 공급량 제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가격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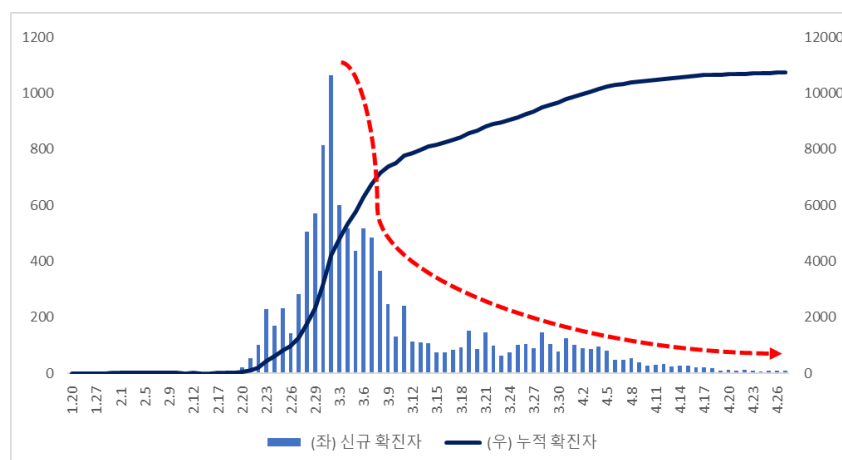
주: 1) 온라인 판매 기준  
자료: 통계청

10

## [참고1] 코로나19 확산 현황(1/2)

❖ 신규 확진자 : 3.12일 1,062명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

###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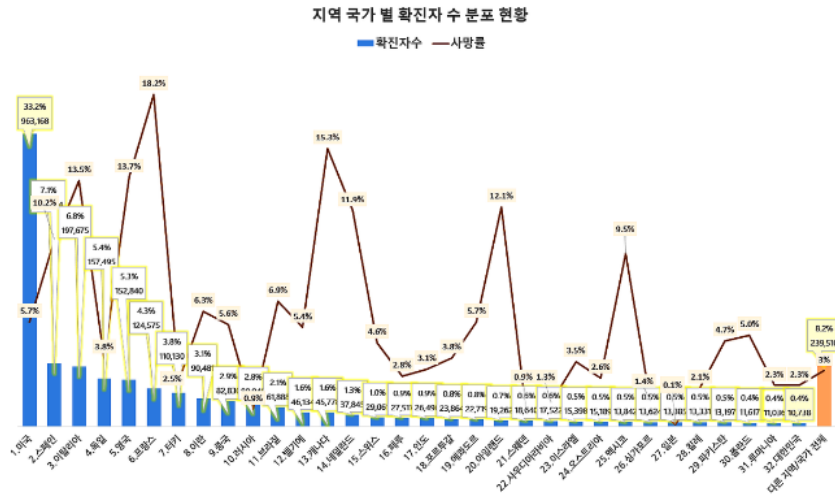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

## [참고1] 코로나19 확산 현황(2/2)

❖ 누적 확진자 : 전세계 대비 비중 0.4%, 사망률: 약 2%

###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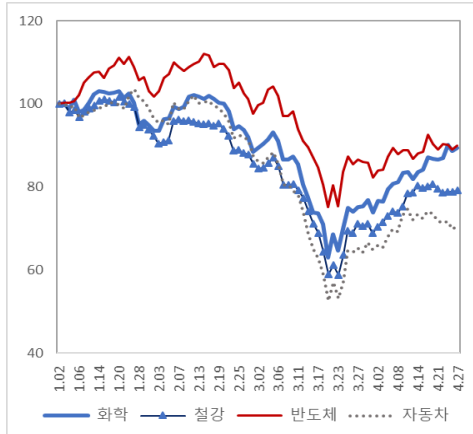
12

##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 > 금융시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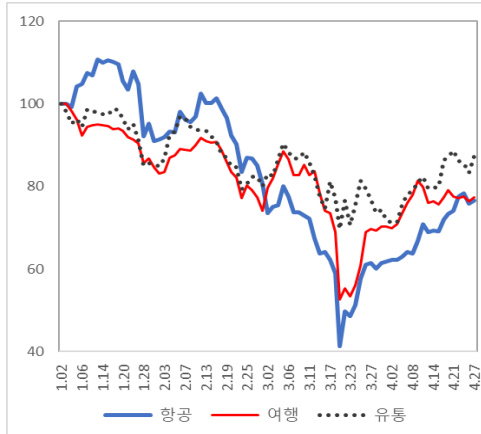
- 주요 제조업, 서비스업의 주가 반등

#### 주요 제조업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주요 서비스업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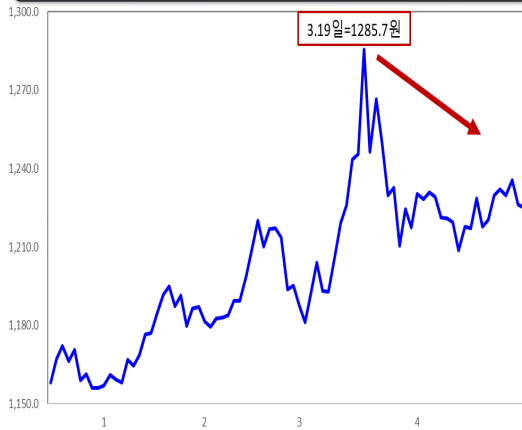
13

#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성과

## > 외환시장 안정

- 한미 통화스왑(3.19일, 600억달러) 및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환율 하향 안정

###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선물환한도 포지션 조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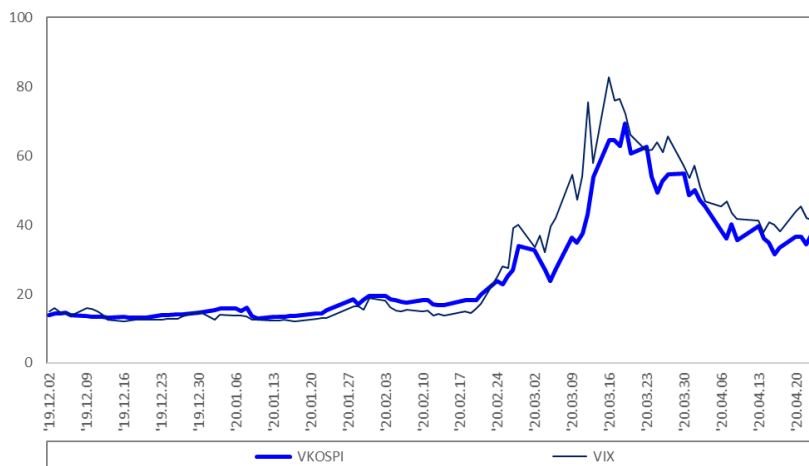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참고2] 국내 및 대외 변동성 지수 추이

### ❖ 3.19일 이후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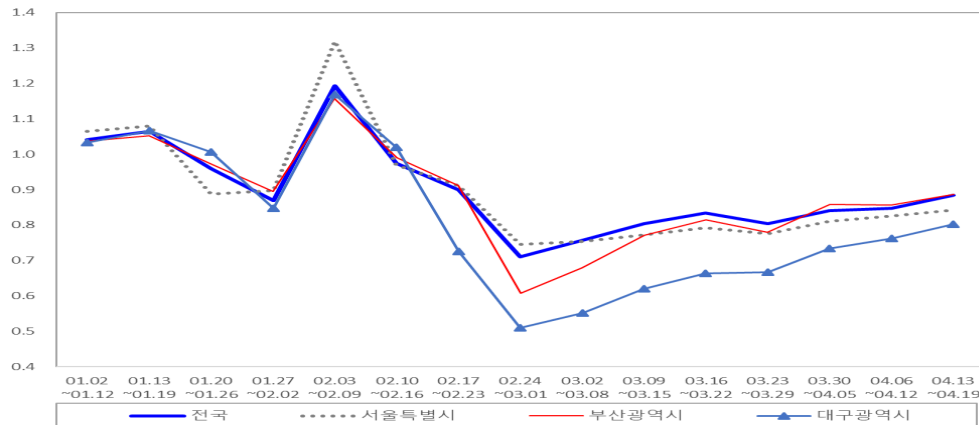
### VKOSPI 및 VIX 지수 추이



## > 소상공인 매출 반등

- 2.24~3.1일중 최저를 기록한 후 반등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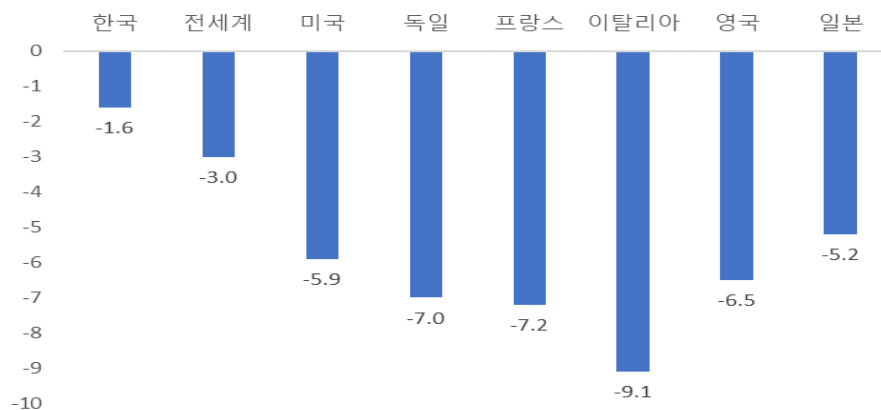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캐시노트 앱 데이터

16

## > IMF :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의 부의 성장 전망

- 금년중 한국 경제성장률 -1.6%전망,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큰 폭의 역성장 전망

주요국 경제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17

## Part-D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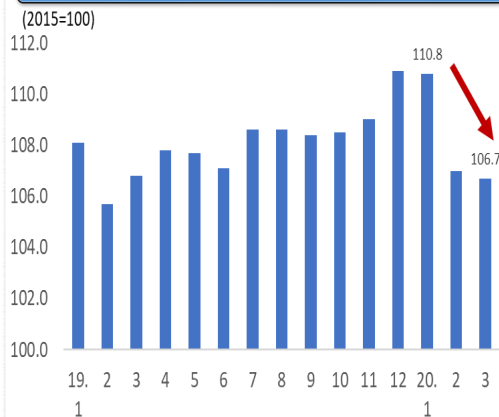
### 경제 충격에 효과적 대응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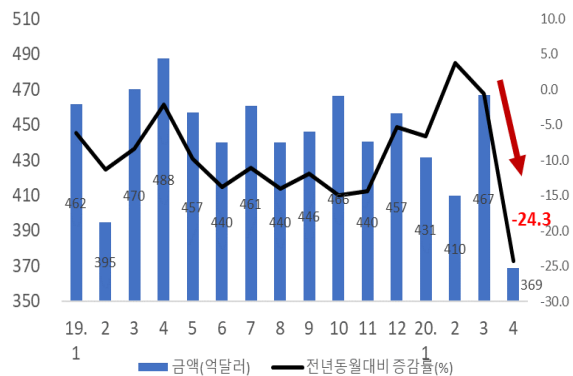
#### > 긴급성 위기탈출(심화방지) 대응 => 구조적 경제회복 · 복구 대응 전환

- 주요 교역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충격 가시화

#### 전산업생산추이<sup>1)</sup>



#### 수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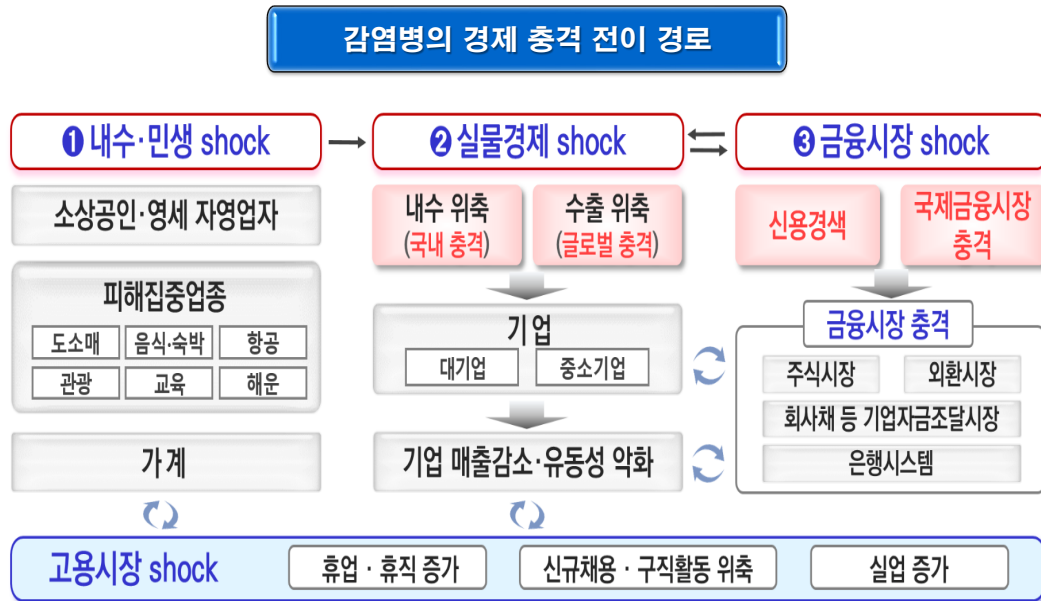


주: 1) 계절조정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3] 코로나19 → 경제 충격 전이 경로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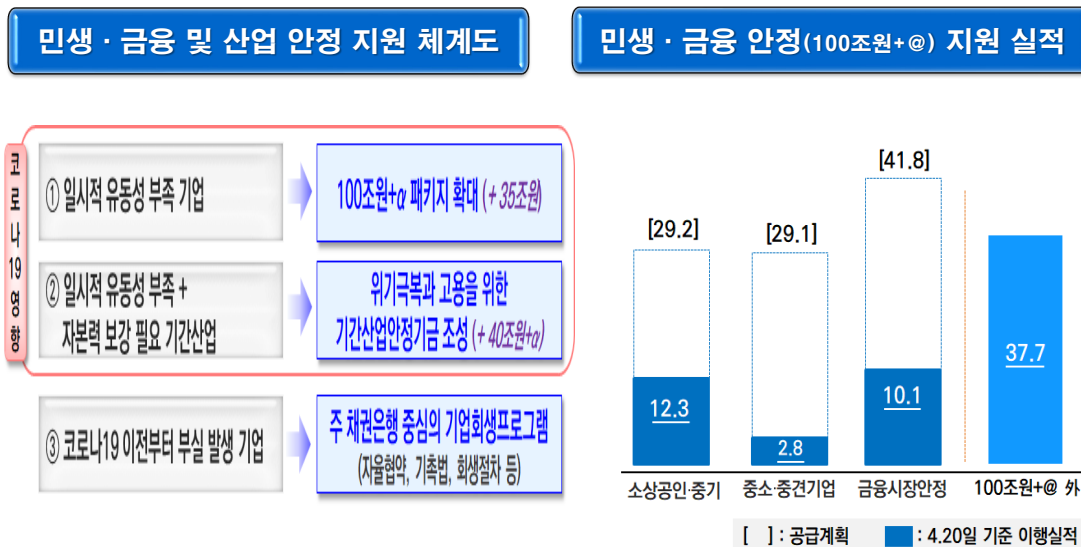


자료: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4.22)

19

# [참고4] 민생·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1/2)

KDI



자료: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4.22)

20

## [참고4] 민생·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2/2)



### 민생·금융(135조원+@) 및 산업 안정 패키지 주요 내용

구분	금액	주요내용
소상공인 중소·중견 기업 지원 (58.3조원)	29.2 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2.4조원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li> <li>■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5.5조원</li> <li>■ 중간급자금 전액보증</li> <li>■ 신용회복 지원 3.0조원</li> <li>■ 코로나 피해 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2.0조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5조원)</li> </ul>
	29.1 조원	<b>&lt;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공급 확대 21.2조원</li> <li>■ 보증공급 확대 7.9조원</li> </ul>
회사채·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지원 (31.1조원)	20.0 조원	■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4.1 조원	■ 원활한 회사채 발행 위한 정책금융 지원
	7.0 조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2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10.7 조원	■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기간산업 안정	40 조원	■ 기간산업안정자금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자료: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4.22)

21

## [참고5]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1/2) KDI

### 미국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방식	▶대출·보증,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지원조건	▶고용유지 의무 <sup>①</sup> , 고액연봉 제한 <sup>②</sup> ,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 <sup>③</sup> ,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sup>④</sup>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③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④ 자금지원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상환일+1년까지) 제한		
세부 프로그램	구분	지원 대상	지원방식
	① 기업·시장 유동성지원 (5,000억불)	▶여객·화물 항공운송업, 안보관련업 등(460억불)	▶대출·보증 등 제공
		▶실물기업 전반 (4,540억불)	▶Fed 프로그램* 지원 (SPV 출자 등) → 대출·채권매입 등 실시 * CPFF, MSLP 등
	② 항공업 급여지급 재정지원(320억불)	▶여객·화물 항공운송업 등	▶급여지급 재원 보조
	③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탄감가능대출 ▶긴급운영자금 대출

자료: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4.22)

22



## [참고5]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2/2) **KDI**

###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및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내 용
<b>[1] 경제안정화기금(WSF, €6천억)</b>	
지원대상	▶ 자산·매출액 €4300만~€5000만 이상,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 *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 기업채무 보증(€4천억), 자본확충(€1천억), 대출 지원(€1천억) 등
지원조건	▶ 보수제한, 배당제한,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b>[2] 긴급지원프로그램(Immediate Assistance Program, €500억)</b>	
주요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자료: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4.22)

23

##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

**KDI**

### ▶ 디지털 드라이브 : 한국판 뉴딜

####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 소비(B2C) 문화: 온라인화 확산

- 온라인 쇼핑(택배문화 발달)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증가: 온라인 게임, 영화와 라이브 공연의 온라인 스트리밍
- 온라인 건강 서비스 급증: 디지털 Health care system 구축, 원격진료 수요 증가
- 온라인 교육: 정규 교육기관<sup>\*)</sup>의 이러닝 도입률 88.4% (2018년 전국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문화: 스마트워크 가속화 (원격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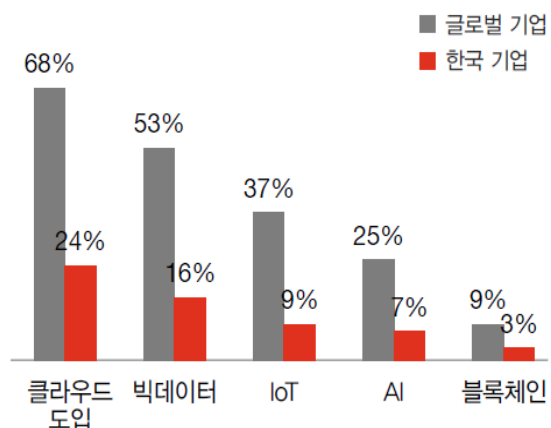
- 협업 한계 vs. 생산성·효율성 향상
- ERP, 그룹웨어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큰 폭 증가



##### Smart factory 확대

- 무인화
- 자동화

#### IT 혁신기술 도입 수준



자료: 삼일 이슈 리포트 2020.4

자료: KRG, 2020.1, 삼일 이슈 리포트 2020.4 재인용

24

##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대응

### > 디지털 드라이브 : Technology + Contact(경험)

#### 디지털 경제 시대 유망 기업 사례 (상:해외, 하: 국내)

기업	특징
Zoom	■ 비디오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업체
시트릭스	■ 데스크톱 가상화 SW 업체
체크	■ 미국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
텔라닥 헬스	■ 세계 최대 원격진료 전문 기업
M3	■ 의료 데이터 플랫폼 업체
분야	기업 및 서비스
원격근무	■ 이스트소프트(팀업), NHN(두레이), 토스랩(잔디)
금융보안	■ 센스톤(비대면 거래 인증기술, 영국진출)
원격의료	■ 메디히어(원격 화상진료 앱)
데이터	■ 한국신용데이터(소상공인 매출장부 앱, 캐시노트)
정책플랫폼	■ 코딕(AI 기반 정책 입법 정보제공)
에듀테크	■ 아이스크림에듀(원격교육)

#### 가상현실(VR) 영상 콘텐츠 사례



자료: NH투자증권(해외), 언론기사 참고 저자 작성(국내)

자료: 국립국악원, 경향신문 3.29 재인용

25

## 브랜드 코리아: K-Premium

### > 신한류 : K-드라마 · K-팝 → K-Policy → Brand Korea

#### 대장금



#### BTS



#### Best Practice : Policies on Covid-19



자료: <https://www.amazon.co.uk>

자료: <https://www.youtube.com>

자료: <https://www.brookings.edu>, 4.13

26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KDI

# 감사합니다





## 세션 I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 코로나 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임운택

## 0 목차

1.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2. 정부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3.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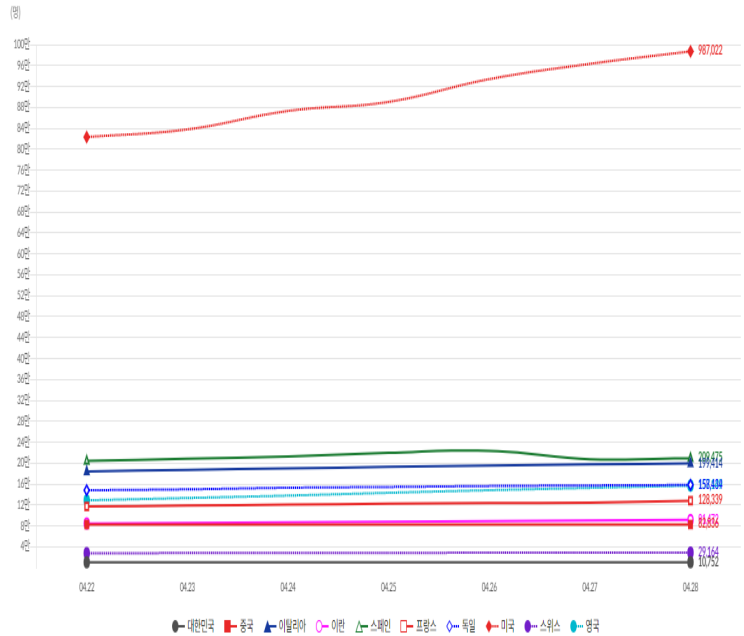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  
(Pandemic)

자료: Johns Hopkins Univ.

주요 발생 국가 주간 동향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병방역의 모범 국가에서 **사회방역**의 모범국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

- 투명성, 결단, 신뢰, 시민연대



주요 국가 검진건수 및 확진률 비교 (04.28. 0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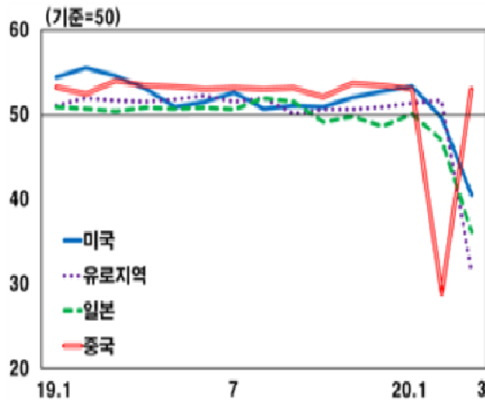
국가	검사건수	확진자	건수대비 확진률
중국	N/A	82,836명	N/A
한국	599,311건	10,738명	1.8 %
이탈리아	1,237,317건	199,414명	16.1 %
이란	N/A	91,472명	N/A
일본	160,546건	13,576명	8.5 %
미국	N/A	988,469명	N/A
영국	569,768건	157,149명	27.6 %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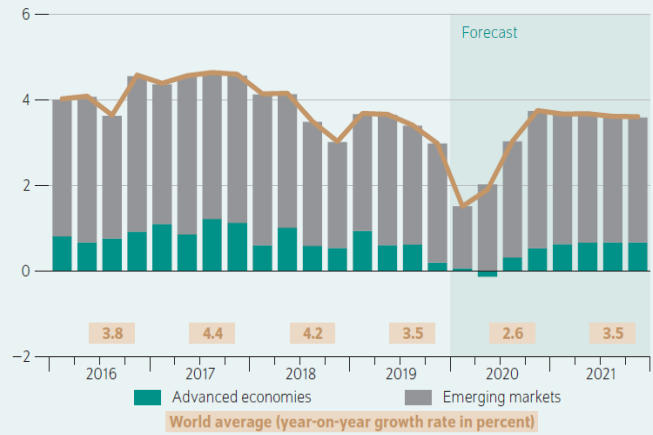
주요국 PMI)



- 2020년 상반기 급격한 경기수축 전망
- 아직까지는 대체로 V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존재 (가변적)

Figure

World real GDP growth  
Quarter-on-quarter, in perc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will lead to significant economic dislocations, especially in 2020.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코로나-19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 소비자 물가,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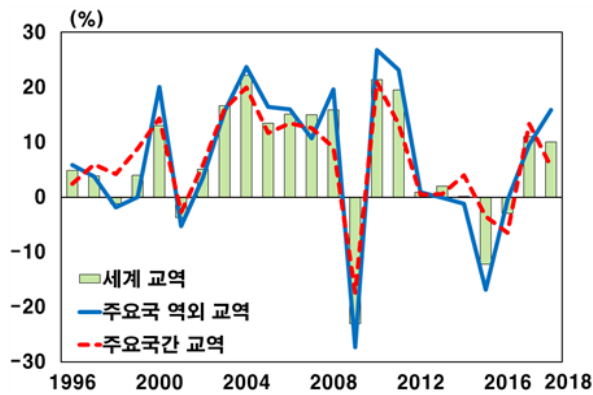
	GDP				Consumer prices				Unemployment rate in percent			
	Change over previous year in percent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Euro area	1.9	1.2	-0.2	1.5	1.7	1.3	1.2	1.4	8.1	7.5	7.7	7.5
without Germany	2.0	1.4	-0.1	1.4	1.7	1.2	1.3	1.3	10.3	9.5	9.7	9.5
France	1.7	1.2	-0.1	1.7	1.9	1.1	1.5	1.2	9.1	8.5	8.4	8.3
Italy	0.7	0.2	-0.8	0.8	1.2	0.7	0.8	1.1	10.6	10.0	10.3	10.3
Spain	2.4	2.0	0.3	1.7	1.7	0.7	1.0	1.5	15.3	14.1	14.5	13.9
Netherlands	2.5	1.7	0.4	1.6	1.6	2.7	1.5	1.4	3.8	3.4	3.8	4.0
United Kingdom	1.3	1.4	0.8	1.4	2.4	1.8	1.9	2.2	4.2	3.9	4.1	4.2
USA	2.9	2.3	0.8	1.7	2.4	1.8	2.0	2.0	3.9	3.7	3.7	3.6
Japan	0.3	0.8	-0.3	0.6	0.8	0.6	0.3	0.6	2.5	2.4	2.4	2.4
South Korea	2.7	2.0	1.1	1.6	1.6	0.5	0.9	1.0	3.8	3.7	3.7	3.6
Central and Eastern Europe	4.6	4.0	2.9	3.3	2.2	2.7	2.9	3.0	3.7	3.3	3.3	3.3
Turkey	2.9	0.1	1.5	1.6	16.3	15.2	12.8	12.1	11.0	13.9	13.7	13.5
Russia	2.2	1.3	1.1	1.6	2.9	4.5	3.7	4.2	4.8	4.6	4.5	4.4
China	6.7	6.2	4.6	5.8	2.5	3.3	3.6	3.6	4.1	4.1	4.1	4.1
India	6.7	5.1	5.0	5.7	3.9	3.7	4.3	4.0				
Brazil	1.3	1.1	1.0	1.3	3.8	3.8	3.4	3.7	12.3	12.1	11.8	11.7
Mexico	2.1	-0.1	0.1	0.9	4.9	3.4	2.7	2.9	3.4	3.5	3.4	3.3
Advanced economies	2.2	1.8	0.4	1.5	2.0	1.5	1.5	1.6	4.8	4.5	4.6	4.5
Emerging markets	5.5	4.6	3.8	4.7	3.6	4.1	4.2	4.2	5.1	5.2	5.2	5.1
World	4.2	3.5	2.5	3.5	3.0	3.0	3.1	3.2	5.0	4.9	4.9	4.9

Sources: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DIW Berlin Spring Projections 2020.

- 전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세계경기전망은 IMF보다 보수적으로 평가 (한국의 경기전망도 IMF보다 낮게 전망)
- 세계경제의 연계성 강조
- 구매력 회복이 필요(세계경제 - 구조적 문제)
- 격차해소와 고용률 유지가 관건(한국)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주요국 및 세계 교역<sup>1)2)</sup>

주: 1) 미국, 중국, EU 및 일본의 상품  
수입액 합계

2) 증가율(%)

자료: UN

對주요국 수출의 GDP대비 비중<sup>1)</sup>

		주요국				
		미국	EU	중국	일본	합계
수출국	미국	-	1.7	0.8	0.4	2.9
	EU <sup>2)</sup>	2.7	-	1.6	0.5	4.7
	중국	4.1	4.0	-	1.3	9.4
	일본	2.9	2.1	3.9	-	8.9
	아세안	6.5	6.6	9.8	3.8	26.7
	한국	4.7	4.1	13.5	2.0	24.3
	인도	2.1	2.3	0.7	0.2	5.2
	브라질	1.7	2.4	4.4	0.4	8.9
	러시아	1.3	12.2	3.9	1.0	18.3
	세계	3.1	3.1	2.5	0.9	9.5

주: 1) 對주요국 상품 수출/수출국 명목  
GDP(%), 2018년 기준)

자료: UN, IMF

수출비중이 큰 한국은 세계경제의 동향에 매우 민감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위기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증가율 <sup>1)</sup> , %)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미 IT거품붕괴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중국 경기둔화 우려 (2015년)
▶ 주요국간 교역	4.2	-2.8	-17.4	-3.5
▶ 주요국 역외 교역	-1.9	-5.3	-27.3	-16.9
▶ 세계 교역	-1.2	-3.7	-23.0	-12.2

주: 1) 상품 수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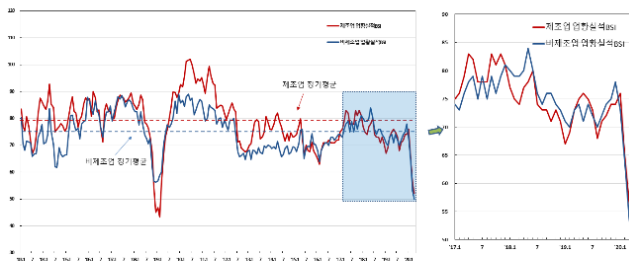
자료: UN

- 1998년 위기 이후 경제위기 주기가 잦아 지고 있음
- 위기의 규모와 범위가 커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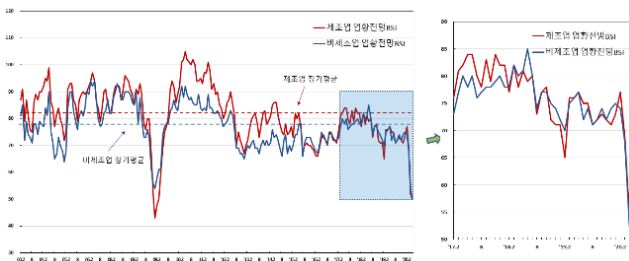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 1 제조업 · 비제조업 업황 실적BSI 추이



## 2 제조업 · 비제조업 업황 전망BSI 추이



- 한국은행 4월 BSI(기업경기실사지수)에 의하면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전달 대비 업황 실적과 전망이 모두 하락
- 제조업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이 높고,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이 문제
- 비제조업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이 높고,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 자금부족과 인건비요인은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편

## 4월 1~20일 주요 품목 수출액 증감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 급증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 (단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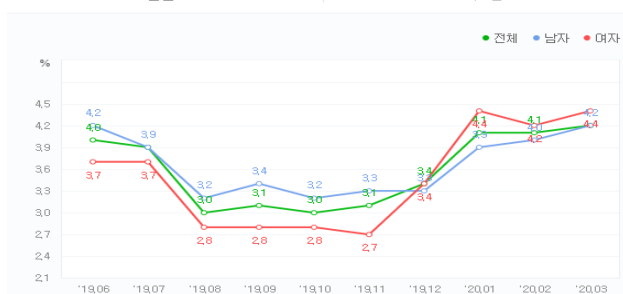


전체 4.2%

'20.03,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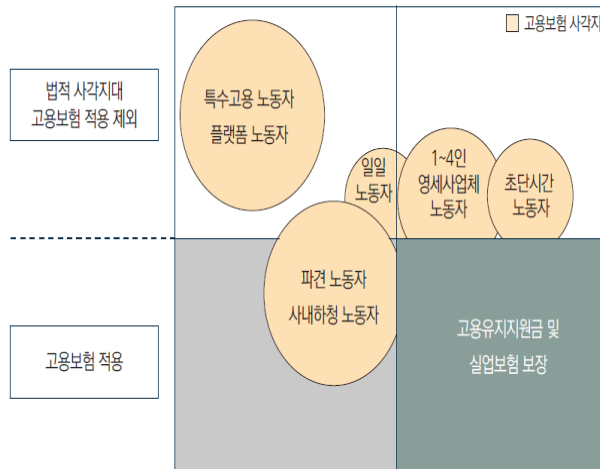


- 실업률의 가파른 증가예상
- 노동시장의 아킬레스 건: 취약계층에게 더 충격이 큰 실업
- 3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1.2%) 감소(11년만에 처음)
- 종사자 감소폭의 97%에 육박하는 21만7000명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非) 상용 계층
- 지난 3월 상용근로자가 8000명(-0.1%) 감소하는 동안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7.0%), 기타종사자(특고)는 9만3000명(-7.9%) 급감;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15.3만명, -12.0%) △교육서비스(-10.7만명, -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3.9만명, -11.9%) 순으로, 대면서비스를 하는 직종이 타격을 입음(주로 식당 종업원, 학원강사, 문화산업 종사자들)
- 근로조건과 종사상 지위가 양호한 상용직은 고용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내고, 모든 면에서 취약한 그 외 계층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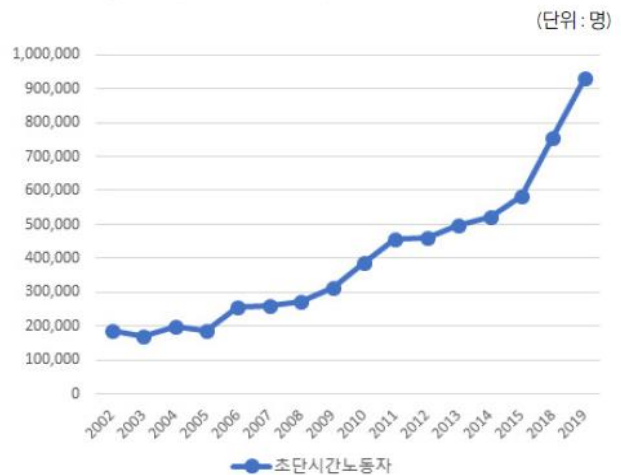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그림 1] 고용형태별 고용보험의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



출처: 정홍준(2020),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그림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도별 규모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 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들 중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고용유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초)단기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급권 유지가 매우 어려움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고용대책에 취약한 노동자 규모]

(단위: 만 명)

고용 사각지대 노동자 <sup>1)</sup>	총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 <sup>3)</sup>
① 초단시간 노동자	93.2	91.1
② 일일(단기) 노동자	74.8	70.5
③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 노동자	378.3	226.6
④ 파견·용역 노동자	165.5	-
⑤ 특수고용 노동자	220.9	199.9
⑥ 합계	932.7	588.1
⑦ 중복을 제외한 실제 고용 취약계층 <sup>2)</sup>	727.5	458.7

주: 1)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형태 공시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등을 활용함.

2) 초단시간, 일일 노동, 5인 미만 영세업체, 파견·용역·특수노동의 중복비율은 22%를 적용함.

3)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함.

출처: 정홍준(2020),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 노동연구원 정홍준 박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해고 등 고용위기와 일감 축소 등으로 소득단절에 처한 취약한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약 728만 명으로 추정 (종업원, 학원강사, 문화산업 종사자들)
- 그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459만 명으로 추정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 코로나발 위기의 특징

-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대출(Subprime mortgage)에서 비롯되었다면(직접적 위기로인), 현재의 포스트 코로나 위기는 '생산의 문제'에서 촉발: ex)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제적 수준에서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이미 과잉생산 위기였으며, 그나마 버티던 중국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위기 발생에 생산축소에 들어감
- 코로나발 뉴노멀(New Normal) - 금융위기의 가속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현재 14조3천억 달러(약 1경7천억원 규모)로 추정.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낮추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푼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 뉴노멀 시대를 전망
- 디플레이션발 디레버리지(deleveraging) 위기(빚을 상환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여 경제수요가 감소하고 불황이 심화되는 현상) -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만성적 수요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자산가격을 높이고 일시적 유동성 공급만으로 위기를 잠재우기 어려움

# 1

## 코로나 EFFECT: 세계경제와 고용의 위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

- 코로나 19 이전의 자본주의 위기 4중고가 현재의 위기와 중첩되면서 대전환의 계기로 작용: 2008년 '대침체' 지속 + 글로벌 이주현상과 노동력의 선별적 수용국 내에서의 갈등(Brexit, Trump 현상) +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의 전환(비용과 인식의 문제: 단기적 일자리 vs. 중장기적 일자리/ 생태친화적 삶의 방식 전환)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AI와 자동화에 대한 환상/두려움 vs. 숙련노동/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부족)
- 자본주의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구호성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로는 중장기적 위기 극복은 어려움: 고령화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성 + 신사회협약(노사관계와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y)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원, 286만명 지원)

'20년도 일자리예산  
(25.5조원)+ 추경 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1.9조원)→ 그간 대응  
(27.4조원)

## 금번 대책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금번 대책	효과	주요 내용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52만명 +0.9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20만명, +0.27조원)</li> <li>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0.13조원)</li> <li>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20만명, +0.48조원)</li> <li>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0.05조원)</li> </ul>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1.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49만명, +1.5조원)</li> <li>- 대상: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li> <li>- 지원내용: 월 50만원 × 3개월</li> </ul>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 +3.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디지털 전환일자리 (+10만명, +1.3조원)</li> <li>청년 일용직 지원 (+9만명, +0.24조원)</li> <li>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명, +1.55조원)</li> <li>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9만명, +0.32조원)</li> <li>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9만명, +0.53조원)</li> </ul>
실업자 생계·재취업 지원	86만명 +4.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직급여 확대 (+49만명, +3.45조원)</li> <li>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28만명, +0.43조원)</li> <li>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9만명, +0.33조원)</li> </ul>

출처: 고용노동부, 4.22

##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지원 대책 주요 내용

## 40조원+α 기간산업안정자금 조성

- 지원대상: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
- 지원방식: 고용유지 및 자구노력(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국민과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한 일시적 유동성 공급(출자·지급보증) 등

## 35조원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등 추가 지원

기존 발표된 100조원 상당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보완·추가 조치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일부 방안의 자금 소진과 지원 사각지대에 대처)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 5조원

## 10.1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286만명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0.9조원(52만명)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1.9조원(113만명)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조원
  -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 0.4조원
-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3.6조원(55만명)
-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3.7조원(66만명)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20042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YONHAPNEWS

##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 1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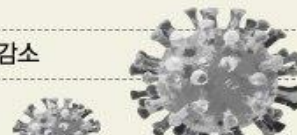
52만명 / 9000억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원 × 3개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 × 6개월

##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 1조5000억원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내용	월 50만원 × 3개월



## 2

## 정부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5만명 / 3조6000억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로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정규직 전환의무 없음),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기록물 전산화 등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로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대 월 180만원

청년 일경험 지원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대상.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월 80만원 × 6개월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대상.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대 월 180만원

##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86만명 / 4조1000억원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구직급여 규모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월 50만원 × 6개월),  
근로자 생계비 용자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자료: 고용노동부

그래픽: 이승현 디자인가자

## 2

## 정부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 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기업지원금이 40조, 노동자 지원금이 10조(6월 일자리 대책 추가 예정)
- 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긴급고용안정대책(10조원을 투입)은 기존의 정책에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 추가됨
- 한편, 1.5조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여 93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50만원 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함
- 이러한 정책은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고용위기가 본격화되고 장기화되는 전망 속에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미흡. 특수고용자의 규모가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상당히 많은 특고노동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급기간을 3개월로 한정된 것도 고용위기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 비해 부족
- 긴급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위기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실업부조도입',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 노력이 시급

## 2

## 정부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lt;표&gt; 각국의 주요 코로나 고용대책

	실업자 소득 지원		고용 유지	휴가 및 상병수당
	기존	신규	신규	신규
미국	- 실업급여 수준, 기간 4개월간 600달러 추가 지급 수급기간 13주 연장 휴직 중인 부분실업자 포함	-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실업급여액 1/2에 4개월간 600달러 추가 수급기간 26~39주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실업자 휴직자 포함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임대료, 모기지 및 부채 상환 목적의 비용을 대출하되, 고용을 유지할 경우 탕감 - 모든 기업에 휴가, 재고용 인건비의 50% 세액공제 - Short time compensation payments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	- 2주 유급병가 지원 - 가족의료휴가 지원
영국	- 구직활동 인정 일시 해제, 대기기간 1일로 단축	-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사업소득의 80% 지원	-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유급휴직 제공 기업에 최소 3개월간 임금 80% 지원	- 2주 유급병가 지원
프랑스	- 실업급여 연장 - 자영업자 실업급여	- solidarity fund for small businesses, freelancers, micro- entrepreneurs and liberal professions 매출이 70% 감소한 10인 미만 사업주(특고 포함)에게 1,500유로 지원	- Partial unemployment scheme 재택아동돌봄종사자, 재택근로자, 외판원, 간주시간제 근로자 확대 파견/계절 고용 유지	
독일		- rescue package for freelancers & small businesses 재정난을 경험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주에게 9천 유로,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15천 유로 지원금	- Short-term work subsidy 감소된 임금의 60~67% 지급 근로시간 10% 이상 감소로 요건 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100% 확대 임시직 고용 유지	

출처: 이병희(2020).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 2

## 정부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lt;표&gt; 각국의 주요 코로나 고용대책

	실업자 소득 지원		고용 유지	휴가 및 상병수당
	기존	신규	신규	신규
스페인		- Temporary Employment Adjustment Schemes 수급자격 없는 일시해고자에게도 실업급여	- 경영활동 중단된 자영업자 소득 지원	
이탈리아		- 자영업자, 계절노동자에게 600유로의 긴급 재난 수당 지급	- 60일간 해고 금지 -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자 임금의 80% 지원	
캐나다		-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2천 캐나다달러를 4개월 지급 실직, 질병, 격리, 돌봄 사유 모두 인정		
아일랜드		- Pandemic Unemployment Payment 모든 실직자에게 6주간 주당 350유로 지원	- Wage Subsidy Scheme 임금 70% 지원	- Enhanced Illness Benefit
일본			- 고용조정조성금 사유 및 요건 완화 긴급특정지역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도 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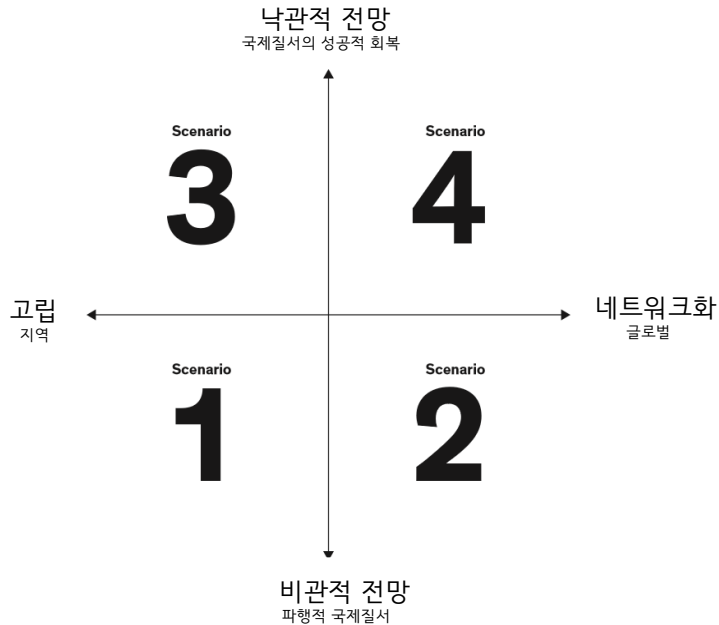
출처: 이병희(2020).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 사회보장의 성격은 국가별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경로의존성), 위기대책에서 실업자 소득지원과 휴가 상병수당에서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는 건 결국 국가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
- 코로나 19 위기대응전략을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제도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신사회협약'의 필요성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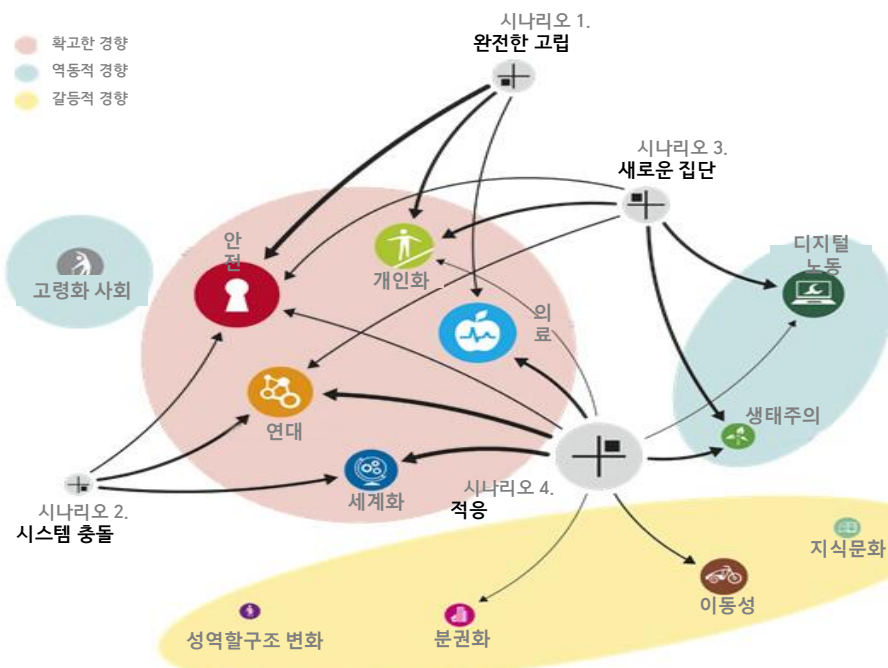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시나리오 1: 고립화된 사회 - 폐쇄성의 지속(봉쇄, 사회적 배제)
- 시나리오 2: 위기의 지속 (국가주의의 강화, 국제질서의 파행)
- 시나리오 3: 글로벌 불평등 강화(사적 연대, 지역화 경향 심화: triad)
- 시나리오 4: 국제질서에서 회복력 있는 사회의 공존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 Post Corona 시대의 도전:

- 상수: 개인화, 의료, 안전, (시민적) 연대, 세계화
- 도전: 고령화사회(인구절벽), 디지털 전환(일자리 양극화), 생태전환 (삶의 양식과 에너지 전환)
- 사회갈등: 젠더, 분권화, 계층적 이동성, 지식권력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인구발전	기술경제적 발전	사회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와 노동자의 고령화</li> <li>• 사회의 수축</li> <li>• 후속세대의 인구부족</li> <li>• 직업생활의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지구화</li> <li>•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li> <li>• 복합성과 가속화의 동시적 증가</li> <li>• 비용압박 속에서 품질혁신의 압력</li> <li>• 원료 및 에너지 공급의 부족 - 에너지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li> <li>• 다양성</li> <li>• 페미니즘화</li> <li>• 개별화</li> <li>• 가치변화</li> <li>• 일과 삶의 균형</li> <li>• 사회 양극화</li> </ul>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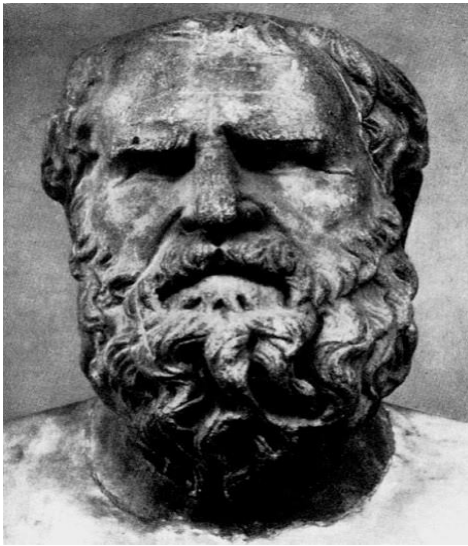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디지털 전환의 추동력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Heraklit, ca. 500 v. Chr.

대전환의 시대: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은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코로나 이전 고용상황 개선의 정책적 성과

67.1%

고용률(19.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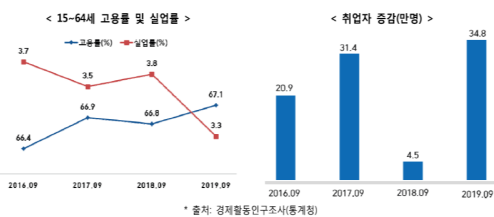
43.7%

청년 고용률(19.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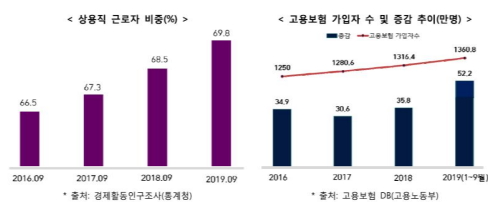
69.8%

상용근로자 비중(19.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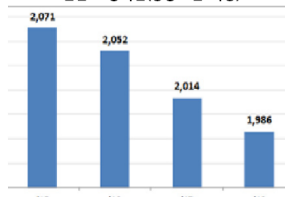
양질의 일자리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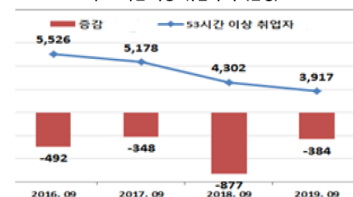
고용상황 개선



< 연간 노동시간(상용 5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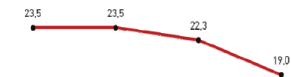


<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수 (천명) >



노동시간 단축

< 저임금근로자비중(%) >



< 임금 5분위 배율(배) >



\*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8.6월, 고용노동부)

임금분배 구조 개선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4대 보험 가입 요건 완화의 성과와 개선 과제

#### □ 고용보험 가입요건 개선(2018.7)

- 특수고용직(+ 예술인) 가입 의무화: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조건
- 자영업자 가입조건 완화: 개업 후 5년 이상도 가입 가능
- 대기업 45세 이상 250만원 이하 소득자 직훈지원 지원

#### □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 개선(2018.7)

- 기존의 월 20일 이상 근로일수로부터 월 8일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로
- 가입요건 완화

#### □ 개선 과제

-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확장보다는 지원 규모와 범위 중요(실업급여 / 직업훈련: 자영업자의 강제가입은 쉽지 않지만, 특고/예술인/지식노동자들에 대한 가입은 필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 추가 완화: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1일 근로 혹은 9시간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비전 목표	<b>일자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의 사회 구현</b> <u>사람·노동 중심의 전환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u> <b>2022년까지 고용률 68% · 고용보험 '1500만원 가입' 달성</b>	
		
정책 기초 조정 확장	<b>① '일자리 문제 해결형 보강·신규 핵심과제' 선정·중점추진 (50개)</b> ①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 강화에 집중    ② 일자리 원안 대응 ③ 노동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대응    ④ 재정·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b>② 기타 지속추진이 필요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세부과제는 당초 목표 달성수준까지 차질없이 진행 (50개)</b>	
협력 거버넌스	<b>혁신과 상생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보완·운영</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중기지원</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a6c9ec; padding: 5px;">지역고용</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5px;">사람투자</div> </div> <small>(노사민정 거버넌스)</small>	
분야 별 핵심 정책 과제	일자리 창출	<b>공공에서 민간 일자리로의 확산</b> ①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에 집중 <small>※ '지역일자리, '신산업 서비스, '중소벤처소상공인, '제조·건설, '사회적경제</small> ②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고용여력 뒷받침
	일자리 질 개선	<b>노동 생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완성</b> ③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및 일터혁신 기반 마련 ④ 국민체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안전망 완성
	맞춤형 지원	<b>수혜계층별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b> ⑤ 청년·40대·신종년 등 전생애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⑥ 여성·장애인·농어촌 등 대상별·분야별 지원확대
	미래변화 대비	<b>미래 노동시장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과제 추진</b> ⑦ 인적자원 개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⑧ 플랫폼 경제, 저탄소 경제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기초: 기존정책  
에서 선택과 집중

#### 긴급 정책과제

1. 고용유지
2. 긴급실업지원대책
3.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  
안정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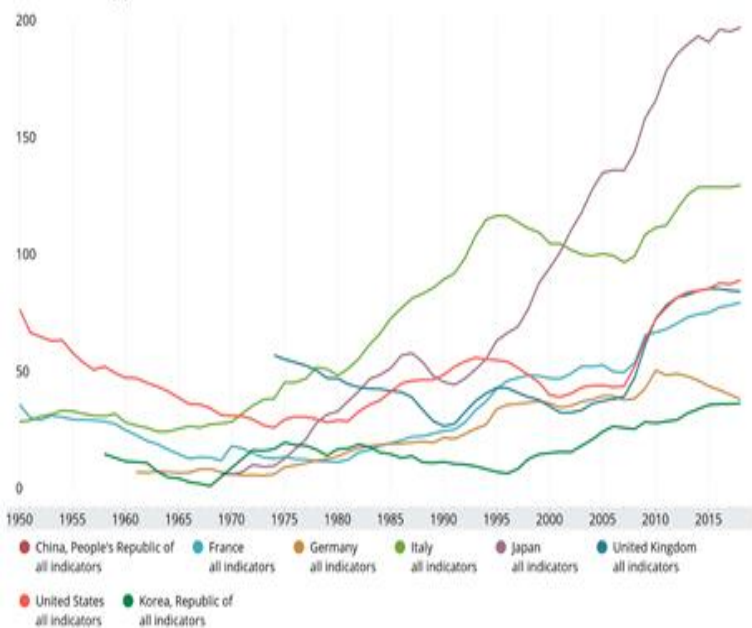
#### 고용노사관계의 대전환

1. 신사회협약
2. 디지털 전환/그린뉴딜과 미래  
형 일자리 창출(생태친화적 일  
자리)
3. 복지국가의 확립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긴축정치의 늪에서의 탈출 필요

IMF DataMapper



©IMF, 2020. Source: Global Debt (Decem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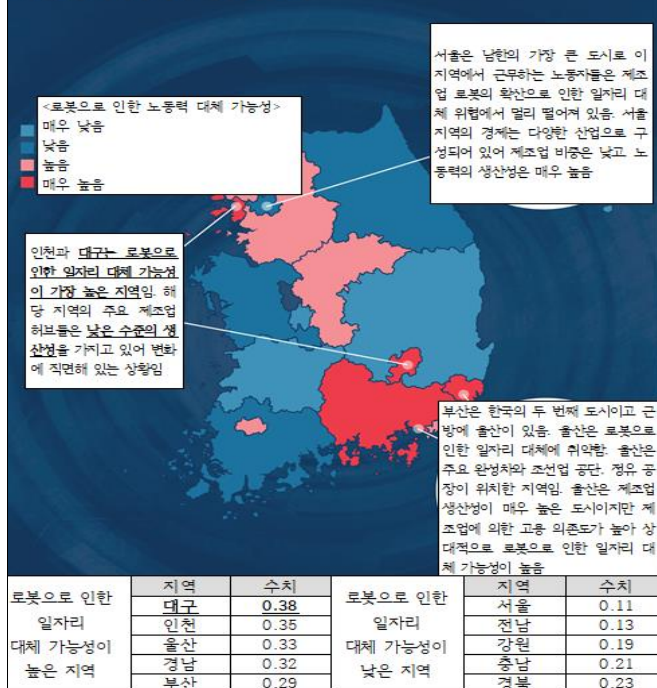
- GDP대비 국가 채무수준은 IMF 기준으로 최우등생으로 기재부의 고리대금업자형 정책기조를 확장형 투자혁신정책기조로 전환해야!
- 실업부조와 고용보험의 확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투자와 재생산 조건의 재구성
-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의 혁신(사업)과 노동력의 혁신(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포괄적 투자 필요: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4차 산업 혁명의 파고 속에서 위기는 발생하였고, 포스트 코로나는 이러한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고용-기술-산업-환경정책에 기반한 생태친화적 미래 일자리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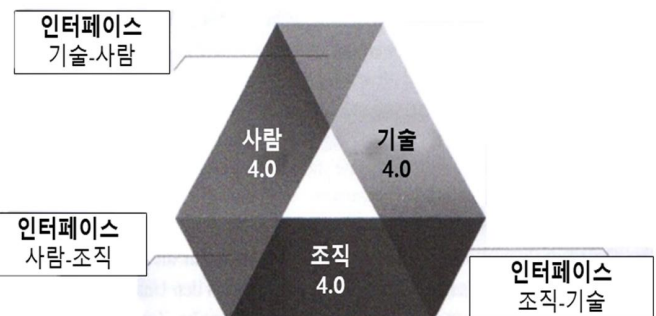
한국의 지역별 로봇 투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

### SOUTH KOREA



자료: Oxford Economics(2019)

- 4차산업혁명을 '자동화'로 이해해온 물이해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공존, 노사가 공존하는 미래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되어야!
- '저성장의 시대'에 인구절벽(노동력 부족)과 숙련(생산성), 고용창출(공급)과 (사회적)수요확보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위기를 기회로!

□ 포스트 코로나라는 '대 전환'의 시대에 고용과 복지의 혁명적 전환

### 1. 노사 대타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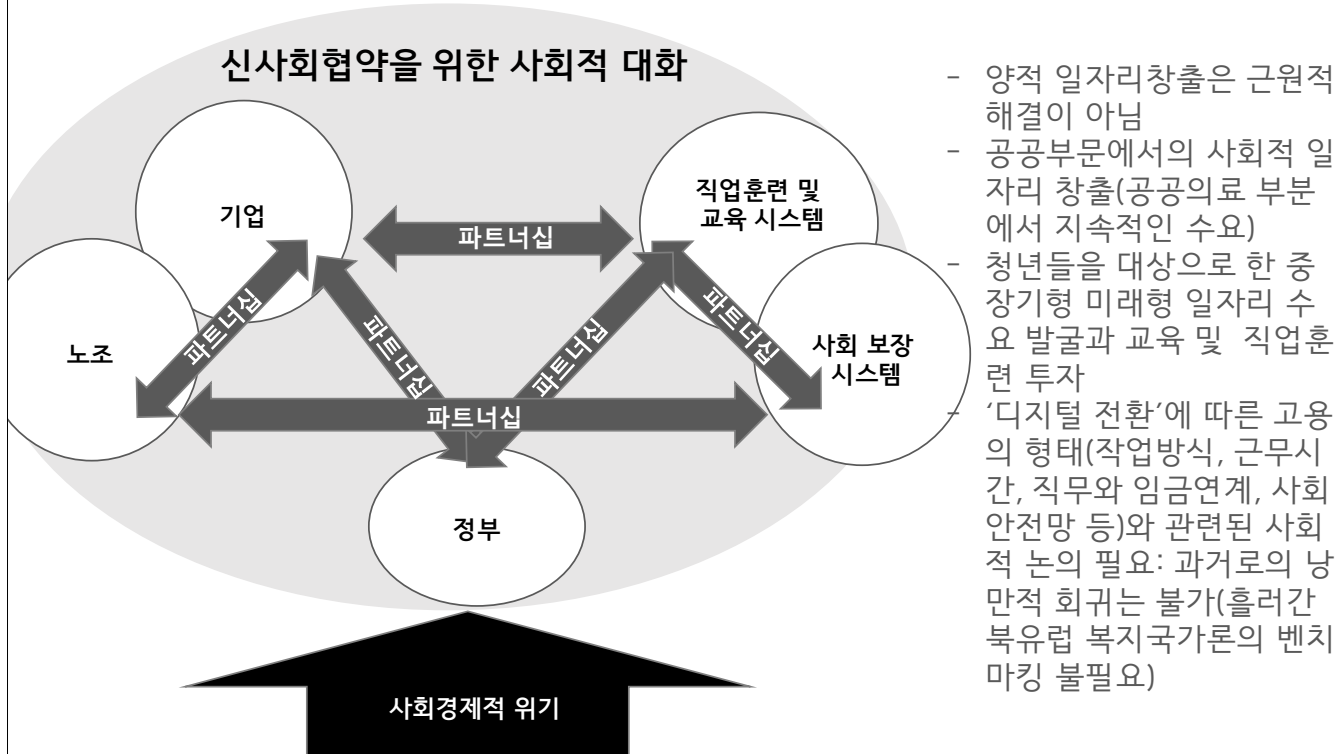
- 뉴딜은 TVA로 대변되는 대규모 투자형 일자리 정책?
- 소위 와그너법(Wagner Act)로 불리는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도입(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 보장) 도입으로 고용과 분배, 복지와 성장이라는 포디즘적 축적제체의 기초 마련
- 스페인 독감(1918년)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 유럽에서 끊임없는 노사갈등, 혁명과 반혁명의 악순환을 초래하였고, 이후 살츠요바덴 협약(1938년)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확립
-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가능
- 고용유지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타협

### 2. 신사회협약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체제의 전환은 정부의 기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의 적극적 참여속에 가능
-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협약을 만들어 내야!
- 양적 일자리보다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에 조응하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 필요

### 3

##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 위기를 기회로!



감사합니다





## 세션 I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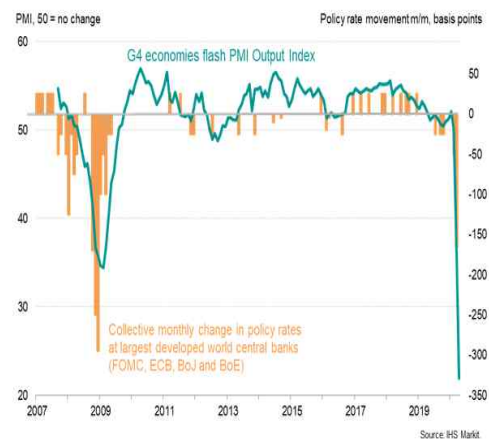


## Global Lockdown 이후 국제협력 메커니즘 방향

한홍열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 1. Pandemic과 Global Lockdown 그리고 Hysteresis

- 세계는 Covid 19 Pandemic을 Global Lockdown으로 대응. 인류사회는 경제위기를 포함한 여하한 재난에도 현재와 같은 Global Lockdown을 경험한 바 없음.
  - o 대공황 시절과 비교하는 이유는 경제위기의 규모 그 자체도 비교대상이지만 ‘보호 무역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국제무역과 투자활동에 있어서 일종의 Lockdown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1930년 미국의 Smoot-Hawley Act로 이 법의 영향을 받은 수입제품의 평균관세율은 59.1%였고 그 결과 4년 후 이 법이 철회되기까지 전세계 무역은 2/3 감소하였음).
  - o 현 상황을 하나의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대공황과 달리 V자 또는 U자 회복을 전망하는 것은 낙관적 기대의 한 극단일 수도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를 통하여 주로 수요 측면의 충격을 흡수하였음.
- 현재는 Lockdown으로 인한 전세계적 규모의 공급사슬이 붕괴될 위기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함.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양적 질적 변화를 예상할 필요가 있음. 실제 각종 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빠른 시간에 넘어서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WTO

자료) IHS Markit,

[https://ihsmarkit.com/research-analysis/week-ahead-economic-preview-week-of-27-april-2020-.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MarkitPMIsAndEconomicData+%28IHS+Markit+PMIs+and+Economic+Data%29](https://ihsmarkit.com/research-analysis/week-ahead-economic-preview-week-of-27-april-2020-.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MarkitPMIsAndEconomicData+%28IHS+Markit+PMIs+and+Economic+Data%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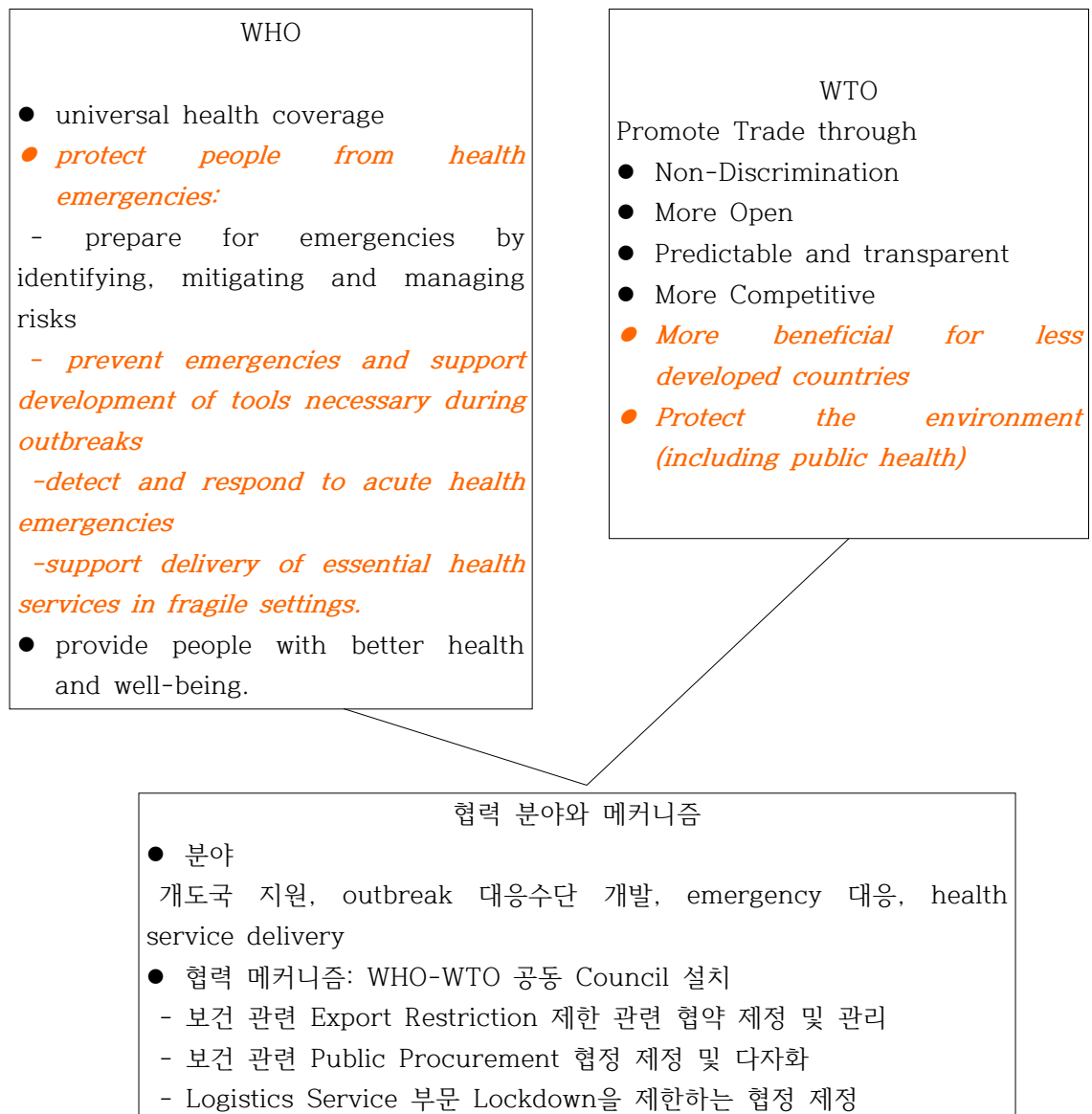
- OECD의 TiVA Database에 의하면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에 포함된 외국의 부가가치 비율은 약 30%에 달하며 여타 개발도상국은 50%를 상회함. Global Lockdown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임. 세계화와 함께 확산된 Global Value Chain의 목표가 efficiency에 있었다면 차후에는 risk management로 전환될 것임. 지난 몇 년에 걸쳐 진행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이러한 경향이 이미 발생되었으며 Global Lockdown은 그 추세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Logistics Service의 경우, 현재 중단된 생산과 무역은 제조업과 달리 재고로 축적이 불가능하므로 영원히 망실된 것임.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충격이 Global Supply Chain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큰 규모의 충격은 이른바 이력현상(Hysteresis)을 발생시킴.
  - 대규모 충격에 대한 비대칭적 반응은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대응의 결과임.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충격을 압도하는 대책이 필요함.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과거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종류의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암묵적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의 대응 역시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중소기업 보호, 고용보호,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 생산기반 보호 및 공급사슬의 재구성, 산업단지 등 국내 생산기반의 재조정 등)

## 2. Global Lockdown 이후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방향

-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킴으로서 비교적 장기간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하였음.
  - 그러한 노력은 UN 및 다양한 국제기구, 브레튼우즈 체제, 유럽통합, OECD, 그리고 최근의 WTO 및 지역간 경제통합 움직임을 모두 망라하는 것임. 그렇지만 이 모든 제도적 인프라가 20세기 후반의 세계화 추세를 뒷받침하는데 머무름으로써 오히려 그 권위와 역할은 약화되었음. 인류가 지금과 같은 Pan Lockdown을 반복적으로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Pandemic의 예방 뿐만 아니라 효율적 대응방식과 공조를 위한 협력모형 구축에 나서야 할 것임.
- 한국의 경험은 향후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며 그 경험의 핵심은 한국의 대응방식이 “효과적 바이러스 통제”와 ‘합리적 수준의 사회적 통제’라는 상반된 목표의 양립가능성을 확인한데 있음.

- 따라서 향후 국제협력의 과제는 1) Pandemic 통제와 사회적 통제간의 균형을 위한 모형의 개발, 2)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3) 이행에 필요한 정책수단 및 자원의 확보로 집약될 것임.

- 제안: WHO-WTO 공통 영역의 발굴 및 협력 메커니즘 모색





## 세션 I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충격 완화 방안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대체로 동의가 되는 발표여서 특별히 발표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보다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경제,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본질적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이 위축기를 잘 버티냐에 따라 크게 다른 시나리오 가능한 상황
  - 조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V자 회복은 어렵고,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재를 견디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코로나가 가져올 충격은 코로나 퇴치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위축의 고용충격, 노동시장 충격이 주로 취약층에 집중될 경우 나타날 불평등 충격, 코로나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 인식이 얼마나 심대하게 기존 경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향후 중장기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
-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충격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존 제도의 확대와 새로운 일시금 프로그램 창안 등을 통해 대응
  - 고용유지 지원 수준을 높이고, 기존 사회안전망이 없었던 집단에 일시적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대책에 주력한 점 바람직
  - 그러나, 이번 어려움이 코로나 퇴치 과정의 결과라 기업이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지원 수준에서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 있음.
  - 이를테면, 자영업자, 특고 등 기존 사회안전망 또는 고용유지제도가 없었던 집단은 2-3개월 50만원 지급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1차적 사회안전망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한계  
##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야지 평소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실업부조 수준의 지원금 설계로는 역부족
  - 고용유지지원금도 상한 66천원 또는 7만원에 90% 지원. 물론 이 지원율도 상향조정할 것이긴 하지만, 이번 상황이 다른 경제충격과는 다른 성격을 고려하면 상한을 중위 임금 수준을 향해 좀 더 높이고 지원율도 더 과감하게 할 필요  
## 통상의 상황과 달라 도덕적 해이 염려에 근거한 제도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금은 부실기업이 문제가 되는 통상의 경제충격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한 기존 경제관계의 붕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제도설계여야 함.
  - 취업자 축소로 미취업자 증가하고 있지만, 위축된 노동시장 상황으로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관계로 실업률은 대폭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다른 나라는 기존 실업급여 연장부터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취업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을 내놓지 않아 기존 실업급여 현재 만료자, 만료예정자는 어려움. (특별연장급여)

- 관련하여 기존 제도 보완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부조 입법화 등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충실한 논의 필요
  - 일례로, 흔히 초단시간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소개하지만, 일주일에 만나절이나 하루 정도 일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까지 모두 실업으로 간주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제대로 논의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유연한 제도운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 미미. 기존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인 측면, 임금근로자의 연장선에서 자영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 있음. 현재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설계하여 제공한다든지(진짜 영세 자영업자에게 휴직은 곧 폐업이나 다름없을 수 있음), 자영업자 본인에게 걸맞는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부분실업(휴업)급여를 설계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 고유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음.
  - 또한,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취약 임금근로 계층 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무조건 간주할 수도 없음.
  - 이상과 같이 내실 있는 제도개혁을 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가입대상으로 해서 보호할 것인가부터 사회보험 적용, 징수, 급여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충실한 논의 해나가는 계기로 작용하여야겠음.
  - 실업부조는 저소득 실직자나 실업급여 종료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는 실행되며, 보통 저소득 상태를 탈피할 때까지 지급. 외국은 반드시 완전 실업자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아님. 저소득 실업자를 겨냥할 경우 주거급여 지원, 부양가족수에 따른 추가금원 지급 등 추가 혜택 있는 사례들도 있음. 우리나라 실업부조는 사실상 취성패 기간 내내 50만원을 부가하는 형태에 불과한 측면을 갖고 있어, 이 실업부조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나에 따라 지급액과 기간 상향 등 고려할 필요 있음.
- 발표된 대책들은 일자리 대책도 포함.
  -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임시적 일자리 제공에 충분히 설득력 있으나, 청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려할 필요.
  - 이런 측면에서 2분기 글로벌 경제 저점 후 3분기 반등 국면에서 최대한 정규직 취업되도록 청년대책을 추가할 필요 있다고 생각됨. 대체채용도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고용장려금(코로나 이전인 전년 대비 증가인원 지원) 같은 기존 대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기 가능성 있음. 특히 연말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3분기 강하고 대대적인 채용 보조 필요할 것. 대기업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세 번째와 관련해 국제금융위기 이후를 참고할 필요
  -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각종 불평등 지표 완화 또는 급등세 주춤
  - 특히 노동시장 소득의 불평등 완화가 중요한 역할
  - 제조업 고용증가(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향상과 기계 등 중간재 중국으로 수출

증대)+사회복지 지출 증대(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최저임금 인상(시민사회 강한 움직임에 따른)+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금융 등 고임금 부문 고용성장 둔화도 부분적 역할

- 이와 같이 저임금보다 높은 일자리에서 발생한 일자리 기회에 25-54세가 흡수되고, 대신 55세 이상 고령층이 이들이 빠져나간 저임금 부문에서 일자리 기회를 발견하는 일종의 선순환 발생한 것처럼 보여.
- 그러나, GVC에 변화가 발생할 조짐 충분. 수출수요를 대체하는 내수시장이 큰 국가, 지역에서 현지생산하라는 요구, 이에 따른 현지생산 물량 확대 등.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일 가능성. (금융위기 이래 증가세가 주춤했던 해외투자가 2018년부터 급등하고 있음)
- 디지털, 비대면 강조 추세 속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변화 가속될 수도. 이 역시 일부 기존 일자리 쇠퇴 낡아 불평등 강화시킬 수도.
- 그럼 어떻게 불평등 강화 조짐에 대응할 것인가 대책 필요: 일자리의 상대적 양도 중요. 고임금 일자리에서 노동공급 초과는 고임금 일자리의 임금 증가폭 낮춰 불평등을 개선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노동공급 초과는 임금에 하향화 압력 야기해 불평등을 증가시키기 때문. 중간 일자리 노동수요 부족은 중간 일자리에서 일했을 사람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게 만들어 저임금 일자리 노동공급 초과 유발
- 오늘 발표된 산업 정책적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시사점이 풍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조금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방면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 방역도 그런 계기가 될 것. made in Korea에 대한 신뢰 상승이 고부가 소비재 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투자 촉진에도 관심을.
- 과거 10년간 일자리 변동을 보면 보건 복지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향후 일자리 창출 전망도 가장 밝은 부문. 감염병 예방, 진료 등을 포함 늘어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산업증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서비스 부문 수요 충족을 위해 재정을 걱정하기보다 규제 혁신 재정투입 등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 더 적은 양극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
- 코로나 이후에도 현재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대면 접촉 서비스가 과거처럼 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 코로나 직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 활용 늘어나면서 예술 여가 스포츠 서비스 부문 고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음식, 음료업도 여성 경제활동 강화, 선호 변화 등에 힘입어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는 트렌드 있었음.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 특성 상 향후 상당기간 저임금 부문 노동수요 부족 초래 가능성. 적절한 최저임금과 더불어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저임금 부문 노동비용 감소정책을 당분간 과거보다 확장적으로 지속 운영할 필요.



## 세션 I :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코로나19 이후 경제분야 정책과제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1. 현재 상황

금융시장 안정, 외환시장 안정, 소상공인 매출 조금씩 회복, 경제성장률 -1.2%로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전망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 회복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고려해야 함.

### 2. 단기 대책

단기 대책도 중장기적 전략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 및 기업 안정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수립된 단기 대책이라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을 총액 기준으로 보면 민생 금융 및 산업 안정 패키지 135조원+a로서 대략 GDP의 7% 수준.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면 독일의 5%보다는 많고, 미국 11%, 일본의 20%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 액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필요한 경우 더 지출할 여지는 있는 셈이다.

국가재정 사용 과정의 투명성 문제.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의 재정 지출의 경우 의회가 주도해서 「비상경제안정화법(‘EESA 2008)」 「경기부양법(ARRA2009)」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시행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재무부는 회계국, 예산국, 그리고 의회 예산위원회, 재무부 금융안정국의 보고서에 대한 시민보고서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을 통해 예산의 사용 내역을 일별, 분기별, 연도별 지출액과 회수 현황을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한 선례가 있다.<sup>1)</sup>

### 3. 중장기 대책: 내수경제 비중

위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장기적 대책을 논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즉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쌓아온 대외경쟁력과 해외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내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을 고려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의 수출 주도경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일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은 대기업이 맡고, 내수는 중소기업이 맡는 역할분담이 의미가 없어졌다. 중소기업도 수출을 통해 승자독식 이든 룬테일이든 수요를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성장세가 높은 현실이다. 결국 국내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1) 김재훈,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국회 예산정책처, 2016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2차 소득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해 ‘헬조선’이란 평가가 만연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포용 성장, 동반 성장,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임금구조가 문제. 최근 기본소득제 논쟁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국민적 관심이 모여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재난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는 고질적인 임금격차의 문제가 있는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에 관해서도 구조적 문제인 임금격차 축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시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그에 연동되어 전반적 임금 상승의 결과를 낳아서 전반적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압박을 준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즉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향상도 선행되어야 하고, 또 직무직능급 등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이 선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노동이 확산해서 노동의 불안정 고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기 위해서도 임금구조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AI 등을 통한 생산성 상승이라 본다면 역시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어 ‘마중물 역할’이라는 재정의 기능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헬조선”이라 불리고 자살을 세계 1위였던 사회를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많은 법률 개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제대로 담기지 못한 숙제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유예되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고생한 의료인력의 헌신을 온 국민이 감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요란스러운 캠페인 뒤에 의료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구조적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장의 가혹한 노동조건과 처우 때문에 간호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불과 몇 년만 근무하고는 퇴직함으로써 그래서 소위 ‘태움’의 일상화와 현장 간호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있다.<sup>2)</sup> 일자리를 위한 또 다른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

2)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이 부재하여, 관련 지출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희,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20. 4.14.



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재난에 대한 태세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향후에도 여타 안전분야에서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사고 등의 사고들, 인재들이 아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며칠 전 이천에서 또 산재 성격의 화재로 많은 귀중한 인명이 사망했다. 법제처의 사이트에서 ‘안전’ 글자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검색하면 233건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나온다. 그 중 일부만 보아도 21개 법률들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생활 및 생산 현장에서 이들 법령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얼마 전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경제단체들에서 제기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위험사회’의 여러 가능성 가운데 겨우 한 가지 분야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 4. 중장기 대책: 세계경제 전망과 우리의 역할

코로나 이후 성곽경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대응방식에 확증편향의 경향이 있다는, 그래서 기존 행동방식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브렉시트를 진행한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노골화해 왔다. 그 결정적인 표현이 미중무역전쟁이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글로벌화를 선도했던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현상과 추세는 부인할 수 없고, 중국 (베트남) 등 후발 신흥시장에서도 정책적으로 혹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성향에서 자국우선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경우 총생산의 수출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으로 상황을 단편적으로 규정해버릴 수는 없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주의주의적으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상황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피동적 존재도 아니다. 가능한대로 사회 작동과 변화 방향에 대한 과학적 파악 위에 적극적, 주체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최신 기술을 담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는 글로벌하게 유통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혁신적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요구는 억제할 수 없고 반면 국내 생산기술은 못 미치는 경우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혁신확산이론으로 볼 때 각 국 내에 혁신적 제품에 대한 13.5%의 얼리어답터, 각 34%의 초기수용자와 후기수용자가 존재하는 것) 따라서 상품 수입, 인력 이동은 위축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미국 기업의 회귀(리쇼어링),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세계적 생산기지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해체될 것이나

‘성곽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여분(redundancy)을 유지해야 하는 약간의 비효율을 글로벌공급체계를 갖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은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과거 국무장관 키신저는 이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성곽 시대' 사고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전 세계 민주세계는 계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앞부분을 국내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대한 미국사회의 의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일단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동선을 주창하고 선도하는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공동선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이상만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했음을, 더 좋으면서도 더 우월한 시스템임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고 선도할 수 있다.<sup>3)</sup> 그런 점에서 팬데믹을 훌륭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자체 방역과 바이오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극복한 한국으로서는 인구와 국토면적, 경제총규모 면에서 강대국이 되지는 못하지만 문화강국을 넘어, 이제 인간 생명을 지켜주는 방역 의료강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인류의 공동목표를 주창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상승효과 날도록 해야 한다.

또다른(next)노멀시대에 국제적 공동선의 콘텐츠는 위험사회에서의 성찰적 산업화에 관한 울리히 벡의 문제 제기를 참고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한 위험사회의 원인은 생태적 위험과 고도기술의 위험에서 찾는다. 고도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 문명이 그 혜택과 함께 기후 환경의 위기, 핵과 방사능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지구적 감염병의 위기가 더해진 것이다. 다만 그의 문제 제기는 비주류의 외침으로 그쳤다. 이제 사회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주류적 작동원리로 위치하도록 해야 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강조했던 성찰적 산업사회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헌신과 자기 비판의식은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시장과 정부개입이 적절하게 결합해서 최선의 성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신뢰, 투명성,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시장과 정부,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경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 한국은 세계에 그 필요성을 보여준 셈이 되었다. (물론 우리 의료체계부터 건강보험제도와 달리 의료공급 면에서 5.8%로 현저히 낮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3) Stacey Abrams, American Leadership Begins at Home, *Foreign Affairs*, 2020.5.20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위험사회에 대한 세계 공동선을 선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재난상품과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기구(다양할 것인데 가령 UN 산하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버금가는 혹은 각 지역별 기구) 재난 대응을 위한 강력한 특별기구를 신설하도록 주도해야 하겠다. 기존에 2003년 SARS 발생 때 WHO가 전염에 대응 위한 전 지구적 틀 개정, 업그레이드했고, 세계은행이 2016년 국경 간 건강위기 직면한 저소득국 지원 위해 비상 유행병 금융기구 설립한 바 있는데, 그것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산업화한 사회의 국가, 기업, 개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전적 산업사회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기계의 피해자(K.폴라니), 계급지배의 피해자(마르크스주의), 다수에 의한 소수의 피해자(포스트모더니즘)임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권리의 획득하고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업사회는 위험사회를 이루어 지구 생태를 압살 파괴하고, 고도기술의 지뢰를 모두의 발밑에 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점점 일상화하고 전 지구화하는 감염병의 만연을 겪게 된 것이다. ‘책임사회’에서 국가 내부에 신뢰와 성과가 동시에 쌓일 수 있고, ‘책임국가’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이번에 보여준 만큼 알려야 한다.<sup>4)</sup> (개인, 기업, 국가가 각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구체적으로 구조화할 것인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4) 올리히 벡이 강조했던 고도기술의 위험, 그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비판의식은 대체로 2011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개념으로 발전해 있다. 이에 관해 국내에서는 개인적 양심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도록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문제로 한정해서 개인에게 귀착시키는 방향이었다(예컨대 송성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손화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8.4월). 거버넌스를 포함한 사회제도적 접근은 없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있으나 책임에 관해서는 내용은 없다.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의 점들이 거론된다(Rene von Schomberg).

i)과학, 기술 및 혁신의 성과를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필요성, ii)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 실패 해결, iii)폭넓은 공유 가치를 가진 기술 및 혁신 정책에 맞춘 과학. iv)기술 잠재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로 초점을 이동, v)향상된 소통능력, 효율성 및 사회적 도전에 대한 반응성 향상을 통해 과학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장학금으로 전환, vi)예측, 기술 평가 및 규범적(참여) 설계의 조합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예측 거버넌스 구조 구현.



## 세션 II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의 변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의 변화

2020. 5. 7.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LT: 외국어, 통상)



### 목차

1.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대응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변화
3.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산업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

# Ch. 1.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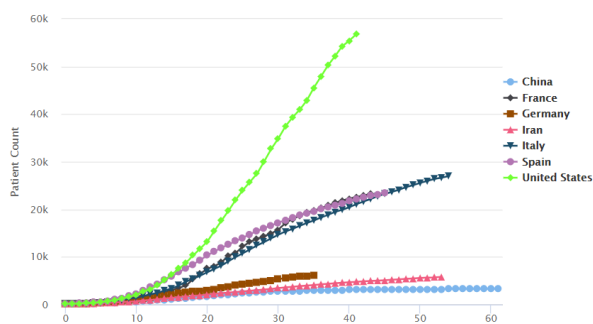
3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아시아, 유럽, 북미, 개발도상국 등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200여개 국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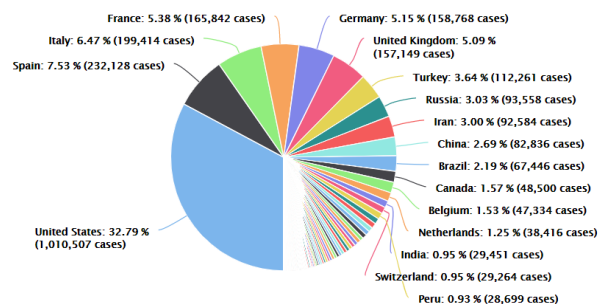
국가	누적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현재 확진자 수	심각단계	100만명 당 확진자 수	100만명 당 사망자 수	검사 수	100만명 당 검사 수
전세계	3,084,740	212,516	934,403	1,937,821	56,371	396	27.3		
미국	1,010,507	56,803	139,162	814,542	14,186	3,053	172	5,696,928	17,211
스페인	232,128	23,822	123,903	84,403	7,764	4,965	510	1,345,560	28,779
이탈리아	199,414	26,977	66,624	105,813	1,956	3,298	446	1,789,662	29,600
프랑스	165,842	23,293	45,513	97,036	4,608	2,541	357	463,662	7,103
독일	158,768	6,136	117,400	35,232	2,409	1,895	73	2,072,669	24,738
영국	157,149	21,092	N/A	135,713	1,559	2,315	311	719,910	10,605
터키	112,261	2,900	33,791	75,570	1,736	1,331	34	918,885	10,895
러시아	93,558	867	8,456	84,235	2,300	641	6	3,139,258	21,511
이란	92,584	5,877	72,439	14,268	2,983	1,102	70	442,590	5,269
중국	82,836	4,633	77,555	648	50	58	3		
브라질	67,446	4,603	31,142	31,701	8,318	317	22	339,552	1,597
캐나다	48,500	2,707	18,268	27,525	557	1,285	72	733,705	19,440
벨기에	47,334	7,331	10,943	29,060	876	4,084	633	220,204	19,000

Cumulative number of deaths, by number of days since 100 deaths



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0년 4월 28일까지

Distribution of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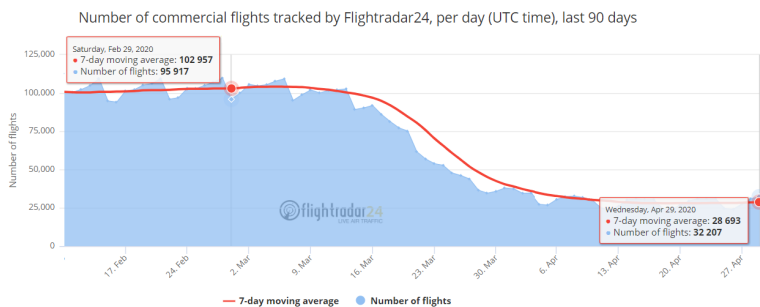
4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기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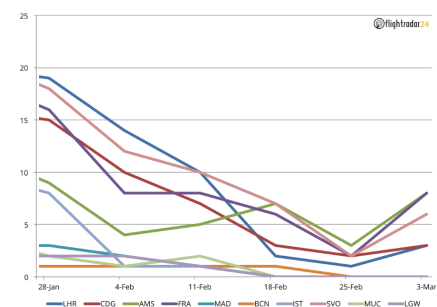
- 많은 국가들이 **입국제한**, **검역강화**, **국경통제** 조치를 단행
  - 중국은 우한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 단행
  -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66개국, 3.19일 기준)
  - 미국은 30일간 유럽발 입국금지 조치 실시(3.13)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생컨협정에 의거한 역내 자유이동을 통제하기 시작
- 한국은 90여개국 대상 비자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 항공운행의 전세계적인 극감현상 발생

항공기 운항 수의 변화



자료: <https://www.flightradar24.com/data/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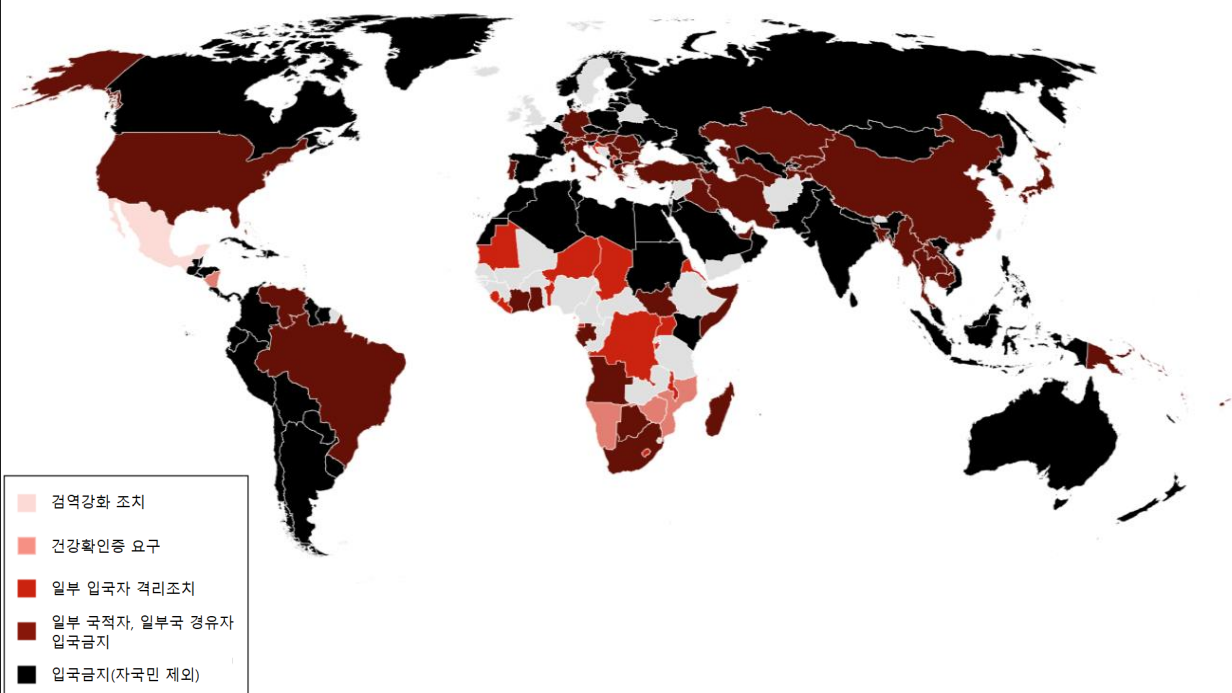
유럽발 중국행 항공운항 수



자료: <https://www.flightradar24.com> 데이터 클릭

5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여행제한 조치 현황 (2020. 3. 24 발표자료, I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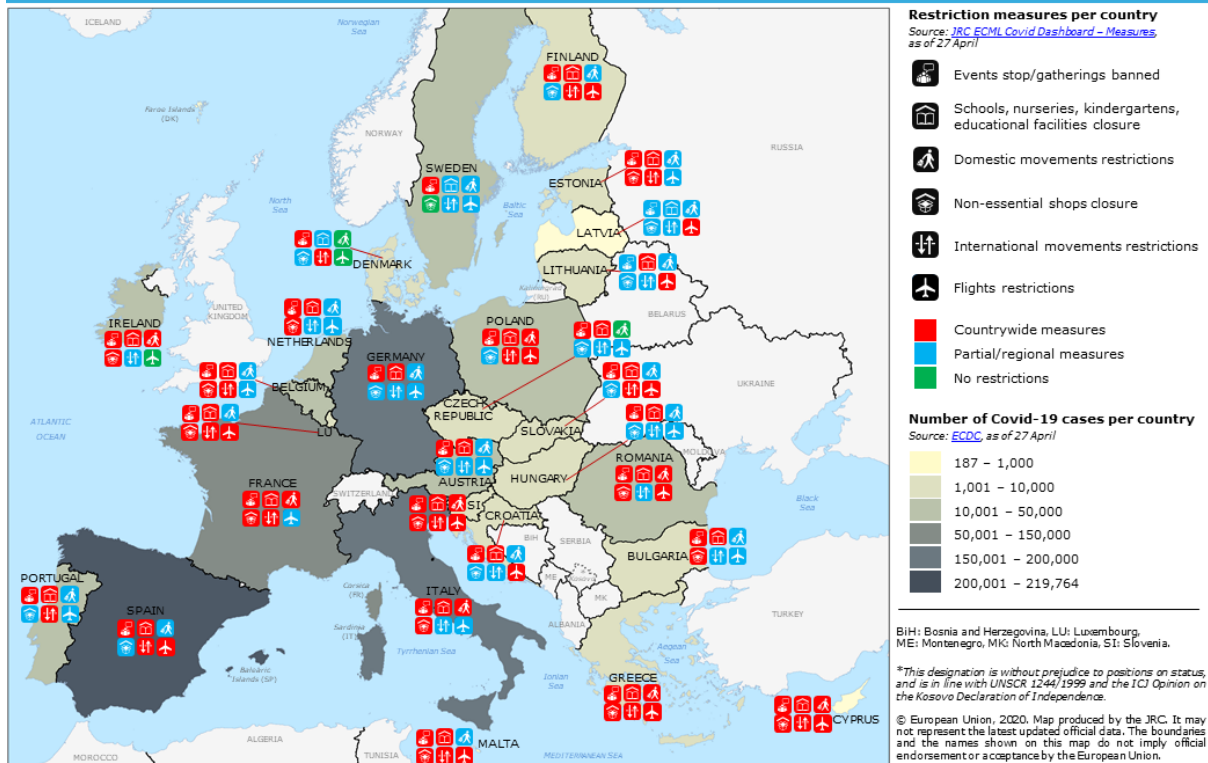
<https://www.iata.org/en/iata-repository/publications/economic-reports/third-impact-assessment/>

6

## EU 회원국의 국경통제 현황

JRC Map 27 April 2020 at 14.30 UTC

### European Union (EU 27) | COVID-19 restriction measures



[https://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health/coronavirus-response/travel-and-transportation-during-coronavirus-pandemic\\_en](https://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health/coronavirus-response/travel-and-transportation-during-coronavirus-pandemic_en)

7

## Ch. 2.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변화

8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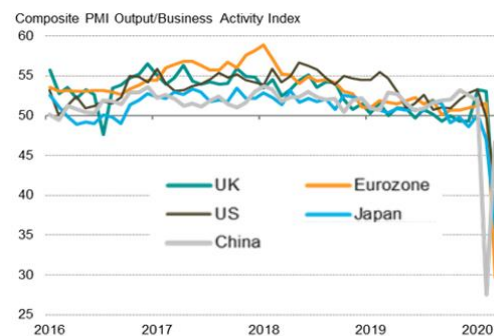
- 각국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수요감소**와 **고용충격**은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수요 충격**)
  - 중국, 유럽, 미국 등 **거대경제권에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통제가 불가능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
    - 서비스업 부진은 '고용상황 악화 → 가계소득 감소 → 소비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세계 경제에서 주요국의 위상

	미국	중국	EU	일본	합계
<b>GDP<sup>2)</sup></b>	<b>24.2</b> (15.2)	<b>15.7</b> (18.7)	<b>22.1</b> (16.3)	<b>5.9</b> (4.1)	<b>67.9</b> (54.3)
상품 수입 <sup>3)</sup>	13.3	10.9	13.4	3.8	41.3
서비스 수입 <sup>3)</sup>	10.4	9.0	15.5	3.7	38.6
관광지출 <sup>3)</sup>	11.8	17.6	28.7	1.8	60.0
제조업 수출 <sup>3)</sup>	7.8	17.4	13.7	4.8	43.7

자료: IMF, UN, World Bank; 한국은행(2020), 코로나 19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PMI 변화



자료: HIS Markit, CIPS, Jibun Bank, Caix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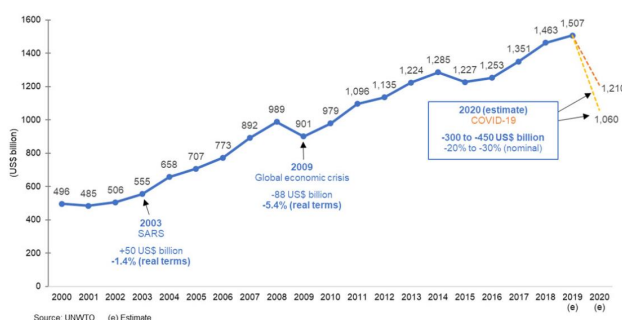
데이터 클릭

9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 코로나19 확산 억제조치와 불안심리의 고조로 **글로벌 인적교류가 크게 위축**
  - 중국, 유럽, 미국 등 확산국의 해외여행 감소로 세계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
    - 2020년 전년대비 최대 30%(4,500억 달러) 매출 감소 예상(UNTWO)
    -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큼
  -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취소로 인해 **전 세계 항공여객 수요가 크게 감소**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금년 중 항공여객수입이 전년대비 38% 감소 (2,520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

세계 관광수입 예상



Source: UNWTO (e) Estimate

자료: UNWTO. 데이터 클릭

세계 항공여객수입 예상

	변화율	변화액(10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37%	-88
북미	-27%	-50
유럽	-46%	-76
중동	-39%	-19
아프리카	-32%	-4
라틴아메리카	-41%	-15
전세계	-38%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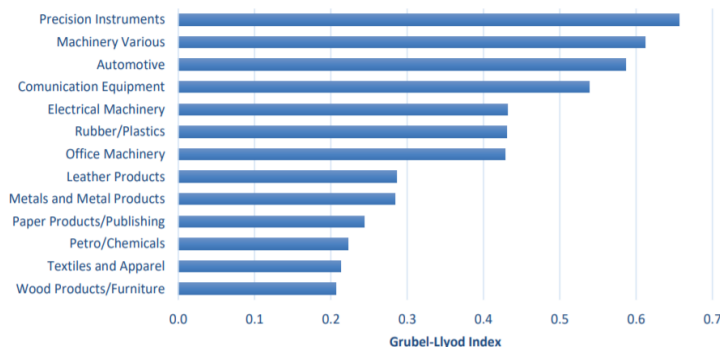
자료: IATA. 데이터 클릭

10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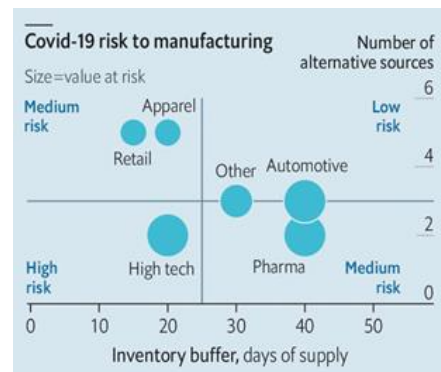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체계의 훼손에 따른 **공급 충격**
  -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중간재 수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의 피해가 불가피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지역별 중간재 공급자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주변국과 가치사슬 관계로 연결
    - **중국발 공급 충격이 글로벌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월부터 가시화**
  -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생산차질은 **GVC를 통해 세계로 파급**

중국의 산업별 GVC 편입 수준



자료: UNCTAD. 데이터 클릭

제조업에 미치는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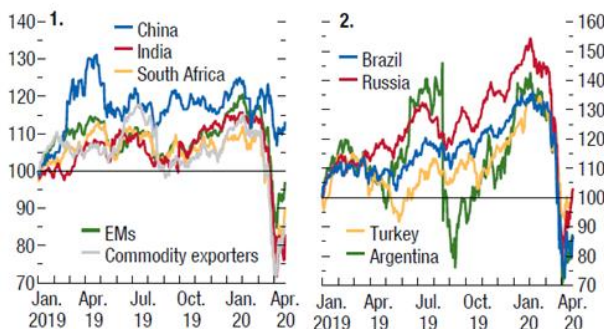
자료: Economist. 데이터 클릭

11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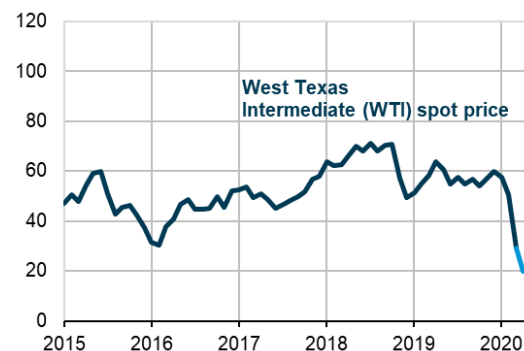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에 따라 신흥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소지가 증가
  - 주가폭락, 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 자금유출, 환율급등 문제
    - 신흥국의 자금유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를 크게 상회
    - **90여개 신흥국이 IMF에 지원요청**
  - 선진국의 수요감소, 이동의 자유 제한에 따른 FDI 감소, 부족한 재정여력,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능력 부재 등이 리스크 요인
  - 근래 최대의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발 리스크** 가능성

신흥경제의 주가변동 (2019.1.1=100)



자료: UNCTAD. 데이터 클릭

국제유가 변동



자료: <https://www.eia.gov/outlooks/steo/report/prices.php>

12

## 2020년 경제전망

-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가 될 전망 (IMF WEO,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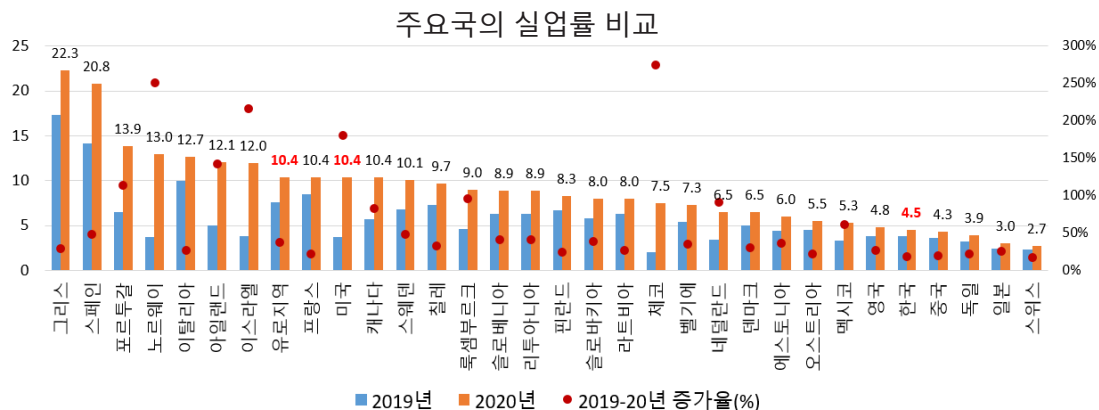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세계	3.9	4.3	3.5	3.5	3.6	3.5	3.4	3.8	2.9	-3.0	5.8
선진경제	1.7	1.7	1.2	1.4	2.1	2.3	1.7	2.5	1.7	-6.1	4.5
미국	1.7	1.6	2.2	1.8	2.5	2.9	1.6	2.4	2.3	-5.9	4.7
유로 지역	1.2	1.6	-0.9	-0.3	1.4	2.1	1.9	2.5	1.2	-7.5	4.7
독일	3.9	0.4	0.4	2.2	1.7	2.2	2.5	1.5	0.6	-7.0	5.2
프랑스	2.2	0.3	0.6	1.0	1.1	1.1	2.3	1.7	1.3	-7.2	4.5
이탈리아	0.6	-2.8	-1.7	0.1	0.9	1.1	1.7	0.9	0.3	-9.1	4.8
스페인	-1.0	-2.9	-1.7	1.4	3.6	3.2	3.0	2.6	2.0	-8.0	4.3
일본	0.6	-0.1	1.5	2.0	0.4	1.2	0.6	1.9	0.7	-5.2	3.0
영국	1.6	1.4	2	2.9	2.3	1.8	1.8	1.4	1.4	-6.5	4.0
캐나다	3.1	1.8	2.3	2.9	0.7	1.1	3.0	1.9	1.6	-6.2	4.2
기타 선진경제	2.8	3.0	2.0	2.4	2.9	2.1	2.1	2.7	1.7	-4.6	4.5
한국	3.7	2.4	3.2	3.2	2.8	2.9	3.2	2.7	2.0	-1.2	3.4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아시아	8.5	7.9	7	6.9	6.8	6.8	6.7	6.6	5.5	1.0	8.5
중국	9.5	7.9	7.8	7.3	6.9	6.7	6.8	6.6	6.1	1.2	9.2
인도	6.6	5.5	6.4	7.4	8.0	8.2	7.2	6.8	4.2	1.9	7.4
ASEAN-5							5.3	5.2	4.8	-0.6	7.8
유럽	4.4	5.8	3.0	3.1	1.9	0.8	1.8	3.9	2.1	-5.2	4.2
러시아	5.1	3.7	1.8	0.7	-2.3	0.3	1.6	2.3	1.3	-5.5	3.5
라틴아메리카-카리브	3.2	4.6	2.9	2.9	1.3	0.3	-0.6	1.2	0.1	-5.2	3.4
브라질	4.0	1.9	3.0	0.5	-3.6	-3.3	1.1	1.1	1.1	-5.3	2.9
멕시코	3.7	3.6	1.4	2.8	3.3	2.9	2.1	2.0	-0.1	-6.6	3.0
중동, 중앙아시아	5.3	4.6	4.9	3.0	3.1	2.6	5.0	2.3	1.2	-2.8	4.0
사우디아라비아	10.0	5.4	2.7	3.7	4.1	1.7	-0.7	2.4	0.3	-2.3	2.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9	5.3	4.7	5.2	5.1	3.1	1.4	3.0	3.1	-1.6	4.1
나이지리아	4.9	4.3	5.4	6.3	2.7	-1.6	0.8	1.9	2.2	-3.4	2.4
남아공	3.3	2.2	2.5	1.8	1.2	0.4	1.4	0.8	0.2	-5.8	4.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April 2000.

13

## 2020년 경제전망

-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IMF WEO, 4.14)
  - 미국의 실업률은 **3.7%→10.4%** 급증
    - 5주간 (4.23)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45만 건
    - 대체로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동보호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실업이 낮게 증가
    - 수요감소 외에 자택대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가 추가로 작용
-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공식(informal) 경제에 고용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 16억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3억 개의 full-time 일자리 소실 (ILO,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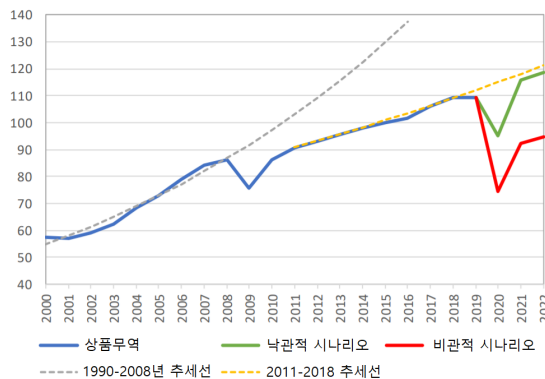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4 April 2000.

14

##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파로 2020년 **세계무역은 12.9~31.9% 감소**할 전망 (WTO 4.8)
  - 무역감소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때를 큰 폭으로 상회
  -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이 두 자리 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특히 **북미,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큰 타격
  - **GVC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불리**: (수출 중 외국産 중간재) 미국 10%, 중국 25%, 한국 >30%, 싱가포르 >40%,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50%
  - **서비스 무역의 경우 더 큰 타격이 발생** 가능(인적 이동 관련), 제조업과 연계

세계 상품무역 추이 전망



자료: WTO,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8 April. 2020.

	Historical		Optimistic scenario		Pessimistic scenario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b>Volume of world merchandise trade</b>	2.9	-0.1	-12.9	21.3	-31.9	24.0
<b>Exports</b>						
North America	3.8	1.0	-17.1	23.7	-40.9	19.3
South and Central America	0.1	-2.2	-12.9	18.6	-31.3	14.3
Europe	2.0	0.1	-12.2	20.5	-32.8	22.7
Asia	3.7	0.9	-13.5	24.9	-36.2	36.1
Other regions	0.7	-2.9	-8.0	8.6	-8.0	9.3
<b>Imports</b>						
North America	5.2	-0.4	-14.5	27.3	-33.8	29.5
South and Central America	5.3	-2.1	-22.2	23.2	-43.8	19.5
Europe	1.5	0.5	-10.3	19.9	-28.9	24.5
Asia	4.9	-0.6	-11.8	23.1	-31.5	25.1
Other regions	0.3	1.5	-10.0	13.6	-22.6	18.0

15

## Ch. 3.

#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산업통상 질서에 미치는 영향

16



##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

- GVC의 확산으로 공정 단위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제무역이 비약적으로 팽창**
  - 그 결과 선진국은 핵심 기술·제조,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에 특화하고, 신흥국은 중저기술의 제조업에 특화(선진국의 deindustrialization)
  - GVC 확산은 무역장벽 감소, 거래(운송) 및 통신비용 축소의 배경 하에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GVC의 확산이 전염병,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
  - 선진국이 겪고 있는 방역의료장비 부족사태는 무역특화의 부작용
  - 인적 이동 제한에 따라 거래비용의 급증
  - 넓게 퍼진 **GVC 중 한 곳의 작동이 멈출 경우, 전체 GVC가 작동에 차질** 발생
- **자국 내로 공정을 재편**하거나, **GVC의 유연화**, 지역 블록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제조업 기반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 혁신의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인식 전환
  - 리쇼어링 움직임이 촉진될 가능성 → 국내 일자리 증가, 비용 증가
  - 2~3차 벤더리스크에 대비한 **GVC 다각화, 유연화 전략 확대**
  - 국가 리스크의 재평가와 지역블록화에 따른 **Regional Value Chain의 형성** 가능성(NAFTA-USMCA, EU)

17

###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셋다운' 사례

	기업·해외공장	셋다운(일시폐쇄) 기간
자동차 생산	<b>현대차</b>	
	미국 앨라배마	3월18일~4월10일
	체코 노소비체	3월23일~4월13일
	브라질 상파울로	3월23일~4월9일
	터키 이즈미트	3월27일~4월12일
	인도 첸나이	3월23일~4월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3월30일~4월3일
	<b>기아차</b>	
	미국 조지아	3월30일~4월10일
	슬로바키아 질리나	3월23일~4월3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3월23일~4월14일
	멕시코 몬테레이	4월 6~8일, 4월13일 재개

<https://www.yna.co.kr/view/GYH20200402002500044>

스마트폰 ·TV 등 가전 생산	<b>삼성전자</b>	
	인도 첸나이·노이나	3월23일~4월14일
가전(TV·세탁기 등) 및 자동차 부품 생산	브라질 캄피나스·마나우스	3월30일~4월12일
	폴란드	4월6일~4월19일
	헝가리·슬로바키아	~4월1일
	러시아	3월30일~4월3일
배터리 (셀·팩)생산	<b>LG전자</b>	
	인도 노이다·푸네	3월25일~4월14일
	미국 테네시	3월30일~
	미국 디트로이트	3월20일~
철강 가공센터	브라질 마나우스·러시아 루자	3월 말~
	<b>LG화학</b>	
	삼성SDI	
	미국 미시간	3월25일~(3주간)
포스코	이탈리아(베로나 인근), 인도 델리·푸네,	
	필리핀 타나우,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b>현대제철</b>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터키 이즈미트, 브라질, 멕시코, 인도 (미국 앨라배마, 체코 노소비체, 슬로바키아 그벨라니는 부분 가동)	

이재윤 기자 / 2020040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N1

18

## 보호무역의 확산 가능성

- 지난 2~3년간 차츰 등장해온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부추길 소지**가 있음.
  - 극심한 경기침체 발생 시 일자리 보호,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등장
  - 방역·의료 부문에서 국제공조가 없을 경우 각국도생 방식 확산
  - GVC를 자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기업의 리쇼어링을 독려할 가능성
- **자유무역에 관한 일반의 지지 감소** 가능성
  - 자유무역의 확대는 소비자가 시장통합을 지지(낮은 가격, 선택 폭 확대)하고, 기업이 GVC 확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방식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리쇼어링이 신질서(New normal)로 정착될 경우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약화**
- **무역과 안보 문제가 결합될 가능성**
  - 위기상황에서 등장한 보호무역주의
    - EU의 의료물자 수출통제, 미국의 Buy American 강화와 국방물자생산법 발효
  - 식량 공급과 재고, 식량 안보에 불안할 경우,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국가 간 물량 확보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업분야에서 전개되어 온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협상 쟁점이 획기적으로 변화

19

## 중국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에 대한 전세계의 의존도를 깨닫게 되는 계기로 작용**
  - 전세계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2년 2%에서 현재 20%로 증가**
  - 중국이 글로벌 GVC에 편입된 정도 정밀기기와 기계류, 자동차, 통신장비, 전자기기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중간재 수출감소(2%↓) 시 타격은 EU(156억 달러), 미국(58억 달러), 일본(52억 달러), 한국(38억 달러), 대만(26억 달러), 싱가포르(22억 달러) 순서
-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GVC의 유연화, 다각화가 진행
  - 대중국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확대
    - 시장리스크(수요 관련), 가격 및 규제(공급 관련) → 원활한 공급 여부
  - 국가 차원의 통상정책과 기업 차원의 GVC 운영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제품 조달, ASEAN 생산 등으로 다각화**가 진행될 동인이 커짐.
-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책임공방을 놓고 미-중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무역보복조치가 확대될 조짐

20



## 중국의 중간재 수출감소(2%↓)가 글로벌가치사슬(GVC)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영향 (손실이 많은 국가 20개국, 백만 달러)

Country	Automotive	Communication Equipment	Electrical Machinery	Leather Products	Machinery Various	Metals and Metal Products	Office Machinery	Paper Products and Publishing	Chemicals	Precision Instruments	Rubber and Plastics	Textiles and Apparel	Wood Products and Furniture	TOTAL
Australia	9	1	1	0	12	9	1	2	9	12	1	1	2	61
Bangladesh	0	0	0	15	0	0	0	0	0	0	0	1	1	16
Belarus	0	1	0	0	3	0	0	0	0	1	1	3	2	12
Brazil	42	0	2	0	7	12	0	6	6	3	2	2	1	84
Cambodia	0	0	2	7	0	0	0	0	0	0	0	0	0	10
Canada	176	25	22	1	138	48	8	3	86	86	20	11	36	660
Costa Rica	0	2	2	0	0	0	0	0	0	10	1	0	0	15
European Union	2543	498	1191	56	4001	1171	60	188	2653	1427	515	538	757	15,597
Hong Kong, SAR	2	37	19	10	40	9	4	6	18	44	6	107	30	332
India	34	0	12	13	24	27	1	1	129	13	13	64	15	348
Indonesia	40	36	24	66	7	8	18	6	44	9	12	11	33	312
Israel	2	4	7	0	27	3	15	1	17	54	9	1	50	189
Japan	974	395	558	1	1477	343	234	48	352	367	161	34	244	5,187
Korea, Republic of	578	687	336	1	918	492	186	40	172	165	130	84	25	3,816
Malaysia	32	268	78	1	124	25	325	10	69	55	56	3	31	1,077
Mexico	493	71	341	1	228	23	58	2	16	57	26	2	52	1,369
Morocco	2	5	18	0	0	0	0	0	0	0	0	0	0	26
New Zealand	1	3	0	0	2	0	0	1	0	1	0	1	2	11
Norway	20	3	8	0	22	25	0	0	2	7	1	0	10	100
Pakistan	0	0	0	0	0	0	0	0	0	0	0	43	0	44
Philippines	22	115	42	1	17	2	77	0	7	17	1	0	1	300
Russian Federation	8	1	2	0	5	21	0	1	97	9	2	1	3	149
Saudi Arabia	0	0	0	0	1	0	0	1	37	0	0	0	0	40
Singapore	96	1027	367	4	206	30	157	16	77	160	21	1	3	2,165
South Africa	9	0	0	0	3	7	0	1	16	1	0	2	0	39
Switzerland	42	17	65	0	177	87	24	9	283	226	15	12	130	1,087
Taiwan Province of China	147	674	295	2	247	213	383	51	164	171	101	102	97	2,645
Thailand	91	99	85	4	104	27	51	12	100	30	105	16	8	733
Tunisia	5	2	27	0	1	0	1	0	0	0	0	0	0	38
Turkey	107	0	6	1	36	46	0	3	4	1	27	164	28	425
Ukraine	1	0	4	0	3	2	0	1	0	0	0	3	1	16
United Arab Emirates	1	0	2	0	1	4	0	2	4	2	0	0	0	16
United Kingdom	669	68	45	5	299	135	22	24	268	164	66	32	120	1,917
United States	845	391	396	13	1030	298	89	99	778	1236	255	80	269	5,779
Viet Nam	29	881	88	368	325	7	207	5	9	61	10	207	100	2,296

자료: UNCTAD, Global Trade Impact of the Coronavirus Epidemic, 4 March 2020., p. 7.

21

## 국제기구, 협의체의 역할

- 대응과정에서 **국제기구와 협의체의 주도적 모습이 부족**
  - 코로나19 사태 직후 대응과정에서 G20 국가들을 GDP의 5.8%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2008~09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시행(IMF, Fiscal Monitoring April 2020, p. 5)
  - 반면에 2008년의 경제위기 때 G20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졌던데 반해, 각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성격이 강함.
  - **United Nations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대국 중심의 리더십이 약화된 모습**
- **WTO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갈림길에 직면**
  - WTO 분쟁기구의 기능이 약화(Appellate Body)
  - [미국·EU·일본] vs. [중국] 간 산업보조금 관련 분쟁 가능성
    - 미-중국 무역갈등으 고조될 가능성 존재
- 국경간 파급효과가 강한 이슈의 경우 **국가 간 공조가 강화(good equilibrium)**되거나 오히려 **각자도생(bad equilibrium)** 현상이 나타나는 극단의 가능성이 존재

22

## 국제기구, 협의체의 역할

### ■ 국제공조의 필요성

- 자유무역 체제는 물적·인적 이동의 광범위한 확대에 기초하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취약
- 방역·의료 이슈를 국제통상의 틀 안에 포섭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규범화가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WTO 등 국제기구가 역할 가능
  - 신통상 분야의 일부로 포함시킬 필요
- 국가 간 공공보건 협력이 필요

23

##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 대한 재평가**
  - 시장을 통한 유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형 사회모델과 사회복지를 강조해온 유럽형 사회모델이 큰 도전에 봉착
  - 향후 Post-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복귀하는지 여부가 평가의 관건
  - 중국이 경제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에 따라 중국이 고수해온 국가주도의 성장 모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엇갈린 견해**
  - 국가 주도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보건외교의 성공 → 중국의 입지 강화
  -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패쇄성, 낙후된 공중보건 체계 부각 → 중국의 입지 약화
  - 중국경제가 지적되어 온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주목
    - 구조조정 문제, 높은 부채비율(특히 기업부문, GDP 대비 159%)

24





## 세션 II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 수출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손수득  
2020.5.7(목)**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ontents

---

**I.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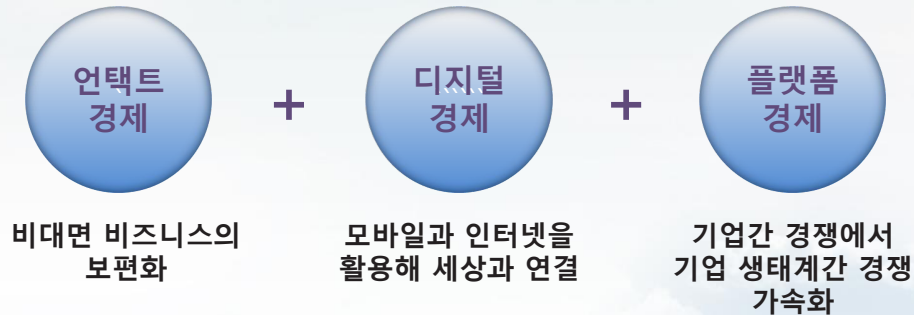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III.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I.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 1.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Covid CEO, CFO, CTO도 바꾸지 못한 10년을 3개월 만에 바꾸다”**



**방역 + 비즈니스 → 뉴노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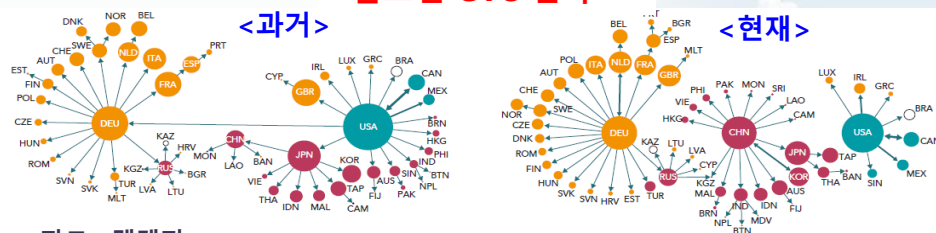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수 없다”*

## I.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 1.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 코로나19로 전세계 **GVC** 변화 본격화 (짧아지고, 넓어지는 GVC)
- GVC에서 탈피, **RVC** 더 나아가 **NVC**로 변화하려는 의지 뚜렷
- \* Nearshoring으로 멕시코를 주변으로 한 산업체인 비중 확대
- \*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NVC 구축에 총력
- \* 중국과 베트남 중심의 산업체인에서 다변화 및 Reshoring 추진

#### <글로벌 GVC 변화>



자료 : 맥켄지



## I.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 2. 유망 비즈니스 분야

“집콕 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지금, H.O.M.E 이 대세 ”

- **H**(Healthcare 헬스케어) 방역의 생활화와 개인 위생, 건강이 중요시되며, 가정용 소독기, 건강보조식품, 홈닥터 서비스 등 각광
- **O**(Online 온라인) 국가 락다운, 강제휴무령 등 이동의 제한으로 원격근무, 원격진료, 온라인 수업, 클라우드 등 온라인 산업 확대
- **M**(Manless 무인화)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O2O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 농업용 드론 등 무인화 사업 도입 가속화
- **E**(Economy at Home 홈코노미) 집콕 생활로 인한 간편식품, 원격PT 등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모바일 게임, 홈 엔터테인먼트 등 수요 급증

## I.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 3. 코로나19 소비 트렌드

SARS, MERS,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와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  
미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도 확대

Healthcare  
& Hygiene

Presence-  
Free

온라인 유통 매출 증가,  
재택근무 지원플랫폼  
및 장비수요 확대,  
온라인 O2O 취향 저격  
서비스 인기, 기존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강화

과시, 여가 목적의 소비  
와 내구재 구매는  
대폭 감소한 반면, 생활  
필수품 카테고리  
구매 비중 대폭 증가

Survival  
First

Great  
Indoors

집이 안전하게 각종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  
Home Improvement  
수요 증가

# I. 코로나19,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 4. 주요국·지역별 소비 특징



- ◉ 집콕 생활 장기화로 재택 근무 필수장비 소비 증가
- ◉ 요리, 집수리 등 DIY 더욱 활성화



- ◉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OTT 소비 증가
- ◉ 이동제한으로 미비했던 O2O서비스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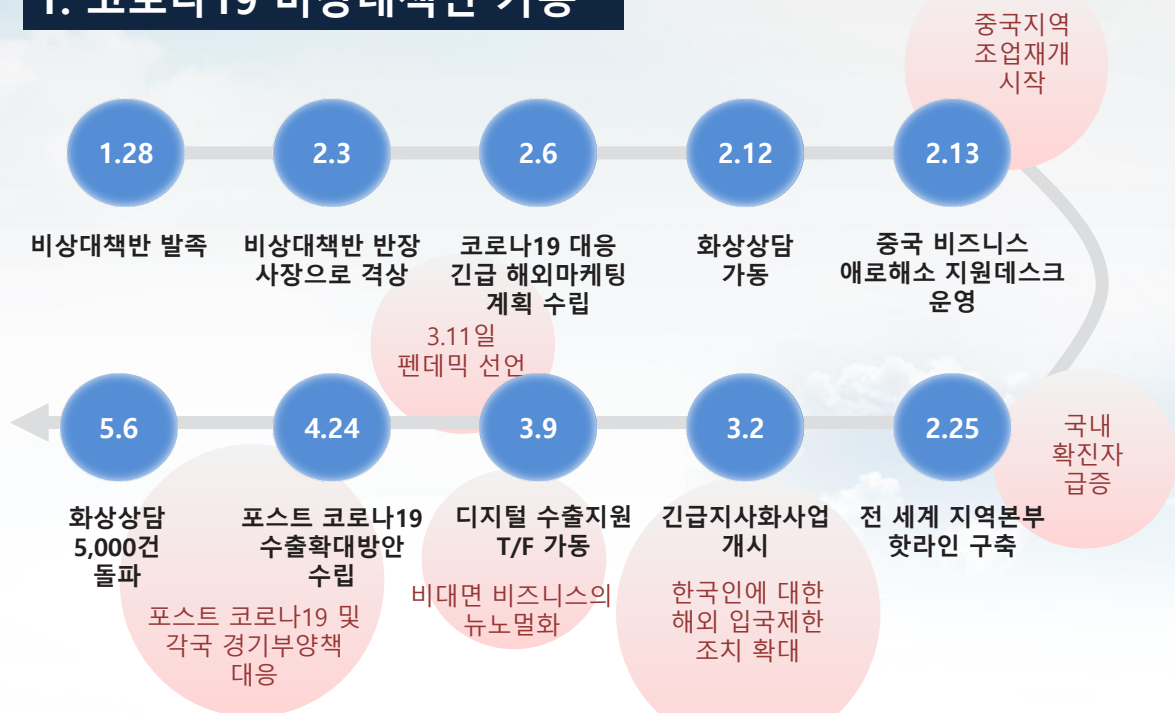
- ◉ 핀테크 발달로 온라인 및 모바일 소비 증가
- ◉ 드론, 무인삼, 병원로봇 등 무인화 가속화

- ◉ 개인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 전통시장, 슈퍼마켓보다 온라인마켓 이용 증가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1. 코로나19 비상대책반 가동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2. 코로나19 동향 전파

- ◇ 해외시장뉴스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최신경제동향 전파



\* 현재 약 300여건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뉴스 및 시장분석자료 게재

번호	제목	국가	무역관	게시일
300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2020-04-28
299	인도 정부의 '코로나 실적' 대응 노력	인도	뉴델리무역관	2020-04-28
298	1분기 中 경제,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0-04-28
297	파라과이 온라인 시장의 미래	파라과이	아순시온무역관	2020-04-28
296	중국, 홈트레이닝 열풍에 헬스용품 매출 급증	중국	선양무역관	2020-04-28
295	코로나19 글로벌 및 비즈니스 동향(4월 28일)			2020-04-28
294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2020-04-27
293	코로나19 글로벌 및 비즈니스 동향(4월 27일)			2020-04-27
292	코로나 19가 일본 중부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나고야무역관	2020-04-27
291	사회적 강제력 6주차! 코로나19가 페루 경제...	페루	리마무역관	2020-04-27
290	코로나19와 콜롬비아 소비자들의 구매 변화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2020-04-27
289	코로나19와 유가폭락으로 이종고 겪는 알제리...	알제리	알제무역관	2020-04-27
288	사회적 안전거리를 위해 클락으로 장보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2020-04-27
287	코로나 팬데믹 속 검사수요 폭증한 인도, 진단키...	인도	벵갈루루무역관	2020-04-24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3. 비대면 마케팅 방식 전환

**"블랙스완"과 같은 코로나19,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 ◇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 위주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면 전환

- 수출과 투자도 '언택트' 방식 도입

- ◇ 1대1 화상상담 집중

- 인터넷 기반, 온라인 사업 확대  
\* 아마존(미), 타오바오(중) 등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박람회
- 모바일 활용 사업으로 진화  
\* 인플루언서 판촉, 라이브 쇼핑, SNS마케팅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4.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 전방위 추진



화상  
상담

해외 바이어와의 대면 상담 불가능 > **화상상담 대폭 확대 지원**

- 바이어(사무실/재택) + KOTRA(통역) + 국내기업(사무실) 3자 화상회의 시스템
- 화상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자사·재택상담 병행 및 해외 시차를 고려하여 주야간(07:00~21:00) 상담 제공

kotra

KOTRA 사이버무역상담실  
실시간 통역지원

해외 바이어 자사 사무실/재택  
\* 희망시 KOTRA 해외무역관 방문 가능



국내기업 자사 사무실/재택  
\* 희망시 KOTRA 본사/지방무역관 방문 가능

지역별

한-러 산업·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  
(4.20~4.24)

(한) 32개사, (러) 23개사, (상담) 49건  
(성공사례) P사 러시아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V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협의 (**연간 605만 달러**)

품목별

글로벌의료기기플라자(GMEP)  
(3.31~4.3)

(한) 183개사, (해외) 175개사, (상담) 194건  
(성공사례) P사 영상기기 불가리아 최대 응급센터  
병원에 1~2차에 걸쳐 **23,200달러 계약 성사**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4.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 전방위 추진



온라인  
마케팅

이동통제 등으로 오프라인 소비 감소 >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촉 지원**

- Amazon US(미국), EU(유럽), Shopee(동남아), Qoo10 Japan ·라쿠텐(일본), 알리바바·타오바오(중) 등 유력 플랫폼과 연계, 입점 설명·상담회 개최
- 입점 후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대 지원

플랫폼 입점 지원



MADE IN KOREA

인플루언서 등 판촉 지원



(지원사례) 중국 왕홍(網紅,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마케팅(3.30~4.6)  
**B2C 판매액 519,887위안(약 88백만원)** 달성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4. 비대면 해외마케팅 사업 전방위 추진



#### 온라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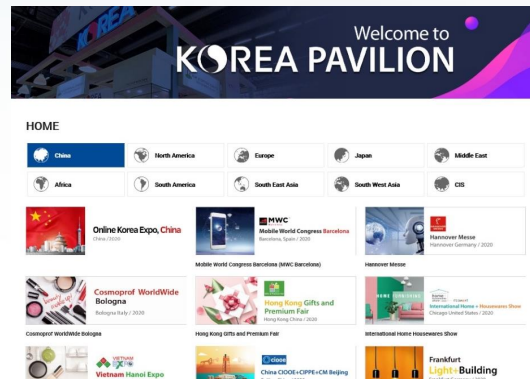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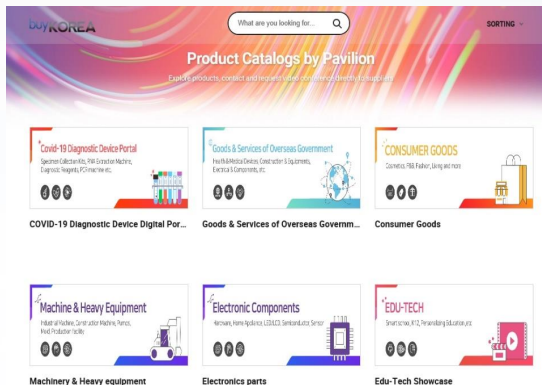
#### 해외전시회 취소 ▷ 온라인 전시회, 10대 유망품목 특별관 구축

- KOTRA Buy Korea 사이트를 통해 우리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 지원
- 취소된 해외전시회를 대체해 해당 전시회 참가 예정이었던 우리기업 대상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구성하고 바이어에게 홍보 및 화상상담 지원

#### 10대 산업별 특별관

buyKOREA

####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 긴급지사화

"대신 만나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바이어"

- 한국인 입국 제한 등 각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확대에 대면마케팅을 제한 받는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사업
- 대면 수행이 불가피한 해외 마케팅 업무에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해외마케팅 대행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입점 점검 등)

\* 56개국 77개 무역관에서 227개사 지원 중(4월말 기준)

#### (지원 사례①)

중국 바이어 입찰을 준비중이던 A사는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으로의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심사에 참석을 못하는 위기에 처함.  
KOTRA 긴급지사화를 신청해 중국 현지 무역관에서 자료를 구비하여 심사에 대참.  
경쟁자 일본 기업은 입국제한으로 심사에 참석하지 못해 우리 기업이 해당 발주 건 60만불 최초 납품 계약 수주

코로나19 특별대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지사화사업 20

### 긴급 지사화사업 모집 안내

단기 해외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한국인 입국금지 등 해외출장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 현지 대면(對面) 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를 KOTRA 무역관 전담직원이 긴급 대행해드립니다!

사업내용: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 시연 상담,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등  
사업기간: 3개월,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  
참가비: 75만원 (부가세 포함)  
신청가능 무역관: 베트남, 이스라엘 등 한국발 일국자 금지 제한  
시행 국가 소재 무역관  
※ 외교부 발표 기준 입국금지, 격리조치, 검역강화 시행 국가  
신청기간: 3.2(월)부터 모집 개시, 수시 접수 진행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에서 "긴급 지사화" 검색  
사업신청서(엑셀파일) 작성 후 moouuk@kotra.or.kr 해일 송부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02-3480-7425, 7438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 진출기업 애로해소

“ 방역용품 수급부터 조업 재개 지원까지 원스톱 처리 ”

- 중국 등 전세계 진출기업 대상 일일단위 애로 파악 및 해소 지원  
관계당국에 공유, 對현지정부 애로 해소 요청을 통한 지원 등

\* 해외 애로 총 174건 접수 (4월말 기준)

#### (지원 사례②)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제한조치에 따라 우리 진출(수출)기업의 필수 인력 출장 불가에 따른 다수의 애로 접수.

KOTRA는 베트남 현지 공관,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을 통해 베트남 입국 수요를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 추진

4.29일 국내기업 143개사 340명의 베트남 대규모 예외 입국 성공

#### (지원 사례③)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우리 진출기업의 조업재개를 승인하지 않는 애로 발생.

KOTRA 사장 명의의 협조서한을 각 지방정부 상무부(省), 상무청(市), CCPIT 등에 발송하고 협조요청 및 설득 진행.

조업 승인에 난항을 겪던 C사는 KOTRA 협조 서한 전달 후 상무청 부청장이 직접 실무 책임자에게 조속한 행정지원 및 애로 해결을 지시, 해당 지역 서비스 분야 외국 기업 중 가장 빨리 재개 승인을 받는 등 중국진출기업 다수의 신속한 조업재개 지원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5.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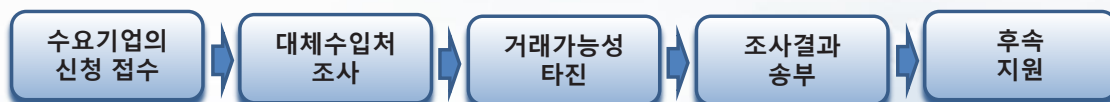
#### 대체 공급처 발굴

“ 해외 공급처가 조업중단?? 대체 공급처를 찾아 드려요 ”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에 따라 부품 및 원부자재 재고가 부족해진 기업에게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 19개사에 100개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프로세스>



#### (지원 사례④)

B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왔음.

코로나19로 중국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되자 공급이 지연되어 대체 공급처 발굴 필요

KOTRA는 해당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을 통해 공급처 조사를 개시하고 호치민 3개사, 다낭 1개사, 하노이 2개사 대체 가능 공급처를 발굴해 기업에게 제공. 기업은 중국 외에도 타국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가능해짐.

## II. 코로나19, KOTRA 대응현황

### 6. 방역물품 수급 지원



#### 마스크 및 원부자재(MB필터) 공급처 발굴 및 수입지원

- (MB필터) 국민 안전 확보 및 국내 마스크 제조사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목적으로 **마스크 핵심 원료인 해외 MB필터 공급처 발굴 및 수입 지원**

\* 해외무역관이 MB필터 샘플 확보해 본사에 송부 → 국내 마스크 제조사양 적합여부 테스트 → (통과시) 공급협상 및 구매대행처 연결 → 계약 및 물류 지원

\* 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 물량 계약으로 마스크 총 6,500만장 분량** 수입 지원

- (마스크)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내기업의 원활한 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해외 마스크 공급업체 조사 및 수입 지원**

\* 국내기업 16개사에 **기업 자체 소비용 중국 마스크 185,000장** 수입 지원



#### 마스크 기부 및 중국 진출기업 마스크 조달 지원

- (기부) 중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마스크 총 26만 9,000장** 등 방역물품을 기부 받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요 단체에 지원

- (진출기업 지원) 중국 진출기업 조업재개에 필요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 3국(인도네시아) 소재 무역관을 통해 수입 및 진출기업에 배포

\* 총 42개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게 **마스크 총 30,000장 배포** 지원

## III.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 8대 기회 요인별 4대 추진전략 >

- ◇ 10대 해외 주요지역 및 20대 수출대상국 **시장동향**(뉴노멀 수요)과 **경기부양책**을 토대로 **기회요인에 맞춰 4대 추진전략** 수립



### Ⅲ.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1.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강화

##### ◇ (홈코노미 시장공략)

- **글로벌 세계적인 온라인 구매 트렌드 변화**에 따라 SNS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인플루언서 판촉전, 라이브쇼핑 사업,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으로 접근
- **위생용품, 간편식, 건강식품, 완구 등 소비재, 특히 일용소비재** 등을 집중적으로 해외마케팅 필요
- 코로나19 확산 시, **디지털 마케팅**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고, 코로나19 종료 시, **전시회 및 상담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에 집중

KOTRA

(상반기) 해외지역별 온라인상품전, 산업별 온라인 박람회 등  
(하반기) 소비대전, 수출상담회, 소비재전시회 등

### Ⅲ.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1.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강화

##### ◇ (진단·방역)

-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공관 등과 협업, 국가별 정부기관, 의료기관, 유통상 등 수요처 집중 공략  
\* 수요 급증한 스마트 솔루션 분야 원격진단 및 재택근무, 재난관리(자가격리, 위치추적) 등 수출 유망
- 이후, 기 입증된 **K-방역의 우수성을 K-바이오로 연계**하기 위한 의료바이오 설명회·상담회 및 전략사절단 등 추진
-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등 신흥국은 **CSR/ODA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 수출 저변 확대

KOTRA

K-MEDICON 온라인 팝업스토어(호주), 메디컬코리아 보건사절단(중남미), 글로벌CSR, KOREA CARE(연중) E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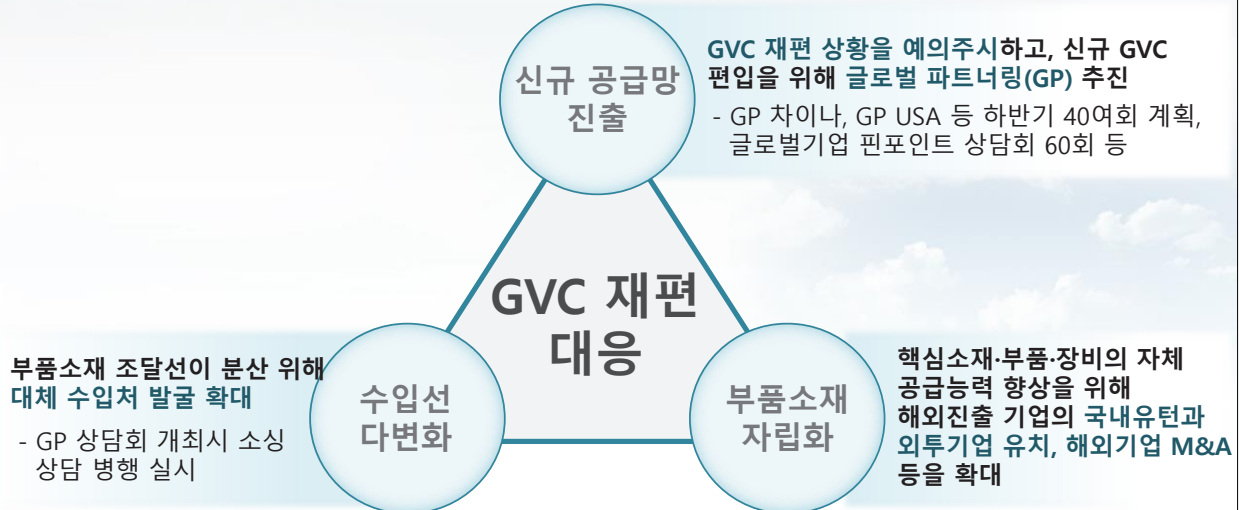
## Ⅲ.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2.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 대응

#### ◇ (GVC 재편)

- 코로나19 사태로 **GVC의 구조적 한계점**(집중된 의존도) 대두  
기존의 "효율성" 강조에서 "**효율성**"과 "**안정성**" 을 모두 고려

\* GVC 저비용국 공급망에서 품질·유연함을 갖춘 최적 비용국으로 이전 "**리쇼어링**" 가속화



## Ⅲ.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3. Team KOREA로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 확대

#### ◇ Team Korea로 **민관협업**을 통해 5G,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추진

- 각 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 발표**, 정책 가운데 다수가 "**SOC**" 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경기부양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역별 유망 프로젝트 분야>

지역	유망 프로젝트 분야	지역	유망 프로젝트 분야
중국	新SOC (5G, 스마트그리드, 고속철도 등 7분야)	일본	AU, IoT, 로봇, 부품소재 제조
동남아	철도/공항/항만, 전력에너지, 스마트시티, IT인프라	서남아	SOC, 철강, 도시개발, 통신망
북미	에너지	유럽	친환경 에너지, 5G, IT인프라, 바이오
OS	산업다각화(제조설비)	중남미	SOC, 에너지, 의료, 농축산
중동	산업다각화, 스마트시티, 의료	아프리카	산업다각화(제조설비), 도로/철도

**KOTRA** K-Global@실리콘밸리, 베트남 스마트시티로드쇼, 중동 스마트팜사절단 등

### Ⅲ. POST 코로나, 수출 확대 방안



#### 4. 산업육성책 수혜 분야 진출 지원

- ◇ 각국 경기부양책에서 비롯되는 **SOC투자, 소비진작정책, 4차산업, 의료·바이오, 제조설비** 등 **수혜 분야 집중 공략**
- ◇ 각국 정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KOTRA의 긴급지사화 및 현장컨설턴트 서비스 활용**하여 사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완화지역부터 시나리오별 비즈니스 추진**

KOTRA

국 내

해 외

산업별 개최일정 연계로  
국내 수출불업 효과 거양

<IT·4차산업>

Global Mobile Vision(9월)

<의료·바이오·서비스>

혁신서비스해외진출대전(9월)

<車·조선기자재부품>

Global Transpotech(11월)

공급선 다변화 위해  
신남방 등에서 개최 확대

<IT·4차산업>

K-스마트시티로드쇼(태국)

<의료·바이오·서비스>

의료산업 화상상담(동남아)

<SoC·에너지>

한-베 기술협력포럼(베트남)

감사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세션 II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를 대비하는 향후 과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KIET** 산업연구원

## 목 차

###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산업 부문 현황
- 산업 부문 전망

###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 수출지원
- 통상·외교
- 산업·기업지원
- 주요 과제

###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유망 기술·제품
- 주요 과제

# 목 차

##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산업 부문 현황
- 산업 부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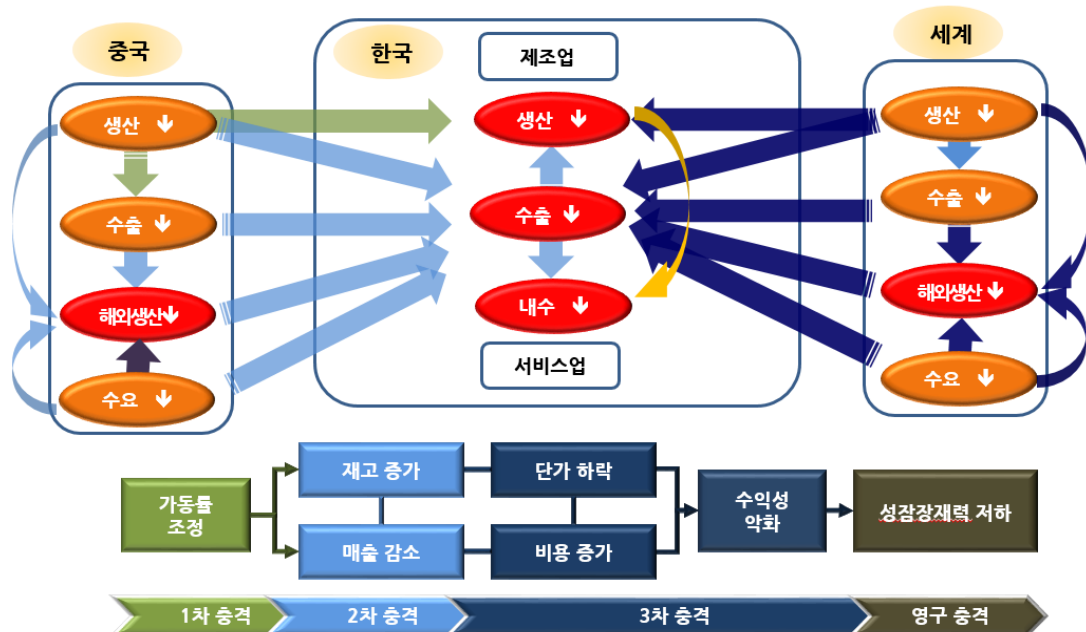
##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 코로나 19의 팬데믹화와 한국의 산업

◆ 부분적 생산·교역의 정체가 GVC를 통해 전세계로 파급·전이 → 충격의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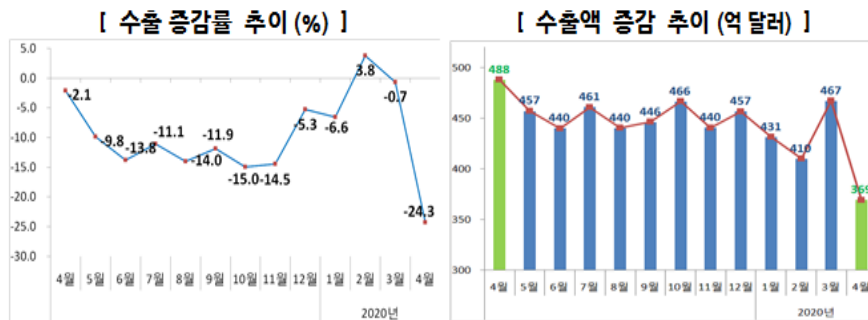




## 제조업 수출, 4월부터 급속하게 위축

### ◆ 4월 수출은 △24.3% 감소(369.2억달러), 수입 △15.9% 감소(378.7억달러)

- 美·EU 등 주요 시장의 수입수요 급감, 中 경기회복 지연, 유가 급락 등이 주요 요인
  - 공급 및 수요 동시 충격 : 자동차 △36.3%, 자동차부품 △49.6%
  - 수요 급락 : 철강△24.1%, 스마트폰 △43.6%
  - 국제 유가 급락 : 석유제품 △56.8%, 석유화학△33.6%
  - 품목별 수출 증가(%) : 석유제품(△52.9), 석유화학(△29.0), 선박(△38.6), 철강(△11.9)
- 비대면(Untact), 홈코노미(Home+Economy), K-방역 관련 품목 수출 호조
  - 비대면 (컴퓨터, SSD, 프린터), 홈코노미(화장지, 가공식품, 위생용품), K-방역(의료용품, 진단키트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0. 5. 1.

## [첨부] 코로나 19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 ◆ 중소기업,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주문 취소나 결제 지연 등 피해 가시화

- 수출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신규 주문감소·기존 수주물량 납품 연기(69.5%)
- 입국 금지조치에 따른 수출국 영업활동 제한(50.0%)
- 해외 전시회 취소로 수주 기회 축소(25.4%)

### ◆ 응답기업의 78.7%,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부터 수출 악화

- 응답 기업의 68.0%, 1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
-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2.7%

### ◆ 수출 교역 조건 악화 대응

- 대체시장 발굴 (32.7%)
- 기존거래처 관리강화(31.3%)
- 임금삭감·무급휴직 등 긴축 경영(29.3%)
- 온라인 등 비대면마케팅 강화(29.0%)

자료 : 코로나19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중소기업중앙회, 4. 29, 수출기업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 수출,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전반적인 감소 불가피

-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 수요감소, 가격 하락
- ◆ 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 대체생산 가능성으로 상쇄 기대

업종	단기	장기	요인
자동차	↓	↓↓	• 자영업, 관광업 등 침체에 따른 구입 지연 • 자동차 수요 감소 및 해외생산 중단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조선	↓↓	↓↓	• 해운 시장 악화, 기자재 수입과 인력이동 제한 • 고부가 품목 생산 및 인도지연
일반기계	↓	↓↓	• 수요 산업의 생산과 투자 위축(공작, 건설, 섬유기계 등)
철강	↓	↓↓	• 가격 하락, 프로젝트 및 수요 산업의 생산활동 부진
석유화학	↓↓	↓↓	• 수요 위축,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폭 확대 • 일부 의료용품 수요 증가
정유	↓	↓↓	• 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수출 금액 및 물량 감소 • 운송용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의 수요 위축
섬유	↓	↓↓	• 의류 구매 급감, 섬유소재 수출의 동반 둔화
가전	↓	↓	• 주요 수출국에서 수요 감소 • 건강가전, 온라인 판매로 일부 상쇄, 대체생산으로 가동률 상승
통신기기	↓	↓	• 스마트폰 수요 위축, 완제품 생산 축소 • 경쟁업체 생산차질과 스마트폰 출시지연에 따른 반사이익
반도체	↓	↓	• 기기용 수요는 감소하나 재고수요 증가, 단기 상승 • 비대면 사업 증가에 대응하는 서버, 데이터 센터 등 수요 증가
디스플레이	↓	↓↓	•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인한 패널 수요 감소, 가격하락
이차전지	-	↓	• 수요처인 전기차의 생산 감소 • 해외에서 국내산 물량의 수출 가능성 확대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1) 해당 산업에 대한 기존 2020년 전망(2019.12) 대비 변화

2) -영향 미미, ↓약간 감소(0~2%p), ↓다소 감소(-2~5%p), ↓크게 감소(-5%p~10%p), ↓↓↓(-10%p 이상)

6

## 생산, 조달 차질과 수요 급감으로 가동률 감소

- ◆ (국내)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감소 예상
- ◆ (해외) 해외 수요 감소와 인력이동 제한으로 현지 설비의 가동률 하락 예상
  - 미국, 중국 등에 진출한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해외 생산이 1차적으로 영향
  - 장기화로 해외 생산, 가공기지 비중이 높은 가전, 섬유, 반도체, 이차전지도 악화

산업	국내	해외	요인
자동차	↓↓	↓↓	•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 장기화 시 부품 조달 애로 • 현지 수요 감소에 따른 해외 생산 물량 감소
조선	↓↓	↓	• 건조일정 차질, 발주처 인수지체로 인한 인도지연 가능성 확대 •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 감소
일반기계	↓↓	↓	• 내수시장 위축 및 수출 하락, 인력이동 제한 • 중국 내 국내 기업의 기계생산 감소
철강	↓	↓	•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지 이전 가능성 확대 • 수출 및 내수 감소, 가격하락
석유화학	↓↓	↓↓	• 조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생산량 감소 제한적 • 국내외 수요부진, 재고 증가로 가동률 감소
정유	↓	-	• 정제마진 악화로 가동률 조정을 통한 감소로 대응
섬유	↓↓	↓	• 내수 및 수출의 급감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생산국에서의 경영 차질 심화
가전	↓	↓	• 해외공장과 물류차질로 국내 생산 대체 가능성 증가 •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내 생산 증가해 해외 생산 감소
통신기기	↓	↓	• 국내 공장 일시 가동중단으로 부품 수출 감소 • 중국업체를 통한 중저가폰 ODM 물량 축소
반도체	↓↓	↓	• 장기화시 장비, 소재 조달 차질 가능성 확대 • 인력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가동차질 발생 가능
디스플레이	↓	↓↓	• 수출감소와 주요 소재, 장비 등의 조달 차질 가능 • 중국 세트사 수요감소로 인한 가동률 하락
이차전지	↓↓	↓	• 내수 축소로 인한 국내 생산 위축 • 간헐적인 조업 중단 발생 가능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주 : 1) 해당 산업에 대한 기존 2020년 전망(2019.12) 대비 변화

2) -영향 미미, ↓약간 감소(0~2%p), ↓다소 감소(-2~5%p), ↓크게 감소(-5%p~10%p), ↓↓↓(-10%p 이상)

7



## 매출급감과 수요 감소로 유동성 위기 확대

### ◆ 수요 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 재고 및 운영 비용 등 증가로 주요 제조업 대부분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정유는 재고평가 손실로 인한 급격한 수익악화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디스플레이도 판매감소, 유동성 부족 및 제품가격 하락

코로나 19가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산업	단기	장기	요인
자동차	↓	↓	판매 감소, 물류 및 조달, 일정치 못한 작업 등 비용 증가
조선	↓	↓	운송비, 긴급작업의 증가로 소폭 악화
일반기계	↓	↓	영업비용 증가, 납기 미준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철강	↓	↓	재고 증가, 가동률 하락, 철강 가격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석유화학	↓	↓	제품 가격하락, 수요 감소, 재고 증가 등 운영 비용 발생
정유	↓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정제 마진 약세
섬유	↓	↓	수요부진에 따른 경쟁 심화, 재고 처분을 위한 가격 인하
가전	↓	↓	공정가동률 하락, 공급 비용 증가, 마케팅 채널 다변화 비용
통신기기	↓	↓	세계 시장수요 감소, 중국 ODM 축소분의 자체 생산 확대
반도체	-	-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서버용 수요 증가
디스플레이	↓	↓	수요 감소, 해외 OLED 공장 등 가동 개시 지연
이차전지	↓	↓	판매 감소와 더불어 재고 발생, 투자 지연 등의 비용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1) 해당 산업에 대한 기존 2020년 전망(2019.12) 대비 변화

2) 단기 시나리오는 코로나 19에 의한 영향이 한국 2분기-세계 3분기 안정, 장기 시나리오는 한국 3분기, 세계 4분기 안정을 가정.

2) -영향이 없거나 증가(0%p 이상), ↓약간 하락(0 ~ -2%p), ↓다소 하락(-2 ~ -5%p), ↓크게 하락(-5%p 이하)

## 글로벌 조달 차질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 ◆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산업의 조달에 의한 생산 차질은 제한적

-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은 일부 부분적인 통관·물류 차질 이외에 원활한 편
- 일본 수출규제시 기업들이 재고 수준을 높여, 상반기는 심각한 생산차질 가능성 낮음

### ◆ 장기적으로 사태 지속시, 공급망의 불안정성 상승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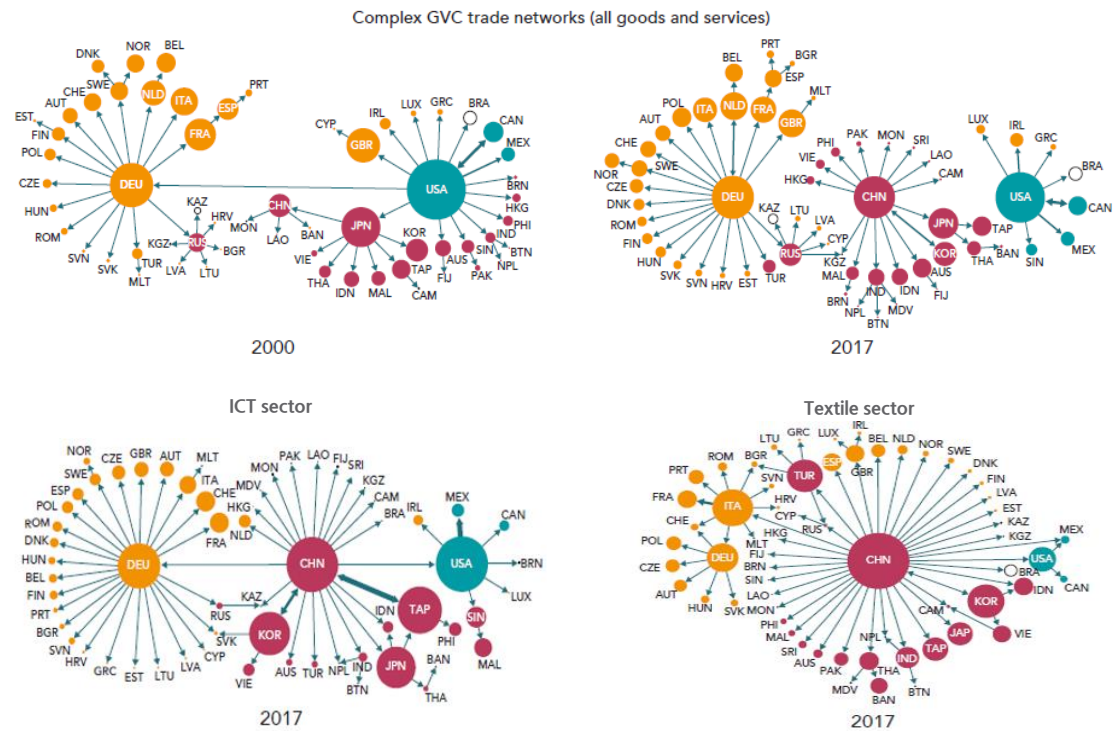
### ◆ 대내외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GVC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

산업	국내	미국	일본	중국	EU	중동	아세안	기타	주요 내용
자동차	5		2	1	1		1		• 해외의존도 낮지만(12%) 인젝터, 디젤엔진부품, 차량용 반도체 등 EU 의존도 높음
조선	4		2	2	2				• 국내 조달 비중 확대로 대체 가능 • 인력이동(인수 전환, 서비스 엔지니어) 제한에 따른 차질 우려
일반기계	4		2	1	1				• 해외의존도 낮지만(10% 미만) 인력이동 제한, 일부 제조장비 조달 차질 우려 (일본, 독일)
철강							5		• 원자재 수입선(호주, 브라질) 다변화 및 장기계약으로 조달 안정성 • 해상물류 차질 가능성
석유화학	2		2			5			• 원유 조달 리스크 낮지만 일본산 중간재(첨가제, 촉매제) 적시 조달에 차질 우려
정유		1				5			• 원유 과잉 공급으로 조달차질 가능성 낮음 • 유류별 가격 변동성 확대가 리스크 요인
섬유	4			2	1		1		• 한중 중립 조달 체계로 차질 발생 가능성 희박 • 아세안 출입국 통제, EU산 섬유 제조장비 수입 차질 발생 가능
가전	4	1	1	1	1		1		• 대체 부품 조달처 다변화, 순차적 변화로 부분적 영향 예상
통신기기	3	1	1	1	1		2	1	• 해외 거점 다변화(베트남)로 대체조달 가능 • 중국 조달 비중이 높은 수동부품 일시적으로 조달 차질 가능
반도체	3	2	2		1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재고수준 확대 • 수입처 다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디스플레이	3	1	2	1					• 엔지니어 인출국 문제로 국내외 적기 생산 차질
이차전지	4		2	4					• 중국산 원자재 조달 리스크 일부 해소 • 국산 장비 활용 생산 체계 구축

주 : 1) 녹색은 평시보다 영향이 없거나 양호, 황색은 다소 악화

2) 숫자는 한행 조달체계내 비중으로 1(10% 미만), 2(10%~25%), 3(26%~50%), 4(51%~75%), 5(76%~100%)로 구분

## [참고] GVC trade network (WTO, 2019)



10

KIET 산업연구원

## 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촉진 전망

- ◆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 회피하기 위한 공급망 변동 촉진 예상
  -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 인식
  - 공급원의 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서 새로운 프런티어로 부상
- ◆ GVC확장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인식하고 자국내 조달 및 생산기반의 중요성 부각
  - 전략 부문 공급망의 자립화와 자국내 산업생태계의 구축 필요성 강화

산업	현황	예상되는 변화 방향
자동차	일부 품목 중국의존도 높은 수준	• 동남아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 • 스마트제조 도입으로 국내 조달 확대
조선	유럽 및 일본 일부 납기 지연생산 중단	• 유럽 기자재 국내 유치 • 중국 블록공장 복귀
일반기계	국산 조달 비중 높은 수준	• 일부 조달 품목의 신흥국 다변화
철강	수입선 다변화 높은 수준	• 반제품·1차제품 수입선 다변화
석유화학	중동산 원료·일반산 중간재로 생산한 제품을 중국·아세안으로 수출	• 글로벌 시장의 지역별 블록화
정유	• 원유 조달국 집중 • 원유가격 변동성에 취약	• 탄력적 원유 조달 전략 추진 • 국가간 적수출 확대, 해외 인프라 구축
섬유	중국산 부자재 일부 조달 애로	• 중국 영향력 강화에 대응
가전	안정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조립 공정의 자동화·스마트제조화 촉진
통신기기	생산부품 공급 다변화 높은 수준	• 중국 ODM 축소분의 국내·베트남 대체 생산
디스플레이	베트남 투자 확대	• 모듈 공정 중국 비중 감소, 베트남 확대 가속화
이차전지	주요 소재 중국·일본 수입	• 해외 현지생산·납품 비중 증가 • 후방산업 해외 동반진출

11

# 목 차

##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 수출지원
- 통상·외교
- 산업·기업지원
- 주요 과제

##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 코로나 19 대응 정책

- ◆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20.2.7)
-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20)
  - 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 산업R&D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20.3.2)
- ◆ 코로나19 위축 국내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20.3.5)
- ◆ 수출활력 제고방안('20. 4.8)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 무역금융, 비대면 수출 전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 신수출기회 확보
-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20.4.22)
  -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40조원)
  - 유동성 부족기업 :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등

## 수출지원 / 수출활력 제고

### ◆ 수출 기반 유지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납품계약기반 보증, 해외법인 자금 보증
- 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단기 수출보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 ◆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20.4)

- 대출만기 연장, P-CBO 등 (신보, 산은, 수은 등)

### ◆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민간 매칭자금의 완화
-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허용
- 기술료 납부기간 유예 및 감면

## 통상·외교 분야

### ◆ 수출입물류 원활화 대응 국제공조

- 반도체 등 주요 제품, 방역제품
  -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협조
  - 무역협회, 코트라, 항공협회, 선주협회, 국제물류협회, 통합물류협회 등
- 유휴 여객기 활용 긴급 항공화물 운송 (4.29)
  - 중국(충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 전세기 이용 수출입비용 지원
  - 운임의 75%, 운항차액 무역진흥자금 활용

### ◆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해외 이동 및 입국절차 간소화

- 베트남, 대.중견.중소기업 필수인력 특별 입국 (플랜트 건설, 공장 증설.운영 등)
- 비즈니스 교류/기업인 입국 허용/조업 허가대상 확대 요청 (필리핀 4.27, 말련 4.20)
- 중국, 신속통로신설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 산업부-외교부-복지부-대사관-민간 유관기관

### ◆ 통상협상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필리핀 FTA

## 디지털 통상 분야

### ◆ 온라인 마케팅 지원

- 무역관과 글로벌기업·현지 협단체의 협업을 통한 유력바이어 선별 매칭
- 중소기업·중견기업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화장품, 의료기기, IT, 조선기자재, 전력부품 등)
- 소부장 품목에 대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샘플배송 및 AR·VR을 활용한 국내공장 실사 등 맞춤형 지원
- 온라인 사전조율-오프라인 심층상담
- 코트라 등 공공기관 활용하는 진출·수출기업에 대한 밀착지원

### ◆ 디지털 통상 지원

- 디지털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
-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가속화

### ◆ 공공 데이터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16

KIET 산업연구원

## 산업·기업 지원

### ◆ 수시회의

- 수출상황현장점검회의, 수출업계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실물경제영향점검회의

### ◆ 긴급 업계간담회

- 생산 및 수출활동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조선, 자동차, 정유, 섬유 등)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납부 3개월 유예(9천억원 규모), 석유공사 비축시설을 석유업계에 임대

### ◆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추진

- 유턴 유치 및 지원 위한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 (4.28)

### ◆ 국내수요 창출 관련 정책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3.23~ )

### ◆ 유망산업 지원

- 우수 로봇기업 저금리 대출지원 (코로나 19 피해기업 우선 지원)
- 신 수출기회 7대 상품군 지원 강화
  - ①의료용품, ②위생용품, ③건강식품, ④홈쿠킹, ⑤홈뷰티, ⑥청정가전, ⑦디지털장비
- 언택트 산업, 홈코노미, K방역 산업의 新수출성장동력화
  - 5G 인프라,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가공식품, 세정제 등

17

KIET 산업연구원

## 정책 관련 주요 과제 (단기)

### ◆ 제반 세제혜택 및 유동성 확대에서 정책지원의 적기성과 실효성 제고

- 대출 연장, 세금감면·납부 유예 및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 ◆ 수요위축을 보완하는 내수창출로 국내 생산기반 보존

- 자동차·가전, 조선·기계 등 기간 산업에 대한 내수 확대 조치
- 공공조달 확대, 대형 산업 인프라 투자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가동불안정 및 추후 주요국 경기부양에 대비

### ◆ 글로벌 이동성 복원과 국제 협력으로 원활한 수출입 활동 지원

- 소재부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수출 지체 해소
- 국내외 검역 대기시간 단축 및 신속한 통관절차 지원
- 주요국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간 긴밀한 협력

## 정책 관련 주요 과제 (중장기)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산업·기술의 발굴과 육성

-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 비대면 산업, 의료서비스 기반 확대
- 질서있는 구조조정, 중장기적 방향성 기반

### ◆ 국내 산업생태계의 강건성과 복원력 제고

- 산업지능화, 스마트 제조 전환
- 기업 투자 지원, 혁신적 인적자원 확보
- 산업지능화와 연계된 주요 산업의 국내 공급역량 제고

### ◆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전략적 대응

- 새로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주요국들과 관계를 재정립
  - 신남방정책의 조기추진, 전략적 국제협력
  - 신보호주의 대응, K-브랜드의 적극 활용
- 공급망 글로벌화의 위험성 제어
  - 핵심 부품, 기자재의 라이선스 생산, 기업 유치
  -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참고] 주요 산업정책

- ◆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18.12)
-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
  - 신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업종별·기능별 대책
- ◆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계획('20.2)

주력산업	신산업	무역·투자	산업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18.12)</li> <li>• 자동차부품('18.12)</li> <li>• 공가산업('19.3)</li> <li>• 동대문패션('19.4)</li> <li>• 조선('18.11, '19.4)</li> <li>•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li> <li>• 섬유패션('19.6)</li> <li>• 소재부품장비('19.8)</li> <li>• 코로나19대응 자동차부품 공급안정화 대책('20.2)</li> <li>• 2020 업무계획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로드맵('19.1)</li> <li>• 로봇('19.3)</li> <li>• 재생에너지('19.4)</li> <li>• 시스템반도체('19.4)</li> <li>• 바이오헬스('19.5)</li> <li>• 미래차('19.10)</li> <li>• 수소안전관리('19.12)</li> <li>• 수소경제법 제정('2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시장구조('19.9)</li> <li>• 디지털무역('19.10)</li> <li>• 수출상황점검대응('20.2)</li> <li>•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2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선점('19.6)</li> <li>• 기술훈련정책('19.8)</li> <li>• 스마트산업('19.9)</li> <li>• 디자인('19.9)</li> <li>• 산업대개조('19.11)</li> <li>• 지식재산('19.11)</li> <li>• 국가IA('19.12)</li> <li>• 인재양성('19.12)</li> <li>•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20.1)</li> <li>• 집단에너지 기본계획('20.2)</li> <li>• 중견기업 기본계획('20.2)</li> </ul>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0. 4. 7.

## 목 차

### 1.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과 전망

### 2. 코로나 19 대응 산업 부문 주요 정책

### 3. 산업기술 변화 대응 향후 과제

-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유망 기술·제품
- 주요 과제



##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 (코로나바이러스 트렌드 보고서, 매리 미커)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모든 비즈니스가 비대면으로 전환
  - '줌' 회의 참석자 : 1천만(20.1) ⇒ 2억명 ('20.4)
  - MS '팀즈' 일일 활성 사용자 4,400만 돌파
  - '슬랙' 유료 가입자 2배 증가('20.1/4)
- 디지털 수업, 비대면 구매(배달앱, 가정식, DT), 클라우드 기반 제품·서비스

### ◆ 온디맨드 비즈니스, 새로운 규범으로 부상

- 플랫폼 서비스, Gig 노동자 확대 (물류, 전자상거래, 운송)
  - Instacart 30만명, Amazon 17.5만명 신규 채용

###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촉진

- 원격진료, 웨어러블 장비, 진단 장비,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AI 적용

### ◆ 재택근무 확산으로 워라벨 재정립

- 분산형 업무 시스템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방식, 출퇴근, 여가 생활)

### ◆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 행정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 스포츠의 e스포츠화

- eNASCAR, Virtual Grand Prix race...

22

KIET 산업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KISTEP, 2020.4)

###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변화

글로벌 환경변화 전망	국내 환경변화	주요 환경변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관련 규제 완화		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가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로 전환
의료시스템의 변화		② 바이오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 바이오헬스 시장 활성화
위험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사회		③ 위험대응 일상화 - 전염병 창궐 등 X-Event, 블랙스완 등으로 불리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발생
세계 경제질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사회 일상화로 인한 국내 라이프 스타일 변화</li> <li>•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내 자원 및 경험의 중요성 증가</li> <li>• 국내 밸류 체인의 해외 의존성 탈피를 통한 자립화 강조</li> <li>• 코로나로 인한 정부역할 확대 및 정부 신뢰도 증가</li> </ul>	④ 자국중심주의 강화 -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적 대응전략 수행

23

KIET 산업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KISTEP, 2020.4)

영역	유망 기술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 기술	감염병 확산 예측·조기경보기술
	RNA 바이러스 대항 백신기술	
교육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현실기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기술	온라인 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기술
교통	감염의심자 이송용 자율주행차	개인 맞춤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통합교통서비스(MaaS)	
물류	ICT기반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 기술	
제조	디지털트윈	인간증강기술
	협동로봇	
환경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관리기술
문화	딥페이크 탐지기술	드론 기반의 GIS 구축 및 3D 영상화 기술
정보보안	화상회의 보안성 확보기술	양자암호 기반의 화상보안통신기술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	

24

KIET 산업연구원

## 코로나 19 이후 주요 제품군의 변화 방향

- ◆ 비대면 관련 제품, 건강, 가정용 제품,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수요 확대
  - 디지털콘텐츠, AI, 서버, 정보처리, 정보보안 관련 부품·장비 유망
  -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 기대
- ◆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기존 주력 제품군의 수요둔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제품 수요 구조의 변화, 대량물류 및 유통 부문의 침체
  - 기존 생산-수요 방식의 변화에 의한 부품·장비 수요 부진 예상

구분	주요 제품
유망제품군	자동차(클린 모빌리티), 조선(스마트선박 솔루션), 기계(반도체 제조용 기계, 원격관리시스템 통신장비)
	항공 소재(철강, 화학, 세라믹), 의료용 소재, 섬유(마스크·진단 키트용 섬유 소재, 의료·산업·안전보호용 방호복 소재)
	건강·스마트 가전, 5G 및 차세대 무선통신장비, 반도체(DDR5 D램, HBM 3세대 모델),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EV용 이차전지
위험제품군	자동차(소형상용차, 상용차 전용부품), 조선(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기계(건설기계, 공작기계)
	철강(강관, 선재), 화학(건축용 자재), 정유(휘발유, 경유, 항공유), 섬유(의류, 직·편물, 표백·염색·가공제품)

자료 : 산업연구원, 2020. 4.

25

KIET 산업연구원

## 주요 과제

### ◆ 신제조업으로의 전환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적극적 기회로 활용
  - 중장기 산업발전 목표와 경로에 기반 (제조업 르네상스, '19.6)
  - 산업지능화 연계 주요 산업의 국내 공급기반 강화
    - 5G 통신설치, 로봇, 3D 프린팅,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
  - 스마트 제조로의 이행을 위한 지능정보인프라 확충
    - 스마트 산단, 외자유치, 리쇼어링

### ◆ 국제 경쟁우위의 확보

- 유지·보존 ⇒ 혁신역량 제고에 주력
  - 기업지원은 비전과 투자 촉진 인센티브로 활용
  - 신산업투자·디지털전환 투자 지원 확대
-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의 모색과 확보
  - R&D의 사업화 촉진
    - 정부 : 투자위촉·R&D Sollim 지양, 정출연 역할 강화
    - 민간 : 투자유인 제공(기업연구소, 인력, 교육)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실업수당 ⇒ 교육수당)

## 주요 과제

### ◆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 국내 산업생태계의 복원과 강건화
  - 바이오 : 시약, 부품 등의 공급역량 확보
  - 센서, IoT, 핵심 소재부품장비
  - 콘텐츠, 통신, 인증, 암호화, 빅데이터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접근
  - 일자리 창출 가능한 재정지출

### ◆ 데이터 활용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설계

- 바이오헬스, ICT : 정보보안, 정보분석, 개인맞춤형...
  - ICT 비대면 사업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애플리케이션의 BM 창출
  - 바이오 헬스 비대면 사업 : 원격진료 활성화 기반 구축이 관건
-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과 보안의 관리
  - 국가지원금 : 카드 형태로 발급, 데이터 축적의 기회로 활용

## [참고] 제조업 르네상스 : 4대 추진전략 (1/2)

### 1 스마트화 · 친환경화 ·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 스마트산단 + AI 기반 업종 특화 산업지능화
- **친환경화** :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 → 친환경시장 선도국가 도약
- **융복합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

### 2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 제조업의 허리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
- **산업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
- 지속적인 세계 **일류기업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

## [참고] 제조업 르네상스 : 4대 추진전략 (2/2)

### 3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사람** :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 **기술** : 도전, 속도, 축적이 가능토록 R&D 체계 혁신
- **금융** : 혁신제조기업의 도전,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 구축

### 4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창출**, **대규모 실증** 확대
-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감사합니다**

## 세션 II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코로나19 이후 국정방향 정책토론회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요지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

- ☐ (강유덕 교수님 발표자료)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 그리고 그 이후 코로나19가 국제 산업통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국제 산업통상질서의 변화를 i)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ii) 보호무역의 확산 가능성, iii) 중국 리스크, iv) 국제 협의체의 역할 등의 언급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 (손수득 본부장님 발표자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OTRA의 활약과 이후 추진해 나가야 해외 마케팅 전략을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함.
  - 특히 Post 코로나19 해외 마케팅 추진 방향으로 i) 홈코노미, 진단 및 방역 등 수요증가 품목 타겟 마케팅, ii)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능동적 대처, iii) 주요국의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 확대, iv) 주요국 산업육성정책 수혜분야 진출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 (정은미 본부장님 발표자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 정부의 대응 주요 정책,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산업기술의 변화에 기초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를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함.
  - 특히 향후 예상되는 변화의 방향을 i) 디지털 전환 가속화, ii) 온라인수요 확대, iii)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iv) 재택근무 확산과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 등으로 정리하고 주요 과제로 신제조업으로의 전환, 국제 경쟁우위 확보, 신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등에 대한 언급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코로나19 이후 산업통상분야에서의 국제 질서의 변화에 관해 우리가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할 요소

### □ (코로나19는 기존 글로벌 산업통상질서의 진화(evolution)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

○ 국제 산업통상질서는 코로나 19와 관계없이 이미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음.

- ① 산업 생태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ITC 및 디지털 중심의 산업으로의 전환
- ② 국제무역의 변화: 상품무역 중심에서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변화
- ③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임금 중심에서 기술 및 지식 중심으로 진화
- ④ 통상질서의 변화: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고착화

○ 코로나 19는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trigger 역할을 한 것이며 기존 변화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님.

- 다만 기존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에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 부분은 존재(예: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 재인식,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 healthcare and its equipments의 중요성 등)

○ 따라서 기존의 글로벌 산업통상질서 변화의 방향을 재 조망하는 것이 중요

### □ 최근의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갈등 및 대립(conflict & confrontation) 으로 요약 가능

○ 다양한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는 물론 수요 위축으로 향후 글로벌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

- \* i) 미-중간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 ii)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모호, iii)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iv) 급격한 기술 혁명, v)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

○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확산·심화되고 있음.

-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는 자국(이익) 중심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국내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한 일방적 보호주의와 무역 갈등으로 표출됨으로써 글로벌 갈등(대립) 구조를 양산
- 대내적으로도 세대간 갈등(old vs new generation), 소득 계층간 갈등(poor vs rich), 이념의 갈등(진보 vs 보수)이 표출되고 있음.

○ 갈등과 대립이 다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성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 다른 한편 불확실성과 갈등 및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재추진될 수도 있으나, 글로벌 보다 복수국간(특히 like-minded countries) 협력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복원(resilience)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전’의 의미가 큼.

○ 불확실성과 갈등과 대립 등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나, 현재의 갈등구조를 감안할 때 세계적인 글로벌 협력보다는 마음이 맞는 국가들끼리의 복수국간협력 가능성이 더욱 큼.

\* 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협력그룹과 중국 중심의 협력그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날 ‘복원(resilience)’은 단순히 문제 발생 이전으로 복원(bounce back)이 아닌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위한 중간 기착지로의 이동(bounce forward)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WTO 다자통상체제는 향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전망(WTO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WTO 3.0 필요성)

□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산업통상 분야 대응은 글로벌 산업통상질서가 불확실성과 갈등(및 대립)의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GVC 재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GVC 진화(evolution) 과정에서 ① 북미권 ② EU권, ③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권으로 분화 내지 지역화 경향이 예상되나, 어떠한 지역 GVC도 고부가가치 기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개발 및 관련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 새로운 GVC 설계에서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

- COVID 19 이후 GVC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과도한 생산의존은 위험을 고려 조정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GVC 설계에서는 supply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생산 의존도를 줄일 필요는 있으나 동시에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supply chain을 재구성할 필요.

\* 따라서 단순히 중국에서 동남아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은 향후 중국 소비시장 진입시 중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을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수도

□ 기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부분

○ COVID 19 직후 나타난 일시 수요증가 품목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문제가 될 수도

- 예를 들어 Healthcare,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일시 급증한 이후 향후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투자는 1~2년을 보고 할 수 없음). 이 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바이오(Bio)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
- 한편 COVID 19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선진국의 건강보험체제의 개혁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바이오시밀러의 체계적 육성도 필요**

○ COVID 19 이후 기후 변화 및 환경 생태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 세계적인 일시적 경제활동 중단으로 기후변화, 환경 및 생태보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더욱 커지고 환경 및 생태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 환경보전, 친환경 에너지 등에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필요

\*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협상이나 환경상품협상을 주도할 필요

○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에 사전 대처

- COVID 19 대응과정에서 향후 필수적인 고용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고용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것이 기술혁명과 맞물리면서 향후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감소하는 부분의 구조적 고용불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웃 국가와 함께 커 나가는 **글로벌 포용적 성장**은 지속되어야

- de-globalization이 대두된다고 해도 디지털 경제에서 지구상 어느 국가, 국민과도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의 특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어느 한 국가만의 나홀로 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견제를 받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포용적 성장전략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드러나는 과도한 상품무역수지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경상수지를 관리할 필요

##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



## 코로나 이후 산업통상분야의 대응과 과제

제현정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

### **코로나 사태와 세계화의 취약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터넷과 글로벌 공급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가간 무역과 투자는 이러한 세계화와 상호작용하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국경의 문턱이 낮을수록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기 마련인데 질병의 확산은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개입과 국경의 장벽을 필요로 한다. 평소에 수출에 대해서는 제약이 많지 않은데 코로나가 확산되자 많은 국가들이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식량부족을 우려하여 일부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의 수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공조를 통해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제한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방침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질병의 확산으로 세계화의 취약성(fragility)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지구촌에 경계선이 그어진 형국이다.

###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공조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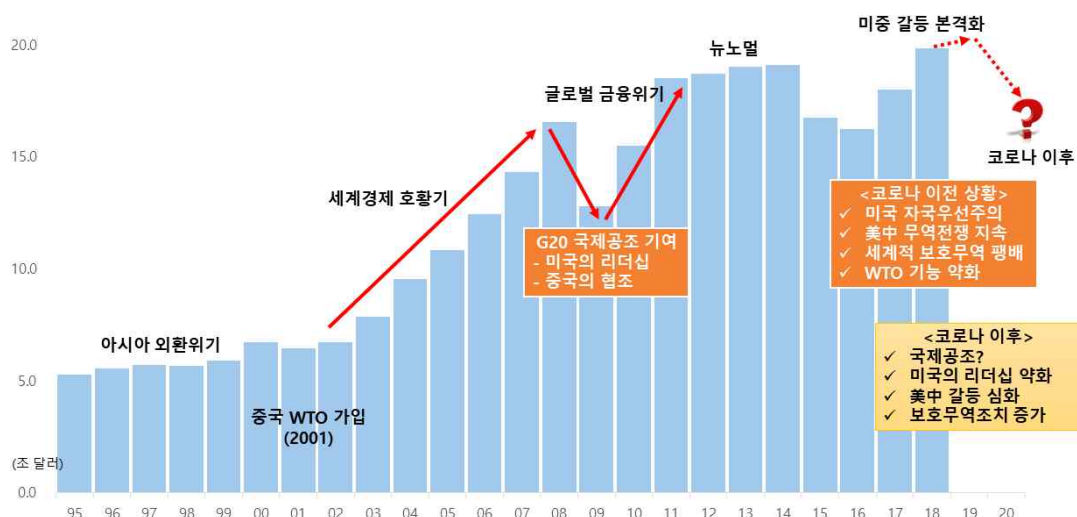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G20 국가들간에 경기부양은 물론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해 협력했고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와는 달리 당장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들간의 공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국제협력이 어려운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리더십의 부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상당 기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미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가간 공조를 이끌어낼 구심점이 사라져버렸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인식**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짙어졌는데, 결국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 불편한 진실과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이 시작된 중국이 강력한 국가통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글로벌 리더십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중국의 행보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고, EU는 코로나 사태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 인류의 건강과 경제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제공조가 놓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세계수입 추이와 통상환경 변화>



###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 지속

금년 1월 미국과 중국이 오랜 협상 끝에 타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을 하고 2월 동 협정이 발효되면서 일견 미중 갈등이 한 고비를 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의 결과는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보다는 기업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여러 차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조치를 취한 결과, 2019년부터 양국간 무역금액이 감소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de-coupling)’의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중국이 2020~2021년간 미국으로부터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의 수입을 2,000억 달러 늘려야하며 중국이 이를 이행할 경우 양국 무역이 디커플링의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미국의 수출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협정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는 미국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협정 이행 여부를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 언제든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자국 통상법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제는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빌미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행, 국영기업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룰 통상분쟁 2차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양국 갈등구조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기업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우리가 갈등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역을 포기할 수 없는 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 스스로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지정학적 요소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보호무역기조 가속화 대비 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작년부터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 대표적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의 증감은 세계경기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수입규제의 증가는 경기적 요인 보다는 미국에서 시작된 규제조치가 다른 국가들에게 연쇄적으로 파급된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보호무역기조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4월 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2020년 세계 교역물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3.3%에서 마이너스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전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정부구매시 국내산 구매를 의무화하는(buy local) 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에 몰두해 있지만 수요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산업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유럽제조업자연합(AEGIS Europe)은 위기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유럽집행위에 공식 요청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는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당분간 기업들은 수입국내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기회**

세계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있기 마련이다. 질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가 일반화되자 비대면(untact) 사업이 각광 받고 있다. 물론 이 분야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속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 초기의 오명을 벗고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 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의 환경 측면에서는 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 미래 먹거리를 서비스 산업에서 찾는 목소리가 많고,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등 많은 서비스 산업분야가 온라인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고 원격 의료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별로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로벌 규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기업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이 절실히 보인다.



## 세션Ⅱ :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

윤성욱 충북대학교 교수



## 코로나 19 이후 산업통상분야 대응과 과제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성욱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한국식 코로나 대량 검사’에서부터 확진자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방역체계 등과 관련한 국가의 역량, 그리고 국민들의 질서 의식과 성공적인 총선 실시 등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역량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보다 체계적이고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산업통상분야의 전망은 세 분의 발표자께서 진단하시는 것처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발표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 즉 GVC의 변화와 재편이 본격화 될 것이며, GVC 활용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Joseph Stiglitz 등은 ‘just-in-time 방식의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조달을 통한 생산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발표자분들께서 리쇼어링의 가속화, 신남방 지역 등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필요, 부품소재 자립화 등의 촉진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분의 발표자분들께서 거시적 차원의 통상질서 전망과 코로나 19 이후 유망 산업,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등을 다양한 분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 토론에서는 이러한 전망과 정책 방향 수립 시 좀 더 세심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1.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경계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의 주역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globalisation’이다. Globalisation으로 인한 일종의 국경의 개방과 여행의 자유화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과 GVC의 확대 등은 코로나 19로 국경 봉쇄,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그리고 GVC 변화와 재편 가능성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Globalisation의 종말’ 가능성을 기저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인 Bruno Le Maire는 코로나 19가 globalisation의 향방을 결정하는 ‘game-changer’이며, 중국의 공급에 대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의존과 복잡한 국제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의 봉쇄,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출입 감소, 소비 위축 등 단기적 차원의 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19가 globalisation의 구조적 변형, 다시 얘기해서 GVC의 축소 또는 NVC(National Value Chain) 또는 LVC(Local Value Chain), 혹은 RVC(Regional Value Chain)로의 급속하고 완전한 전환을 초래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NVC 또는 LVC로의 전환은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자국 기업들의 해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내 복귀를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RVC로의 전환, 즉 지역화 과정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일정 부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USMCA 협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으며, 코로나 19를 계기로 EU는 경제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의 회복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globalisation 수준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공급망의 다변화 과정 등을 통해 GVC가 재편성될 수 있지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떤 시나리오로 코로나 19 이후 국제통상 질서가 재편될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향후 국제통상 질서에 대한 전망은 많은 부분에서 GVC의 축소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보호주의 무역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는 최악의 선택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정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급망의 축소와 지역화는 우리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 19 이후 GVC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은 상호의존이 국가들간 분쟁을 방지한다는 주장이 핵심은 아니다.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분쟁이 큰 비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19는 이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은 상호의존이 종종 국가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호의존 단절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South Korea may gain kudos, but lose markets'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앞서 Stiglitz의 전망에서와 같이 GVC의 축소 또는 붕괴와 NVC 또는 RVC로의 전환 가능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팽배한 산업통상분야에서 우리의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 2.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특히 강유덕 교수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은 - 그 수준은 불확실하지만 -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그리고 미-EU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코로나 19 이전, 특히 ‘America First’를 앞세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 오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원칙에 따른 비차별적 다자주의가 쇠퇴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통상질서의 재편 필요성이 더욱 불거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EU, 중국 등 사실상 강대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통상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통상질서 재편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강유덕 교수가 제시한 방역 및 의료 분야를 국제통상 이슈로의 포함은 한국이 국제통상 질서 구축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안’과 오는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등은 국제통상에서 의료 및 방역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 표준 제품의 세계 시장 선점 효과와 국가 위상 강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표준의 국제 표준화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좋은 계기 및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03년 SARS 전염병을 계기로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디지털 경제 혁신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19를 계기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혁신 상품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한국은 GVC 활용 정도가 높으며, 이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 구조에 핵심이라고 언급하였

다. 또한 RVC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GVC의 - 단지 일시적일지언정 -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제공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산업협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은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및 통상 분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가 되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구축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